

1995년도

성/남/문/화/연/구

성 남 문 화 위

성남문화원 부설
양토문화연구소

目 次

□ 말 간 사	이창업 소장	3
□ 측 사	임식봉 시장	4
□ 측 사	손영태 시의회 의장	5
□ 연구논문		7
金 昌 煥 … 城南市·모관 地域의 商街 機能에 關한 研究		9
朴 相 圭 … 城南市 地名研究 … 《壽井區 高疊洞 ‘도당터’를 中心으로》		43
白 南 都 … 百濟의 初期 疆域에 關한 研究		69
湯 頤 英 …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103
全 實 三 … 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135
韓 春 斐 … 모관地域의 鄉土史 정리		169

연 구 논 문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金 昌 優

(東國大 教授)

〔 目 次 〕

- | | |
|------------------|------------------------------|
| 1. 序 論 | 3. 主要 機能 및 葉種의 構成과
分布 |
| 1) 研究 目的 | 1) 機能 및 葉種 分類 |
| 2) 研究 地域 | 2) 地域별 機能 및 葉種의
構成과 分布 |
| 3) 研究 方法 및 範圍 | 3) 路面 商街의 機能과 葉種
의 構成과 分布 |
| 2. 理論的 背景과 研究 動向 | 4. 要約 및 結論 |
| 1) 理論的 背景 | |
| 2) 研究 動向 | |

1. 序論

1) 研究 目的

도시란 지표면의 일부를 점유하는 지역으로 인간 활동의 핵심으로서 그 주변 지역과 관계를 맺고 그에 대한 행정·경제·문화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과정 즉, 도시 수의 증가·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의 증가를 도시화라고 한다.¹⁾ 우리나라 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다.

도시화는 촌락적 지역이 이같은 도시적 지역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²⁾으로서 우리가 도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대한 역할도 파악할 수 있다.

오늘 날 도시는 하나의 복합적 유기체로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성장, 변화하고 거대화되면서 내부의 지역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 지니고 있는 기능 중에 상업적 기능은 어느 도시에나 나타나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주로 시장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 지역을 통하여 나타나며, 도시 내부의 지역 별로 차이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 지역 중에서도 도시의 가로방과 직접 연결된 상가는 도시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도시의 지역적 특색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상가는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 경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치 및 지역의 주민 구성과階層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그 지역의 고객층과 고객의 量, 거래되는 물건 뿐만 아니라 배후 지역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의 분석

1) 井上義雄, 1987, 都市地理學, 法文社, p. 15.

2) 高野史男, 1959, “都市化の類型の概念規定”, 地理學評論, 32-12, pp. 629~642.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상가는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매점을 비롯하여 사무실과
독특한 목적을 가진 점포들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업종과 고객이 모여들고,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商圈의 中心
地位가 되고 있다.

한편, 도시의 성장에 따라 增加的擴散과 더불어 都市 内部地域의 分化,
機能의 다양화, 構造의 복잡화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지역 구
조의 변화 중에 거대 도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都心
(civic center)과 副都心(subcenter)의 分化이며, 이것은 巨大都市의 지역구
조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도시의 都心과 副都心에는 대부분 集積의 利益을 추구하기 위해서 商店
街가 형성되며, 이들은 고객의 敷地나 背後地의 성격에 따라서 취급하는 상
품의 종류와 到達範圍가 달라지고, 商街間에는 규모와 기능상의 차이가 나
타난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상가들은 도시 전체로 볼 때 階層構造를 형성
하며, 도시의 얼굴과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상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그 연구 결과는 도시 계
획 및 개발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都市 商街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
로 理論的 研究와 單位 地域에 대한 實證的인 事例 研究가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외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당 신시가지의 건설과 계속되는 서울의 인구 유출 현상으로 수도
권 최대의 위성 도시로 성장한 성남시는 거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거대 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도심과 무도심에 집중하는 기능
은 크게 나누어 쇼핑(shopping)·업무(business)·환락(amusement)·서비스
(service) 기능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간에 补完·競爭 關係를 가지면서

4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並存하거나 分化한다.

本研究는 성남시 부도심이라 할 수 있는 모란 지역을 대상으로, 商街의 構造와 商業活動의 空間構造를 把握하여 성남시 부도심의 기능상 특성과 일반성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입지에 대한 귀납적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남시 발전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研究 地域

① 모란 지역의 개발 과정

연구 지역인 모란은 개발되기 이전 광주군 둘마면 하대원리에 속한 곳이었다. 이 곳이 오늘 날 성남시의 부도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문헌은 없다. 그러나 비교적 모란의 탄생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城南市史”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란 지역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 12월에 시작하여 광주 대단지(약 300만평)의 12배가 넘는 4,200만평을 개발하여 250만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5년간에 걸쳐 1,328억원을 투자한다는 주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한 소위 모란 단지 사건(一母 金昌淑 事件)에서 모란 지역의 탄생이 시작된다. 김창숙은 1958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되어, 그 당시의 광주군 둘마면 하대원리인 현재의 모란에서 활동을 개간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가난한 계대 군인들을 모아 벼려진 땅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는 大院川이나 丹塲川이 치수가 되어 있지 않아 비만 오면 밤잠하고 구릉지와 자갈밭 뿐이어서 놓모없는 땅을 농토로 일구어 나갔던 것이다. 김창숙이 개간을 시작하자 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 50여명이나 되었는데 명칭을 재향군민개척단이라고 하고 김창숙 자신도 이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개간에 전념하였다. 광주 군수로 잠시 제

일 후 다시 하대원리의 재향군인개척단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선개척자에 봉네가 형성되자 지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김창숙은 원래 고향인 평양의 어머님을 그리기 위해 "모란"이라는 지명을 쓰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척단의 이름도 모란개척단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대원들의 생활필수품 조달 문제, 풍선 문제 등의 생활여건조성이 문제시되자 관계 기관의 허가로 5일장인 모란시장을 개설하였다. 이 시장은 그 후 4일과 9일마다 열리는 오늘 날 전국 최대 규모의 민족시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창숙은 지금의 성남우체국의 전신인 별정우체국 모란우체국을 개설하였으며, 풍생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모란학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창숙은 1971년 11월 2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모란 단지 사건은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다.³⁾ 그 후 1973년 7월 1일 성남동이 개소되면서 모란 지역은 성남시의 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산업 도로와 판교 - 구리 고속도로 그리고 성남과 각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성남 시의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서울의 수서와 분당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통과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뿐 아니라 성남시의 구시가지와 분당의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결절점의 역할도 하는 성남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부도심지의 특성 중의 하나가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는 점은 모란 지역이 성남시의 부도심지로 성장하기에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2) 모란 시장

서울 근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옛 5일장의 형태를 그린대로 간직하여 도시 속의 5일장으로 유명한 성남 모란장은 원래 성남 시외버스터미널 뒤 벤터와 성남로 주변 일대에 무질서하게 1천여 5일장 상인들이 자리잡고

3) 城南市史編纂委員會, 1993, 城南市史, 城南市, pp. 407~416.

6. 城南市 모란 地域의 蔓街 機能에 관한 研究

있었다.⁴⁾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상인들과 손님들이 차도까지 차지한 데다 성남로를 지나는 차하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성남시청이 모란장의 이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인근의 대원천이 부분적으로 복개되어 3천 3백여평의 벤터가 생김에 따라 성남시청은 평상시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모란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5일장 상인들로 구성된 “모란민속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5백만 ~1천만원씩의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개지 또한 좀 아 성남과 경기도 일대의 상인들로 입주 자격을 제한한 탓으로 2백여평에 이르는 서울 상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새로운 장터는 1인당 3평으로 면적까지만 축소하였다. 이 때문에 1990년 9월 하순부터 이전이 시작되면서 일부 상인들과 성남시청과 충돌, 청원 경찰 2명이 부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모란장은 그 이전보다 훨씬 정비된 모습이며 상인들도 이전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한다.

장터에 들어서면 입구부터 화훼, 잡곡, 약초, 의류, 신발, 잡화, 어물, 야채, 마늘, 고추, 애견 등의 순으로 같은 종류의 상인들이 모여 있는 소위 ‘同種 거리’를 형성하고 있어 이용 시민들이 한결 편리해졌다. 더욱이 장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휠오감을 주었던 개 도살장을 한군데로 모으고 1억여 원을 들여 현대식 시설도 갖추었다.

모란장은 전통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맛보면서 농산품에서 공산품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모란장의 상인들이 대부분 생산자이거나 1차 수출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싼 것도 먼 곳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고추와 개로서 각각 5억원 이상의 거래 수준을 기록한다고 한다.⁵⁾

4) 朝鮮日報, 1992年 6月 20日字

5) 朝鮮日報, 1991年 6月 26日字

3) 研究 方法 및 研究 範圍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의 범위는 건물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상가가 밀집되어 부심지와 中心核으로서 부도심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商街構造를 형성하는 곳에서부터, 주변 곳대로 이행되는 소위 "CBD Edge"에서처럼 商店의 量數·高密度·密度·地價 등이 급격히 낮아지는 곳을 경계로 하였다(그림. 1 참고).

조사 방법은 ① 일반적인 상점의 업종을 여러 가지 선형조사와 면구를 참고하고 재정리하여 도시의 대표적 기능인 업무관리(business), 오락(amusement), 쇼핑(shopping), 서비스(service) 기능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 지역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업종을 고려하여 크게 7개의 대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44개의 중분류, 다시 세분하여 247개의 소분류로 나누었다. ② 조사 대상 지역의 상점의 업종별 분포 상태는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 내지 도표화 하였다. ③ 조사 대상 지역의 상점에 대한 건물면적, 지가, 충수 등을 연관시켜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 두고 본 연구에서는 상가의 기능적 특징에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④ 상가의 발전 과정 상태는 과거의 조사 결과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차후의 재조사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사는 1994년 6월초부터 7월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8월초에 보완 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인 약 2개월간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자료를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 성남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의 기능별·업종별 상점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모란시장을 A, 반대편을 B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용된 基本圖는 1:3,000의 城南市地番略圖(第 16 號, 1991년)이며, 그 밖에 1:5,000 地形圖⁶⁾ 등이다.

6) 國立地理院, 1993, 木原 圖幅(026), 1:5,000

B: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그림 1 모란 地域의 地圖

2. 理論的 背景과 研究 動向

1) 理論的 背景

현대의 대도시는 공간적 확대와 더불어 기능의 다양화와 구조의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내부 지역이 분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잘 나타나면서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 진다.⁷⁾

이러한 내부지역 분화 중에 도시의 크기를 불문하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 商業地區이며, 상업지구가 없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⁸⁾ 상업지구는 도심과 부심을 포함하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집중하거나 도시 전역에 국부적으로 散在하지만 대체로 商街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체인 상가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주로 소매점의 집합체로서 개개의 점포가 모여서 하나의 거리로 된 것이다.⁹⁾ 그 중에서도 상가의 핵심지(shopping center)는 상업 지역(market area)의 중앙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상가는 그 크기와 구조가 위치 및 지역의 주민 구성과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街路에 면한 곳과 특히 코너(corner)의 상점들은 어떤 작용에 대해서 상업 기능과 특성이 가장 집중되어 그 지역의 경관을 대표한다. 상가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작용은 향시 바뀌며 정상적인 도시 체계(system)내에서는 도시 내부 구조와 도시간의 조작 체계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변화한다. 그리고 상가의 경계를 구분하는 指標는 판매량이나 거래액을 비롯하여 상점들의 분포와 구성을 중요하다.¹¹⁾

7) 雷錦珍, 1991, “서울副都心商街의 比較研究－永登浦·永東·新村地域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7.

8) 洪慶祖, 1987, 商業地圖, p. 74.

9) 杉村暢二, 1977, 中心商店街, 古今書院, p. 13.

10) P. Scott, 1970, Geography and Retailing, Hutchinson & Co. Ltd., pp. 92~93.

11) 上揭書, p. 95.

12 城南市 고관 城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우는 상업지 및 상가의 형성 요인과 형태 파악 방법, 주민의 이용 교통 수 단과 상가의 형성 및 생활 행동과 상업지의 대응, 상가의 가로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赤羽幸雄²⁰⁾, 지역별 상점의 상품 가격에 따른 형성과 분포 및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을 기능별로 그 특성·형성 및 변화 요인을 분석한 桑島勝雄²¹⁾, 상권의 형성·지역성·축장 방법·시장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상업 지역을 실체적 측면에서 분석한 室井鐵衛²²⁾ 등의 연구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邢基柱²³⁾의 路面商街에 관한 최초 연구에 이어 1970년 이후 상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업지역, 도·소매업, 상품별 유통, 소비자 행동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상가의 연구는 金元經²⁴⁾의 일련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상점가의 계층구조와 특성을 밝혔으며, 그 외에 成俊韓의 大田²⁵⁾, 崔基燁의 水原²⁶⁾, 鄭淳鎬와 崔珍植의 春川²⁷⁾, 李玉姫의 莺山²⁸⁾, 虞鳳玉의 地下商街²⁹⁾,

20) 赤羽幸雄, 1984, 菊園書, p. 274.

21) 桑島勝雄, 1984, “都市の機能地域”, 大明堂, p. 232.

22) 室井鐵衛, 1984, 商圏の知識, 日本経済新聞社, p. 112.

23) 邢基柱, 1966, “大邱市 中心商店街의 構造와 分化”, 只山先生華甲紀念論文集, pp. 225~247.

24) 金元經, 1971, “大邱市 中心商店街의 立地動向”, 廉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1979, “釜山市 中心商店街의 地理學的研究(1) : 光復洞 及 南浦洞의 土地利用과 雜貨街의 特性”, 釜山女子大學論文集, 第7輯, pp. 255~284.

25) 成俊韓, 1971, “大田市 中心商店街의 構造”, 公州師大論文集, 第9輯, pp. 191~210.

26) 崔基燁, 1978, “中心商店街의 地價分布와 機能構成 : 水原市 사례로”, 地理學研究, 第4輯, pp. 65~88.

27) 鄭淳鎬·崔珍植, 1981, “春川市 中心商店街의 地理學的研究”, 江原文化研究, 刊行號, pp. 53~68.

28) 李玉姫, 1983, “蔚山市 商業地域의 型態構造와 購買行動에 대한 研究”, 石泉李燦博士 華甲紀念論文集, pp. 302~315.

29) 虞鳳玉, 1985, “서울시 地下商店街의 構造와 機能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 地理學研究, 第10輯, pp. 109~128.

崔錦珍의 서울 賽心地 研究³⁰⁾ 등이 있다.

3. 主要 機能 및 業種의 構成과 分布

1) 機能 및 業種 分類

상가의 업종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本 稿에서는 최석진의 분류 방법³¹⁾에 필자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구분하였다. 즉 도시 상업 중심지역의 대표적 기능인 사교오락(환락)(amusement)·쇼핑(shopping)·업무관리(business)·서비스(service)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나누었다.

먼저 대분류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사교오락, 음식, 소매업, 업무관리, 정보문화, 판의점, 기타의 7개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소매업 기능은 다시 도시의 중심지에 잘 나타나는 集心性 또는 中心性商店과 보편적인 散在性 또는 一般性商店(近隣性商店)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便宜店” 기능은 과거의 일부 연구나 분류에서는 “生活關聯” 또는 “서비스” 기능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는 그 의미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미 용어로 바꾸었다.³²⁾ 이상의 대기능을 각각 구분하여 43개의 중분류, 다시 이를 세분하여 251개 업종의 소분류로 구분하였다.³³⁾

30) 崔錦珍, 1982, “賽心地區의 商街構造에 관한 研究：서울 永登浦의 경우”,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1986, “서울 新村地域의 商街研究”, 東國地理, 第7號, pp. 1~17.

_____, 1988, “商街構造의 變化와 線形最近隣分析研究：서울 新村地域의 商街를 中心으로”, 地理學研究, 第13輯, pp. 1~16.

_____, 1991, 前揭書。

31) 崔錦珍, 1991, 前揭書, pp. 31~33.

32) 上揭書, p. 31.

33) 기타 기능 중에 중장은 상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업과의 관련성으로 참고로 삽입하였다.

14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표 1. 기능 및 업종 분류

대분류	중 분류	소 분류
가. 사교오락	1. 술집	1) 스텐드바 2) 품목점 3) 카페 4) 카페일과 음식 5) 대중주점 6) 생맥주점(호프) 7) 디스크클럽 8) 나이트클럽 9) 카페레 10) 단란주점
	2. 다행, 술과	1) 다행(연한 맛집) 2) 예과점 3) 전통찻집 4) 스낵바 5) 햄버거, 피자
	3. 오락시설	1) 당구장 2) 농구장 3) 사격장 4) 전자오락실 5) 기원 6) 야구장 7) 대여점(반화 및 비디오) 8) 헬스클럽 9) 게임룸 10) game room 11) 블리스케이트장 12) 골프연습장 13) 노래방 14) 무도관
	4. 극장	1) 영화관 2) 소극장 3) 음악감상장
나. 음식	5. 음식점	1) 한식 2) 중국식 3) 일식 4) 분식 5) 레스토랑 6) 그릴 7) 부페
다. 식생활	6. 베스트점	1) 베스트점 2) 슈퍼마켓 3) 아케이드 4) 쇼핑센터 5) 종합점 6) 편의점
	7. 피복	1) 죽녀복 2) 남성복 3) 아동복 4) 할장점 5) 양복점 6) 내복(잠옷) 7) 특수복 8) 종합의류 9) 한복 10) 백화점 11) 양복점
	8. 주단, 조목	1) 포목점 2) 모사 3) 철, 바늘, 단추 4) 모자 5) 타올
	9. 고급상품	1) 금은보석 및 시계 2) 안경점 3) 카메라 4) 악세사리 5) M&G & Film
	10. 가전제품	1) 가전제품 2) 오디오 3) 사무기기(계산기, 라이다) 4) 전기부품 5) 전화기 6) 컴퓨터 7) 정보통신
	11. 가구장식	1) 가구(침구, 의자) 2) 공예, 민예사 3) 수제품(리본) 4) 가정용품 5) 치즈포 6) 조명사 7) 표구 8) 선물코너 9) 카렌, 카페트 10) 자동차
	12. 양화점	1) 양화점 2) 웨딩백 3) 가죽공예
	13. 화비용품	1) 화장점 2) 수족관 3) 배관용품
	14. 페로드, 악기	1) 페로드 2) 악기
	15. 운동용품	1) 체육용품 2) 등산용품 3) 낚시용품 4) 운동용구 5) 원구
	16. 식품관련점	1) 구辩가게 2) 연쇄점 3) 식료품점 4) 건강식품 5) 풍차점 6) 방앗간 7) 청과점
	17. 위생도기	1) 세면기 2) 양면기 3) 목욕용품
	18. 신발	1) 신발 2) 가방 3) 양선
	19. 서점, 문구점	1) 서점 2) 문방구 3) 우표 4) 화방
이. 반려생	20. 화장품	1) 화장품
	21. 생활용품	1) 꾸러미 2) 편한 3) gas, 석유 4) 청결점
	22. 가정설비	1) 보일러, 모터 2) 복고소, 제제소 3) 삶시 4) 생동식 5) 가구수리 6) 수도살사 7) 복제살사 8) 힘석 9) 용기, 유리 10) 전파사 11) 거울 12) 판넬 13) 베인트 14) 차량사 15) 필수의 생파 16) 소방기구
	23. 자동차관련	1) 자동차 판매 2) 차태리점 3) 정비공장 4) 세차점 5) 주유소 6) 주유장 7) 충전 8) 오토바이 9) 증강비

대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라. 업무관리	24. 사무실	1)은행 2)규고 3)보령 4)증권 5)농협 7)조합 8)영화사 9)사무실 10)오피스텔
	25. 공공시설	1)경찰서 2)파출소 3)동사무소 4)전래서 5)우체국 6)전선전화국 7)한전 8)구청 9)기타기관
마. 정보문화	26. 관문사무실	1)세무사 2)회계사 3)사법서사 및 대서 4)건축설계 5)변호사
	27. 학원	1)회계학 2)임시 3)철학 4)컴퓨터 5)미술·음악·무용 6)음반 7)서예 8)복장 9)독서실 10)방송소·학원 11)주산 12)디자인 14)고시원
마. 정보문화	28. 정보문화	1)신문보급소 2)철학관 3)번역 4)화랑 5)복역관 및 푸동산 6)상담소·면수원 7)직업안내소 8)노안과 9)문화원 10)단체회 회관 및 사무실 12)연구소
	29. 학교	1)유치원 2)국민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마. 편의점	30. 종교시설	1)교회 2)불 3)포교원
	31. 숙박업	1)호텔 2)여관 3)여인숙
마. 편의점	32. 미·미용업 등	1)여행관 2)미용점 3)세탁소 4)현당포 5)복용탕 6)사우나 7)온수전 8)구두수선 9)한증탕
	33. 배식·사진	1)배식 장 2)사진관
마. 편의점	34. 병원	1)일반 병원 2)종합병원 3)한의원 4)치암·척추교정 5)가족병원 6)월수원
	35. 약국	1)약국 2)한약국
마. 편의점	36. 음식·중식	1)점내외·중식
	37. 민체·출판	1)민체 2)상체·마크 3)복사 4)간판·광고
기타	38. 농업	1)농묘 2)농약 3)축산 기구 및 사료
	39. 기계·기구 도매	1)철·강철류 및 쇄파이프 2)기계·공구 3)제작제작 및 수리 4)차량기 수리 및 관례 5)기타
기타	40. 제조사	1)이·미용 제조 2)화장기·보청기 3)사진제조 4)광학기기제조 5)화장약품 6)당구제조상사
	41. 공장	1)석유류 공장 2)화학 공장 3)피혁 공장 4)기타 공장 5)제지장
기타	42. 굴터·공장	1)민성질 2)대부수리 및 공사장 3)광고 4)굴터
	43. 기타	

16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그런데 음식점 기능과 정보문화 기능은 도시 상업 지역에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비중을 알기 위해서 구분하였다. 그러나 기능상의 음식점은 사교오락 기능과 그리고 정보문화 기능은 업무관리 기능과, 편의점 기능은 서비스 기능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되는 기능끼리 연관되어서 한꺼번에 묶거나 특징이 큰 기능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지역별 기능 및 업종의 구성과 분포

모란 지역에서 조사한 전체 상점의 기능별·업종별 상점 분포 상황은 각각 표-2와 표-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모란 지역의 기능별 상점 분포

기 능 지 역	사교 오락		쇼 평		업무관리		서 비 스		기 타		총 계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A	108	30.2	197	55.0	18	5.0	30	8.4	5	1.4	358	100.0
B	279	36.1	253	32.8	100	13.0	85	11.0	55	7.1	772	100.0
전체	387	34.3	450	39.8	118	10.4	115	10.2	60	5.3	1130	100.0

① A 지역(모란 시장 쪽)

A 지역의 경우 사교오락 기능이 30.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교오락 기능 중에서는 음식점 기능이 19.6%(상점수 70개)로 A 지역 전체 상점의 1/5에 해당할 만큼 단일 업종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란 시장의 기능과의 관련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교오락 기능 중에서 오락시설(3)의 경우는 노래방이 11개 점포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는 대부분이 한식 식당이다.

쇼핑 기능의 경우를 살펴 보면, 전체의 반 이상(55.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심성 상점(9.4%)보다는 일반성 상점(45.6%)이 A 지역

표. 3 모관 지역의 업종별 실점 분포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역		A		B		전체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사교오락	1	5	1.4	67	8.7	72	6.4		
	2	15	4.2	19	2.5	34	3.0		
	3	17	4.7	61	7.9	78	6.9		
	4	1	0.3	1	0.1	2	0.2		
	소계	38	10.6	148	19.2	186	16.5		
유식점	5	70	19.6	131	16.9	201	17.8		
	6	3	0.8	2	0.3	5	0.4		
	7	4	1.1	17	2.2	21	1.9		
	8	2	0.5	2	0.3	4	0.4		
	9	8	2.2	9	1.2	17	1.5		
	10	3	0.8	13	1.6	16	1.4		
	11	4	1.1	20	2.6	24	2.1		
	12	—	—	4	0.5	4	0.4		
	13	3	0.8	8	0.6	8	0.7		
	14	—	—	2	0.3	2	0.2		
	15	7	2.0	—	—	7	0.6		
	소계	34	9.4	74	9.6	108	9.6		
	16	133	37.2	55	7.1	188	16.6		
	17	—	—	1	0.1	1	0.1		
	18	4	1.1	2	0.3	6	0.5		
	19	3	0.8	9	1.2	12	1.1		
업무	20	1	0.3	7	0.9	8	0.7		
	21	9	2.5	22	2.8	31	2.7		
	22	12	3.4	43	5.6	55	4.9		
	23	1	0.3	40	5.2	41	3.6		
	소계	163	45.6	179	23.2	342	30.2		
	24	3	0.8	11	1.4	14	1.2		
	25	—	—	3	0.4	3	0.3		
정보문화	소계	3	0.8	14	1.8	17	1.5		
	26	—	—	9	1.2	9	0.8		
	27	5	1.4	32	4.1	37	3.2		
	28	7	2.0	36	4.7	43	3.8		
	29	—	—	—	—	—	—		
	30	3	0.8	9	1.2	12	1.1		
편의점	소계	15	4.2	86	11.2	101	8.9		
	31	4	1.1	22	2.8	26	2.3		
	32	10	2.8	30	3.9	40	3.6		
	33	2	0.6	3	0.4	5	0.4		
	34	9	2.5	16	2.1	25	2.2		
	35	5	1.4	9	1.2	14	1.3		
	36	—	—	5	0.6	5	0.4		
	소계	30	8.4	85	11.0	115	10.2		
	37	—	—	12	1.6	12	1.1		
	38	2	0.6	3	0.4	5	0.4		
기타	39	—	—	16	2.1	16	1.4		
	40	—	—	4	0.5	4	0.4		
	41	3	0.8	8	1.0	11	0.9		
	42	—	—	8	1.0	8	0.7		
	43	—	—	4	0.5	4	0.4		
	소계	5	1.4	55	7.1	60	5.3		
	총계	358	100.0	772	100.0	1150	100.0		

18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關한 研究

전체 상점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식품관련점에서 식료품점과 건강식품점이 각각 64개, 38개로 A 지역 전체의 1/3 이상(37.2%)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료품점으로는 과일 가게와 참기름점의 비중이 높으며, 건강식품점은 주변 모란 시장의 영향을 받아 개고기와 촉염소 판매점이 많다. 쇼핑 기능 즉 소매업 기능은 집중력이 크고 外部經濟(exeternal economies)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接近性(accessibility) 및 補完性(complementary)과 관련성이 크다. Scott는 이런 경우를 전통적 시장에서 잘 나타난다고 주장³⁴⁾하였는데, 모란 시장 일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계, 보석, 카페라 등 고급상품 업종은 대표적인 중심성 업종으로 고객의 범위가 넓은 시계, 보석, 안경 등은 중소 규모 도시의 중심지에서는 한 점포에서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지역의 경우 시계와 보석류는 한 점포에서, 안경점은 분리되어 一氣一店의 전문업 경영을 하고 있다. 운동용품과 관련된 업종에서 낚시용품을 취급하는 업종만 7개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충분히 11번의 가구장식점은 22번 가정 설비의 5)번 가구수리점과 관련이 있으나, 前者의 경우는 주로 환제품 가구회 판매를 하는데 비해, 後者는 소규모 가구의 제조와 수리를 주로 한다.

모란 시장 지역에서의 업무관리 기능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업무관리 기능 점포수 18개 중에서 복대방 및 부동산이 6개소로 1/3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전문 사무실 그리고 학교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관리 기능 중 두번째로 비중이 큰 업종이 학원인데 이는 모란 지역의 교통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개통으로 말미암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 기능 또한 업무관리 기능과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8.4%)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기능을 가진 상점 중에서 병원과 약국이 절반(14개)을 차

34) P. Scott, 1970, 旗揚書, pp. 26~28.

지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큰 특징이다. 이들은 빌딩의 2층 또는 3, 4, 5층에 독립된 의원으로 입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전문의원이 한 곳에 입주하여 여러 개의 독립된 의원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단과의원이 입주해 있는 것은 이용자로서는 매우 편리하며, 의원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

② B 지역(모란 시장 건너편)

이 지역은 전술한 A 지역에 비해 상점수에 있어서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772개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능은 A 지역과 달리 사교오락 기능(36.1%)이다. 특히 최근 젊은층이나 청장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호프집과 단란주점이 각각 48개와 12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는 A 지역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16.9%로 A 지역(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쇼핑 기능의 경우를 보면, 32.8%로 B 지역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A 지역(5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는 A 지역이 모란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 지역의 경우 중심성 상점은 74개(9.6%)로 가구 장식과 관련된 업소(20개, 2.6%)가 많은 편이다.

의류와 관련된 상점은 속녀복·남성복·아동복 등 계층 간의 의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절포보다는 종합 의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가전 제품의 경우 가전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대부분이며 전문 상가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상가는 전혀 없으며, 첨단 통신 기기를 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 상가는 3개 업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아직 모란 지역의 中心性 내지 集心性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요소이나 지하철의 개통으로 接近性이 높아짐에 따라 중심성 상점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성 상점의 경우는 179개로 23.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B 지역 익식 식품 관련점의 비중(7.1%)이 비교적 높으며, 가장 설비와 자동차 관련 상가의 비율도 각각 5.6%, 5.2%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관련의 경우 A 지역에서는 1개에 불과했으나 B 지역의 경우 40개에 이르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란 지역 내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발 지역에 해당되는 B 지역에 자동차 관련 상가가 입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관리 기능에 해당되는 상점은 100개로 전체의 13%를 보이고 있다. 이는前述한 A 지역(5%)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A 지역이 모란 시장이란 일반성 상점의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B 지역은 소매업의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이 A 지역보다 훨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업무관리 기능 중 가장 많은 상점은 부동산 관련 상점으로 27개에 이른다. 그리고 학원도 32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인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에 해당되고 A 지역에 비해 상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와 관련된 학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원들은 A 지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서비스 기능의 경우는 상점수 85개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업종은 이, 미용업과 관련된 것(30개)으로 이발관과 미용실이 각각 5개와 13개로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탁소가 8개 분포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가와 가까운 곳으로 성남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이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 기능 중 실내와 품식과 관련된 업종이 A 지역에서는 전혀 없으나 B 지역에서는 5개 업소가 나타나는 것도 A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요소이다.

기타 기능의 경우 A 지역(5개, 1.4%)과는 달리 총 55개 상점에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A 지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쇄, 출판

관련 업종(12개, 1.6%)과 기계, 기구 도매 관련 업종(16개, 2.1%)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B 지역이 전통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A 지역보다 상점수가 월등히 많으며, 그 업종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란 지역의 중심 지역은 B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地理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해당된다.

③ 전 체

모란 지역에 분포하는 상점은 총 1,130개로 조사되었다. 이를 상점을 기능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교오락 기능의 경우 387개 상점으로 전체 상점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순수 사교오락 기능을 가진 업종은 술집이 6.4%(72개)를 나타내고 있다. 酒類販賣商의 유형을 日本에서는 ⑦ 술과 음료를 직접 판매하는 곳(술집) ⑧ 회사·가정·술집에 각각 비슷한 양을 균형적으로 판매하는 곳 ⑨ 고급 주택지의 가정을 단골로 하는 곳 ⑩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곳 ⑪ 소매상이나 슈퍼(super chain)와 같이 상점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파는 곳의 5가지로 나누며, 취급 품목은 주류를 60~70%, 기타 식품을 30~40%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⁵⁾ 모란 지역의 술집들은 위의 사례 중 대부분 첫번째 경우이며, 다섯번째 것도 상당수 있다. 술집은 카페, 칵테일과 음식, 생맥주집(호프집) 등 일반 서민 상대의 가벼운 西歐型 술집과 디스코 클럽, 스탠드 바, 나이트 클럽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업소는 호프집(생맥주집)으로 53개 업소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단판주점이 12개나 된다. 단일 업종으로 32개 업소가 분포하는 다방의 경우는 全日制의 순수한 다방 역할을 하는 곳과 주간에는 다방, 야간에는 경양식과 술집으로 바

35) 松村暢二, 1979, 前揭書, pp. 123~124.

위는 경우도 있다. 최근들어서는 커피 전문점의 형태로 젊은층들을 주고객으로 흡수하는 업소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방은 음식점 기능으로서 보다는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며 모임과 談話의 장소로서 상가의 중심지를 비롯하여, 대형건물과 결합 또는 인접하여 分散·立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하층이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방과 비슷한 구실을 하는 인삼찻집은 2개 업소로 성남고 보다는 약간 後面으로 물러난 곳에 소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는 전철 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大型에 고급 시설을 갖춘 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빵집·파자질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빵의 공급처와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는데, 이들은 賣場에서 고객이 직접 取食하는 것 못지 않게 大型 케익과 빵 등을 사서 가게가는 배상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의 선택이 중요한 입지 요인이다.³⁶⁾ 그러나 모란 지역에서는 2개 업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근래에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층의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 푸드(fast food)점과 調味통닭집(chicken) 등의 체인(chain)점이 본 연구 지역에서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교오락 기능 중 음식점의 경우는 201개의 업소로 전체의 17.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식이 169개, 중국식과 분식이 각각 9개, 레스토랑이 12개, 부페가 2개 업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고급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식점이 전혀 없는 것이 이미 연구된 다른 도시의 부실지 상가 기능과는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쇼핑 기능의 경우는 모란 지역 전체 상가 기능 중 가장 높은 비율(450 개, 39.8%)을 나타내고 있어, 모란 지역의 기능상 특징은 쇼핑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중심성 상점(9.6%)보다는 일반성 상점(30.2%)의 비중이 훨씬 높아 모란 지역은 일반성 상점의 업종적 특성이

36) 崔錦珍, 1991, 前揭書, pp. 59-60.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모란 지역의 상가 기능 형성이 전형적인 도심지의 기능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중심상 삼점 중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가구 장식과 의복 관련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백화점의 성격을 지닌 대규모 매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반상 상점의 경우는 식품관련점이 188 개로 16.6%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표. 1의 중분류 16의 소분류 3)번과 4)번의 업종이 123개나 되어 전통적인 시장 기능의 업종과 모란 시장의 특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식품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란 시장을 끼고 있는 A 지역의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설비와 관련된 업종이 55개 업소로 1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무관리 기능은 모란 지역의 주요 4기능 중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118 개, 10.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과 공공시설의 경우는 불과 1.5%에 불과하여 아직 모란 지역이 전형적인 부심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 문화의 경우 부동방 및 부동산 업종이 3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기능의 경우, 전술한 업무관리 기능과 함께 모란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115개, 10.2%)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것은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란 지역은 터미널이 위치하여 많은 유통 인구가 있지만,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이면서, 주차 공간의 혐소로 인하여 모란 지역 이외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지하철 개통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기능의 성장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路面 商街의 機能과 業種의 構成과 分布

일반적으로 道路邊 商街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을 때와 別로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의 차이는 나타나게 마련이다. 특히 무심지의 형성에 있어서 大路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설이 모란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모란 지역을 관통하는 대로인 성남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인접한 상가들의 기능과 업종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남로 노면 상가 조사는 帶地數 別로 조사하였다. 즉, 동일 帶地를 대상으로 할 때, 성남로에 인접한 帶地는 21, 23, 24, 19, 28, 27, 25, 26 帶地이다. 이 중에서 25, 26번지는 조사 기간 중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누락되었음을 살기시킨다.

성남로 노면 상가(以下 路面 商街)의 기능 분포와 업종 분포에 관한 내용은 표. 4와 표. 5에 정리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남로 노면 상가 기능 분포

기능 번지	(단위 : %)											
	사교 모락		쇼 필		업무관리		서 비 스		기 타		총 계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21	37	44.6	28	33.7	6	7.2	11	13.3	1	1.2	83	100.0
23	9	33.3	12	44.5	2	7.4	4	14.8	0	0.0	27	100.0
24	8	22.2	22	61.1	2	5.6	3	8.3	1	2.8	36	100.0
19	30	49.2	17	27.9	3	4.9	9	14.8	2	3.2	61	100.0
28	59	45.7	33	25.6	20	15.5	15	11.6	2	1.6	129	100.0
27	18	46.2	5	12.8	8	20.5	8	20.5	0	0.0	39	100.0
전체	161	42.9	117	31.2	41	11.0	50	13.3	6	1.6	375	100.0

* 25 + 26 번지는 공사중으로 조사에서 빠짐

표 5 성남로 노면·상가 업종 분포

업종구분		21		23		24		19		28		27		전체	
업종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상점수	비율
자교 초학	1	4	1.3	—	—	—	—	3	1.3	9	2.4	5	1.3	25	6.7
	2	7	1.9	—	—	2	0.5	3	1.3	9	2.4	1	0.3	22	5.9
	3	3	0.8	5	0.8	1	0.3	11	3.5	17	4.5	8	1.1	42	11.5
	4	—	—	1	0.3	—	—	—	—	—	—	—	—	1	0.3
	소계	16	4.3	4	1.1	8	2.0	21	5.8	37	9.9	10	2.7	91	24.3
주식점	5	21	5.5	5	1.3	5	1.3	9	2.4	22	5.9	8	2.1	70	18.7
	6	—	—	—	—	—	—	—	—	—	—	—	—	2	0.5
	7	2	0.5	1	0.3	—	—	4	1.1	6	1.6	—	—	13	3.5
	8	—	—	—	—	—	—	—	—	—	—	—	—	2	0.5
	9	1	0.3	5	1.3	2	0.5	—	—	—	—	—	—	15	4.0
	10	2	0.5	1	0.3	—	—	—	—	—	—	—	—	4	1.1
	11	3	0.8	—	—	1	0.3	—	—	—	—	—	—	8	2.1
	12	—	—	—	—	—	—	—	—	—	—	—	—	4	1.1
	13	2	0.5	—	—	1	0.3	—	—	—	—	—	—	4	1.1
	14	—	—	—	—	—	—	—	—	—	—	—	—	2	0.5
	15	3	0.8	1	0.3	—	—	—	—	—	—	—	—	7	1.9
	소계	15	4.0	9	2.4	8	2.0	9	2.4	19	5.1	1	0.3	61	16.3
	16	5	1.3	—	—	9	2.4	—	—	5	1.3	2	0.5	24	6.4
	17	—	—	—	—	—	—	—	—	—	—	—	—	—	—
	18	—	—	1	0.3	3	0.8	—	—	—	—	—	—	5	1.3
	19	2	0.5	1	0.3	—	—	—	—	—	—	—	—	7	1.9
업무·생 ·상 점	20	—	—	—	—	—	—	—	—	—	—	—	—	—	—
	21	1	0.3	—	—	—	—	—	—	—	—	—	—	—	—
	22	3	0.8	—	—	2	0.5	—	—	—	—	—	—	10	2.7
	23	1	0.3	—	—	—	—	—	—	—	—	—	—	4	1.1
	24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26	1	0.3	1	0.3	0	0.0	2	0.5	—	—	—	—	—	—
	27	—	—	—	—	—	—	—	—	—	—	—	—	—	—
	28	3	0.8	—	—	—	—	—	—	—	—	—	—	17	4.5
	29	—	—	—	—	—	—	—	—	—	—	—	—	—	—
정보화	30	1	0.3	—	—	—	—	—	—	—	—	—	—	3	0.8
	31	5	1.3	1	0.3	2	0.5	—	—	17	4.5	—	—	35	8.8
	32	1	0.3	—	—	—	—	—	—	—	—	—	—	7	1.9
	33	3	0.8	—	—	—	—	—	—	—	—	—	—	12	3.2
	34	2	0.5	2	0.5	1	0.3	3	0.8	—	—	1	0.3	—	0.8
편의점	35	2	0.5	2	0.5	1	0.3	—	—	3	0.8	5	1.3	5	1.3
	36	—	—	—	—	—	—	—	—	2	0.5	—	—	9	2.4
	37	11	2.9	4	1.1	3	0.8	9	2.4	15	4.0	8	2.1	39	10.3
	38	—	—	—	—	—	—	—	—	—	—	—	—	—	—
	39	1	0.3	—	—	1	0.3	—	—	—	—	—	—	—	—
	40	—	—	—	—	—	—	—	—	—	—	—	—	2	0.5
	41	—	—	—	—	—	—	—	—	—	—	—	—	1	0.3
기타	42	—	—	—	—	—	—	—	—	—	—	—	—	—	—
	43	—	—	—	—	—	—	—	—	—	—	—	—	—	—
	소계	1	0.3	3	0.8	1	0.3	2	0.5	8	2.0	6	1.5	36	9.5
소계		105	27.1	27	7.2	36	9.6	61	16.3	129	34.4	38	10.4	375	100.0

* 25~34 원자는 공리증으로 조사례의 평균

노면 상가의 상점 수는 총 375개로 모란 지역 전체 상점 수(1,130개)의 33.2%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 오락의 경우 161개의 상점이 분포하고 있어 노면 상가 전체의 4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모란 지역의 노면 상가는 사교 오락 기능이 특히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란 지역 전체의 사교 오락 기능의 비율(34.3%)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며, 모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기능이 쇼핑 기능인데 반해 노면 상가는 사교 오락 기능이 가장 큰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번지는 49.2%로 동일 번지내에 위치하는 상점수의 절반에 가까운 상점이 사교오락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상점수로는 28번지가 59개 업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술집과 오락 시설의 업종이 많다. 그리고 사교오락 기능이 가장 낮은 곳은 24번지이지만 이는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남로를 기준으로 모란 시장 쪽이 반대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 오락 기능의 낮음은 전술한 내용과 같다.

쇼핑의 경우는 총 117개 업소로 전체의 31.2%를 나타내고 있다. 23번지와 24번지가 각각 44.5%, 61.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술한 사교 오락 기능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서 모란 시장과의 관련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상점수로는 사교오락 기능과 마찬가지로 28번지가 33개 업소로 가장 많다. 특히 28번지 내에는 중심성 상점(19개)이 일반성 상점(14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중심성 상점으로는 의복관련 업종과 고급상품 관련 업종이 각각 6개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관리 기능은 전체의 11%에 해당되어 4기능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남로가 부심지 상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며, 앞으로 모란 지역이 부심지로 형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리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업

무관리 기능이 가장 높은 곳은 28번지와 27번지로 각각 15.5%(20개), 20.5%(8개)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기능은 전체의 13.3%로 총 50개 업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20.5%를 차지하는 27번지이다. 이 곳에는 특히 병원이 5개 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업종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를 분석해 보면 성남로가 모란 지역의 부심지 상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지하철의 개통과 지하철 공사 완공으로 인한 교통 체증 완화로 성남로의 기능은倍加될 것으로 전망된다.

4. 要約 및 結論

本研究는 성남시 부도심이라 할 수 있는 모란 지역을 대상으로, 商街의構造와 商業活動의 空間構造를 把握하여 성남시 부도심의 기능상 특성과 일반성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입지에 대한 귀납적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남시 발전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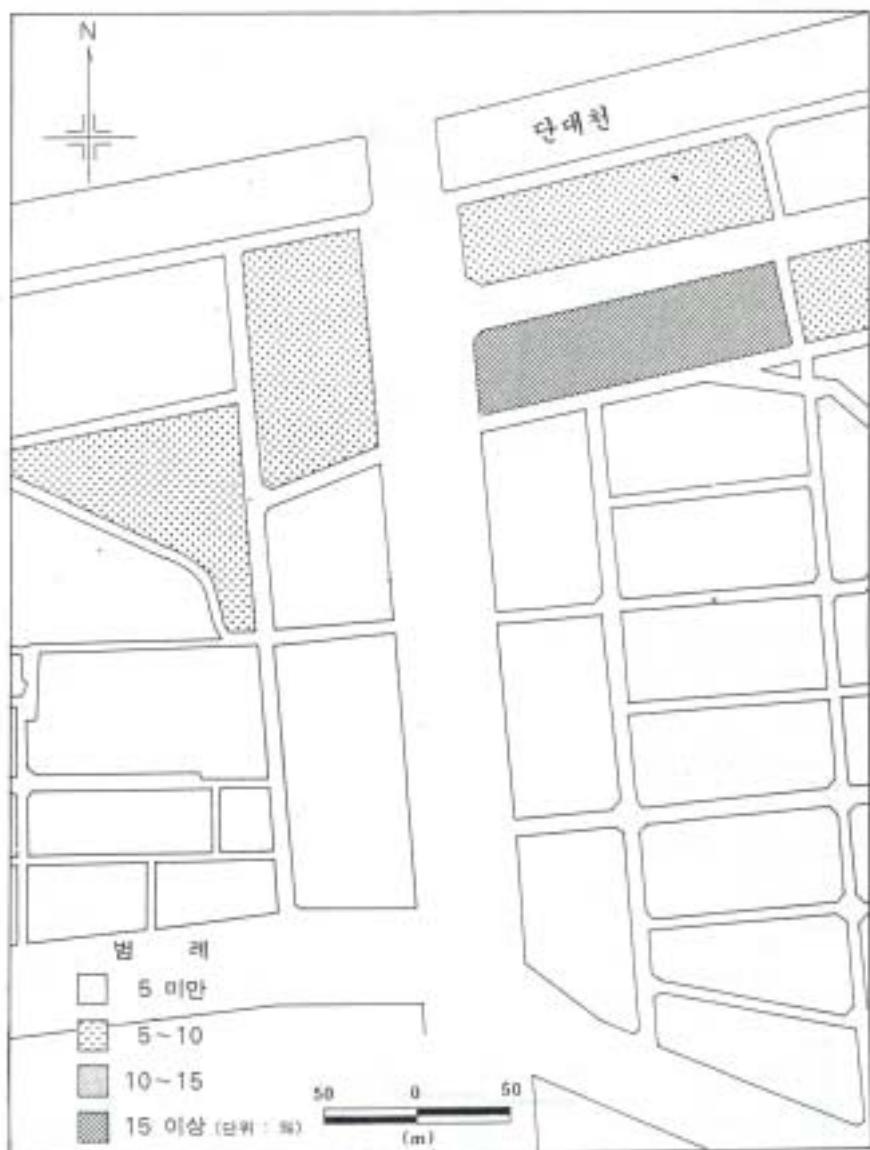
본 연구 지역은 1973년 7월 1일 성남동이 개소되면서 성남시의 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산업 도로와 판교 - 구리 고속도로 그리고 성남과 각 계방 도시를 연결하는 성남 시외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서울의 수서와 분당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통과하면서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성남시의 구시가지와 분당의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결절점의 역할도 하는 성남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모란 지역에 분포하는 상가 기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모란 지역에서 4기능의 비율은 쇼핑 → 사교오락 → 업무관리 → 서비스 →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쇼핑 기능이 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란 시장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란 지역을 성남로를 기준으로 모란 시장쪽(A 지역)과 반대쪽(B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前者의 경우 쇼핑의 기능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B 지역은 사교 오락의 기능이 박월하다. 그리고 모란 지역의 경우 다른 대도시의 부심지와는 달리 업무관리와 서비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기능의 부양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성남로 노면 상가의 기능 및 업종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성남로가 모란 지역의 부심지 상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자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의 개통과 지하철 공사 완료로 인한 교통 혁신 변화로 성남로의 기능은倍加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란 지역이 대규모 부도심 상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도심 상가의 일반적 기능에 주목할 일부 상가와 소규모 골장들을 墓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쇼핑 기능과 사교오락 기능에 치중된 상가 기능이 서비스 기능과 업무관리 기능과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한된 연구 기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존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모란 지역의 상가 변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철 개통 후의 모란 지역 상가를 재조사하면 모란 지역의 상가 기능 및 업종의 변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다. 그리고 상가의 기능 및 업종의 구성과 분포는 地懶, 그 지역의 인구 변화, 그리고 建物面積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内容은 此後의 研究課題로 남겨 둔다.



부록 1 모란 지역 사교모학 기능 분포도

30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52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부록. 4 모란 지역 서비스 기능 분포도



城南市 地名研究
—《특히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를 中心으로》—

朴 相 圭

(建国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教授)

〔目 次〕

- | | |
|-------------------|--------------|
| 1. 序 言 | 2-2. 地名 語彙 考 |
| 2. 本 論 | ● “高登洞의 도랑터” |
| 2-1. 城南地域의 地理的 性格 | 3. 結 語 |

1. 序 言

筆者는 ‘城南文化研究(창간호, 1994)’에서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百濟語와 高句麗語의 地名性格 考察를 中心으로)’을 發表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번 第2號에서는 “城南市 地名 研究”을 通해서 특히 霽井區의 ‘도랑터’를 어느 정도 言語學의 측면에서 考察하여 城南地域의 地名의 地名性格을 考察하여 城南地域의 地名의 性格을 규명하는데 그 기초가 되고자 本致을 敘述하고자 한다.

霽井區는 16동 333동 1775반¹⁾이며 1988년 7월 1일 성남시 수정출장소를 설치(5과 20개)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였다.(1992년 5월 1일 신청사 험주)

洞으로는 신흥1동, 2동, 3동, 대평1동, 2동, 3동, 4동, 수진1동, 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이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수정구에 있는 모든 地域을 現地 観察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本致의 마지막 귀절에 넣어야 하겠지만 시간적인 여건과 본인의 부지런함이 항상 부족한지라 여기에 있어서는 高登洞의 ‘도랑터’를 통해서 霽井區의 地名語彙 性格을 考察하기로 하겠다. 문제되는 점은 次後에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1) 城南市誌, p. 814 참조. 城南市史編纂委員會 1993, 성남, 한국

2. 本 論

2-1. 城南地域의 地理的 性格

城南地域은²⁾ 廣州郡의 일부지역으로 1964년 2월 24일 광주군 조례 제68호에 의하여 중부면에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470호에 따라서 경기도 성남 출장소로 승격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 지역과 둘다면, 낙성면 대왕면을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접도지역으로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광주군이 있고, 서쪽으로는 파천과 시흥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용인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울과 구리시가 있음을 지리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89년 시조례 제931호에 의거 수정구와 종원구로 관계가 되고 다시 1991년 시조례 제1152호에 의기하여 분당구가 신설되었다.

또한 城南이라는 名稱에 대해서 말한다면, 1530년 증종 25년에 鄭行敏 '신증 동국여지승람' 광주목 樓亭조에 李文炳(?~1466)이 韓明淵가 지은 琴閣亭에 이르러서 지었다는 詩에 의하면 '華構高臨 漢水濱 城南 隔尺 紅塵'에서 '城南'이 나오며 또한 柳商運(1636~1707)의 묘갈명에 '七月進 城南 蕤第(栗洞).....'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城南의 오늘날 地名에는 寿進洞의 첫 音節語인 '壽'와 福井洞의 中間音節語인 '井'을 합해서 '壽井區'라 名稱였으며, 中洞의 첫 音節語인 '中'과 上大院洞의 끝 音節語인 '院'을 합해서 '中院區'라稱하였다. 단지 龍唐區만이 都市開發의 次元에서 生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들 생각해 볼 때 城南市의 여러 地名에서는 人爲性을 찾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原來의 地名을 語源的으로 考察

2) 城南市誌, 같은 책 p. 1811 광조,

4 城南市 地名研究

할 수 있어야만 그 地名이 갖고 있는 本 意味를 正確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습해질 때 城南市의 地名의 性格이 규명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城南市는 서울 漢江 下流에 인접해 있어서 많은 衰話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 것이다. 城南市는 地理的으로 볼 때 韓半島의 中心部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古代 三國으로 보아서는 高句麗나 百濟 그리고 新羅로 보아서는 매우 重要한 영토이기도 하였다. 또한 地政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어찌면 한 나라의 서울인 도읍지로서도 아무 손색이 없을만큼 여러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당시에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옛 城南地域이 韩半島의 가장 이해관계가 짐작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高句麗 역시 漢江 以南의 地域을 뺏는 것이 新羅와 百濟를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 또한 百濟 역시도 漢江의 中心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百濟를 지키면서 復興하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三國統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일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城南의 周邊地域은 늘 이처럼 힘의 완충지역이었거나 힘의 절충지대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地域을 차지하거나 지배하는 部族이 三國의 統一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言語學上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高句麗語, 百濟語, 新羅語가 이 地域에서는 어느 意味에서는 서로 相互間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받았었음을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地理的 性格내지 特性등이 많은 現象들이 露出될 수 있음을 城南地域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2-2. 地名語彙 考

● “高登洞의 도랑터”³⁾

- (a) 고등동은 고산동과 동자리로 크게 나뉘지는데 고산동은 안말, 웃말, 깁 아래, 주막거리로 불리우며 동자리(登子里)는 인농산 밑인데 석등(石燈)이 세워진 마을에서 온 듯하다고 하였다.
- (b) 高登洞의 山河와 地名을 대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山河 : 陵山, 도당재산, 탑산, 도당고개, 도선이고개, 계토골, 세자골고개, 뒤골, 연내(川), 대풀우물, 파란골, 주마터골, 등이며
 일반지명 : 하고방계, 보끼마당, 절터, 우물터, 불화쪽, 범바위, 도랑터 등이다.
- (c) ‘도랑터’의 語彙

(ㄱ) ‘도랑터’에 대한 문제 제기

(1) ‘도랑터’의 잘못 전승된 경우

첫째 이유 : 高登洞은 고산동과 동자리로 나뉘지며 또한 고산동에는 과거에 산제당이 있어서 사람들은 ‘도당고개’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

둘째 이유 : ‘도당고개’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도당차’나 ‘도당자리’나 ‘도당마당’이나 ‘도당굿 터’ 등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랑터’는 ‘도당터’의 잘못 왜전된 地名語彙임을 알 것이다.

(2) ‘도랑터’라고 생각되는 이유

첫째 이유 : ‘도랑터’가 ‘도당터’의 誤記인 경우도 물론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도랑터’가 잘못 왜전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터’가 될 수 있는 조

3) 城南市誌, 같은 책 p. 1812 참조.

건⁴⁾을 본다면,

(i) 건축, 토목 공사를 할 자리, 또는 하였던 자리

(ii) 일이 이루어진 밀자리

또한 '도량'의 사전적 의미는⁵⁾,

(i) 매우 좁고 작은 개울

(ii) 도량창으로서 '돌창'이 준 말

(iii) '도량창'은 불결한 도량임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ㄱ) '도량터'라는 의미는 '매우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개울물이

흐르기 때문에 生命木와 깊은 關聯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自然스럽게 산계당이 있을 可能性이 있으며,' 따라서

ㄴ) '도량터'의 기능은, '山祭堂'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ㄷ) '도량터'의 誤記說은 잘 못 일을 알 것이다. 따라서 '도당터'의 기능을 '도량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량터'임을 알 것이다.

둘째 이유 : (i) '도량터'에서 '도량-'은 '골(kol. 谷)'의 方言이다.⁶⁾

ex) ?toran(함평지역)

tumbang(수천, 광양지역)

(ii) 또한 '-터'는 Altai 諸語와의 關聯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⁷⁾

ex) tʰa(터, 臺) - 만주 tesu, 풍구스 tege, 몽고 ta, te

이상의 (i)(ii)의 경우에서 볼 때, '도량터'라는 말은 '도당터'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포괄적으로는 '山祭堂'과 '生命 터전' '神聖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당터'라기 보다는 차라리 '도당터'라고 생각이 된다.

4) 이희승, 국어사전, 민중서관 p.1317 참조.

5) 이희승, 전계서, p. 341 참조.

6) 雜誌社,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1977, 서울.

7) 金亨奎, 國語史概要, 一函閣, 1974, p. 19 참조.

(1) “도량터”의 語學的 分析

(1) ‘도량터’의 意味

a) ‘도량－’의 의미

(i) 國語辭典의 의미 : 매우 작고 좁은 개울

(ii) 도량창 : 불결한 도량

(iii) “도량”의 方言的 意味⁸⁾ ;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깊게 판 작은 개울(水渠) a ditch.

돌량(梁, 水橋也) 〈訓蒙 上: 5〉

돌거(渠) 〈類合上 18〉

도라(tora) 〈방언 (경남) 울주,

도라:[tora:] 〈방언(경북) 경주,

도라아(toraa) 〈방언(경남) 울주,

도량[torag] 〈방언

(경북) 영국, 예천, 안동, 불화, 을진, 영양, 청송, 경주

성주, 포항, 대구, 고령, 김천

(경남) 울산, 사천, 하동, 남해, 거창, 합천, 함안, 양산

창녕, 의령

(강원) 삼척, 호산, 평창, 홍천, 춘성, 양양, 강릉

(전북) 전안

(전남) 광주

(충남) 천안

(경기) 연천

(황해) 금천, 해주, 응진, 대판, 장연

(함남) 신고산, 안면, 덕원, 문천, 고원, 명홍, 청평, 함흥

오로, 신홍, 홍원, 북청, 이원, 풍산, 갑산, 혜산

8) 雜鶴齋, 金溪서 pp. 73~74 참조.

도:랑[to:raŋ] 방언(경남) 밀양, (경북) 예천
 도라애[toraŋe] 방언(경북) 경주
 도라이[toraŋi] 방언(제주) 제주
 도랑차이[toraŋ-tʃ'aŋi] 방언(평북) 박천, 구성, (평남) 평양
 도랑창[toraŋ-tʃ'aŋ] 방언(황해) 해주, 수안
 도랑재기[toraŋ-tʃ'egi] 방언(평북) 영변
 도오랑[toraŋ] 방언(전북) 무주
 톨창[tol-tʃ'an] 방언(전북) 김제
 또랑[?toraŋ] 방언
 (경북) 포항, 영천, 문경
 (경남) 양산, 부산, 김해, 마산,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충무, 거제, 하동, 남해, 진양, 창원, 울주
 (강원) 삼척, 도계, 영월, 정선, 원성, 횡성, 흥천
 (충북) 청주, 연풍, 피산, 보은, 단양, 영동, 옥천, 을성
 충주, 제천
 (충남) 천안, 조치원, 예산, 부여, 논산, 서천, 청양, 안면
 서산, 당진, 대전
 (전북) 무주, 전주, 이리, 군산, 부여, 오창, 정읍, 순창
 남원, 진안, 장계
 (전남) 담양, 나주, 광주, 영광, 함평, 목포, 해남, 진도
 완도, 장흥, 강진, 화순,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광성, 구례, 영암, 진상, 장성
 또:랑[?to:raŋ] 방언(경북) 상주, 김천
 또랑창[?toraŋ-tʃ'aŋ] 방언(전남) 장성, 영암, 강진
 톤[?tol] 방언(전북) 부안, 고창
 톤구랑[?tol-guraŋ] 방언(충남) 흥성

풀강[²tol-K'ap] 防江 (충남) 대천, 청양

(n) ⁹⁾ 'ke-ul(개울, 小川), toraŋ(도랑, 小川)의⁹⁾ 方言的 差異 意味': (/keul/과 /toraŋ/은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 구별을 모르든가 또는 혼용하고 있다. 한 지방에 두 날말이 쓰일 때는 /ke-ul/ 형태 방언이 더 큰 것을 뜻한다.)

ke- : (경기) 화성

(강원) 강릉, 명주

ke-ul : (경기) 전부(-강화)

(강원) 속초, 양양, 삼척, 춘천, 춘성, 인제, 횡성, 홍천

(충북) 진천, 음성, 충주, 충원, 계천, 담양, 피산, 청주

창원, 옥천, 영동

(충남) 서산, 연기, 공주, 청양, 홍성, 보령, 대전, 대덕

금산

(전북) 익산, 무주, 이리, 장수, 임실, 정읍, 순창

(전남) 영광, 목포, 해남

(경북) 울진

(황해) 김천, 해주, 용진

(함남) 신고산

ke-ul : (충남) 천원, 당진

kegul : (경기) 강화

(강원) 평창, 영월

(황해) 장연, 안악, 신계, 곡산

kegol : (전북) 완주, 부안

(경북) 울진

keŋgul : (충남) 아산, 예산, 부여

9) 金亨奎, 國語方言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1974, pp. 21~22 참조.

- (황해) 해주, 용진, 안악, 서흥
 kegultjang : (경기) 김포
 (진북) 전주, 전안
 (전남) 강진
 (황해) 해주
 (평남) 평양
 (평북) 박천, 영변, 회천, 귀성, 강계, 순창
 kegultjan : (경기) 개성,
 kegutjang : (평북) 자성
 kequl : (황해) 장연, 은곡
 keguran : (강원) 정선
 kegoltjang : (전북) 부안
 (전남) 장성
 (경북) 선산
 ke-urang : (전남) 보성
 ken : (함남) 신고산, 안변, 덕원, 고원
 ke-en : (함남) 문천, 영흥, 청평, 함흥, 오노, 신흥, 흥원
 복청, 이원, 풍산, 갑산, 해산
 kengol : (황해) 재령
 kengul : (황해) 연안
 k'eu-ul : (황해) 영광
 k'egol : (전남) 영광, 함평
 k'e-ultjang : (전북) 남원
 k'egoltjang : (전남) 구례, 광주, 나주
 k'egoltjang :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순천, 나주
 k'e-ultjang : (전남) 보성, 고흥

k'egorap :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광주, 합평, 여수

ko:l : (경북) 청도, 고령

korap : (경북) 보령, 금릉, 청도, 고령
(경남) 사천, 고성, 불영, 충무

sogorap : (경북) 영양

k'oraŋ :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남) 진주, 진양, 하동, 고성
(제주) 전부(전지역)

k'oltʃ'apji : (전북) 군산, 옥구

k'oratʃ'ap : (전남) 광양, 고흥

k'oratʃ'ap : (전남) 광양, 고흥

k'oratʃ'əŋgi : (제주) 전부(전지역)

torap : (경기) 연천

(강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명주, 횡성, 원주, 원성
(충북) 제천, 단양

(충남) 서산

(경북) 영주, 청송, 예천, 영천, 군위, 선산, 금릉, 경주
월성

(경남) 합천, 밀양, 진양

(황해) 김천, 해주, 용진, 장연, 은곡, 안악, 재령, 서홍
신계, 수안, 극산

(함남) 신고산, 안면,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오노, 신흥, 흥원, 북청, 이원, 풍산, 갑산
해산

tolk'ap : (경북) 칠곡, 고령

(경남) 밀양

toltʃ'ap : (경기) 가평

toragtʃ'ap : (황해) 수안, 황주

toragtʃ'apj : (평남) 평양

(평북) 박천, 귀성

toragtʃ'egi : (평북) 영변

t'o:l : (충남) 당진

(전북) 김제, 고창

t'orap : (경기) 양평, 평택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익천, 영동

(충남) 천원, 아산, 서산, 연기, 공주, 청양, 보령, 부여

논산, 대전, 대덕, 금산

(전북) 익산, 무주, 김제, 장수, 임실, 부안, 정읍

(전남) 대다수 지방

(경남) 거창, 함안, 진주, 함양, 마산

t'olgap : (충남) 예산, 연기, 홍성

(v) 이 상의 (i), (ii), (iii), (iv)에서 우리는 “도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① 매우 좁고 불결하게 물이 고인 좁은 개울, 이거나

② 물이 흐를 수 있도록(물이나, 비가 오면 막히지 않게) 흐를 수 있도록 좁고 길게 파놓은 작은 小川이며 이 곳에서 山祭를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또한

③ ‘도량’은 ‘개울’과 同義語이며 그 意味는 ‘小川’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전국적으로 여러 形態가 分布되어 있을도 알았다.

④ ‘도량’은 과거 건축물이 들어 않았다가 할리게 되므로 자연히

을 풀파인 '또랑'이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꾀일 수 있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 '-터'의 의미

(i) tʰə(터, 臺)¹⁰⁾ – 만주 tesu, 풍구스 tege, 몽고 ta, te.

(ii) 차격 : 퀘르크 語 ~da ~ta¹¹⁾

(iii) 차격 : 몽골語 – a~da~dur(i)¹²⁾

(iv) 이상의 (i) (ii) 面에서 우리는 '-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겠다.

⑦ '터'는 만주어 tesu, 풍구스어 tege, 몽고어 ta, te 등과 같이 Altai 諸語와 比較 言語學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같은同一系 言語이었음을 알 것이다.

⑧ '터'의 의미는 '臺'로서 '장소'를 뜻함이며, 後代에 들어와서는 '處所格 助詞'로서 한국어의 경우에서는 '~에'로 쓰이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에서는 '~아'로도 쓰이고 있다.

(例) 칠수는 학교에 간다(장소를 뜻함)

칠수는 자(市場)아 갔다(장소를 뜻함)

以上 a), b)를 통해서 '도량터'의 의미는

⑨ 과거에 堂祭를 지낼 수 있도록 건축물이 있었다가 근래에 와서는 그 건물이 헐리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읍풀 파인 '또랑'이 생기게 된 장소를 말함이며

⑩ 이 '또랑'은 '生命水'와 같은 意味를 지닌 '聖木'임을 알 것이다.

10) 金亨奎, 전개서 p.19 참조.

11) 金芳漢, 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1983. p.89 참조.

12) 金芳漢, 전개서 p.89 참조.

(2) '도랑터'의 言語的 性格

- a) '도랑터'의 '도랑-'의 Altai語의 性格(이때 '도랑'의 英語를, a brook, a little stream, a rivulet, ditch로 번역하였을 때의 '도랑'임)
- ① chay : stream(Turkey 이)¹³⁾
 - ② Urmaq : stream(Turkey 이)¹⁴⁾
 - ③ dere : brook(Turkey 이)¹⁵⁾
 - ④ hendek : ditch(Turkey 이)¹⁶⁾
 - ⑤ cfsa : 池(lake, pond)¹⁷⁾
 - ⑥ 'Oma(口), omo(文) : 池(lake, Pond)¹⁸⁾
 - ⑦ Seri(口), Seri(文) : 泉(spring)¹⁹⁾
 - ⑧ 'e'in(口), eyen(文) : (stream)²⁰⁾
 - ⑨ урслаг : Stream²¹⁾
 - ⑩ руз : ditch²²⁾
 - ⑪ noPxu : brook²³⁾
 - ⑫ huicin : 并²⁴⁾
 - ⑬ golo : 河谷²⁵⁾

13) A condensed dictionary, English-Turk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24, p. 558.

14) A condensed dictionary, 전개서 p. 558, 1924.

15) A condensed dictionary, 전개서 1924, p. 57.

16) A condensed dictionary, 전개서 1924, p. 143.

17) A condensed dictionary of spoken Manchu, by Kengo Yamamoto, Tokyo, 1969, p. 102.

18) A classified dictionary of spoken Manchu 전개서 p. 102.

19) A classified dictionary of spoken Manchu 전개서 p. 102.

20) A classified dictionary of spoken Manchu 전개서 p. 103.

21) A concise English-Mongolian Dictionary, Indiana University, 1970, p. 236.

22) A concise English-Mongolian Dictionary, 전개서 p. 66.

23) A concise English-Mongolian Dictionary, 전개서 p. 32.

24) 满語語法, 李永海 외 2人, 民族出版社 1984, 北京, p. 489.

25) 满語語法, 李永海 외 2人, 전개서 p. 483.

⑩ gole : river²⁶⁾

⑪ huare : river²⁷⁾

- b) 以上 ①~⑩의 語彙 중에서 '도랑'과 關聯이 있는 어휘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① Turkey어의 'dere'와 'toraŋ'에서 볼 때 'dere'와 'toraŋ'의 'tor' (類合 上 18)과는 語形態가 같음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dere'는 'der+e'이며 'tor'은 'tor'이다. 따라서 'der'와 'tor'는 그 祖語의 再構形을 볼 때 '(d-t)Vr'形이며 아마도 그 前代語形態는 '(d-t)Vt'形이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d/와 /t/는 Saussure의 開口度에 의해서 볼 때도 같은 0度이며, Jespersen에 의한 可聽度의 면에서 볼 때는 /t/는 1度인데 비해서 /d/는 2度이며 /t:/;/d/는 閉區度는 同度이나 可聽度면에서만 겨우 1度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祖語形態를 '(d-t)V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類合 上 18'의 形態인 '들(tor)'은 그 語形態가 거의 祖語形態인 'tVr'을 거의 닮은 同形態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tor'은 'toraŋ'의 最古語形態일 수도 있을 것이다. 'tɔ:l'의 形態인 당진, 김제, 고창, 方言도 古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의 'tol'의 形態 역시도 古形이며, 경남 울주의 'tora' 경북 경주의 'tora:'의 形態도 'tor'의 開音節化로 본다면 Turkey語의 'drer'도 'dVr'의 開音節化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urkey語의 'dere'는 울주의 'tora'와 경주의 'tora:'와 비교가 가능하며 同根語異形態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古代 한반도에 이미 Altai語의 Turkey語가 침투하였던지 아니면 同一系 語族이기 때문에 可能하였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26) Dagur Mongolian Grammar, Texts and Lexicon, Samoel E. Marin 1961, p. 307.

27) Dagur Mongolian Grammar, Texts and Lexicon, 한재석 p. 307.

남기기로 한다. 따라서 城南地域에 이미 Altai語의 인 要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Manchu어의 'cfsa'인 '池(lake, pond)'와 'toruŋ'인 '渠'와의 관계는 比較 言語學의 측면에서도 '意味'와 관련이 깊은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특히 濟州島 지방의 지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낼 수 있었다.²⁸⁾

구령系 해당되는 지명은 제주도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의미로는 '우물' '웅덩이' '谷'…… 등이며 異形體로서는 '-구릉'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구릉>-구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이유는 '->나'가 된 '후설 모음화 현상'의 예라고 하는데 그런例는

물>풀(水)

불다>茀다(赤)

풀>불(火)

풀>풀(草)

와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구령系'가 '우물' '웅덩이' '谷'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는 다음의例에서 그러한 요소를 알아 낼 수 있으리라.

例 : kol(lake) : Turkey 어

gol(stream) : Mongo 어

ko(lake) : 日本語

XyOaji(well) : Mongo 어

'h'otdok(well) : Mongo 어

'ido'(well) : 日本語

'hollo(well) : Manchu 어

28) 朴相圭, 우랄·할타이 關係 言語民族學論叢 民昌文化社 1983, pp. 573~578.

이상의 예는 모두가 'lake' 'well'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렁'과의 의미는 '우물' '웅덩이' '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렁'과 '도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음운대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例 : 'daichilah'u'(alter) 鄉고어

'kawaru'(alter) 일본어

'tege'(carriage) 鄉고어

'kuruma'(carriage) 일본어

'dəbəl'(clothing) 鄉고어

'kimono'(clothing) 일본어

여기에서 K:t가 音韻對應 관례임을 알 것이며, 따라서 '-구렁'과 '도량'은 同意味임을 알 것이다. 단지 '-구렁'은 實辭의 虛辭化 영향에서 벗어 나지 못한 점일 뿐이다.

또한 '-구렁'을 '우물'로 보았던 점은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데 다음 예에서 보자

例 : 'Cfsea'(pond, lake) 滿洲語 口語

'Seri'(泉) 滿洲語 文獻語

'Sthfza'(河院) 滿洲語 口語

이상의 예에서 '-구렁' '도량' '우물(샘)'과의 관계를 意味論의 同次元에서 생각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말하자면, Manchu어 池 (lake, Pond)인 'cfsea'의 의미나, 城南地域의 地名語인 'torap'인 '渠'는 같은 '들(tor)'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古代에 있어서 이 地域이 百濟이었기 때문에 可能하리라 믿어지며, 아마도 이 時代였을 때는 적어도 Altai諸語들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西歐語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當時에 使用되었음을 부인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

③ Manchu어의 '井'의 뜻을 가진 'hücin'과 '河谷'인 'golo'와 Dagur Mongo어 중에서 'river'의 뜻을 가진 'gole'와 'huare'는 'torap'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意味的인 면》—

'도량(torap)'은 '개울'과 同義語이기 때문에 개울은 '小川'을 담고 있어서 小川은 자연히 '구령포 諺彙'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orap'은 구령포 諺彙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方言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torap'과 의미가 같은 諺彙들을 열거하기로 하겠다.

- 1) t'orap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충남) 등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
- 2) t'o:l : (충남, 전북) 극히 일부 지역에서 사용
- 3) torapt'hagl (평북) 영변지방 사용
- 4) t'olgaq : (충남) 예산, 연기, 홍성지방
- 5) torapt'hagi : (평남, 평북) 극히 일부지역 사용
- 6) torapt'hag : (황해) 수안, 황주지방
- 7) toljt'hag : (경기) 가평지역
- 8) tolk'hag : (경북, 경남) 극히 일부지역 사용
- 9) torap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황해, 함남) 등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
- 10) k'orapt'hagl (제주) 전 지역에서 사용
- 11) k'orapt'hag : (전남) 광양, 고흥 지역 사용
- 12) k'oltjhagi : (전북) 군산, 옥구 지역 사용
- 13) k'orap :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서 사용
- 14) sogorap : (경북) 영양지방에서 사용
- 15) korap : (경북, 경남) 지역에서 대체로 사용

- 16) ko:l : (경북) 청도, 고령 지역
- 17) k'egoraj : (전남) 지역에서 대체로 사용
- 18) k'e-ul-tʃʰap : (전남) 보성, 고흥 지역
- 19) k'egultʃʰag : (전남) 지역에서 대체로 사용
- 20) k'egoltʃʰap : (전남) 일부 지역에서 사용
- 21) k'e-ul-tʃʰap : (전북) 남원지방
- 22) k'egol : (전남) 영광, 함평지방
- 23) k'e-ul : (전남) 영광지방
- 24) kengul : (황해) 연안지방
- 25) keŋgol : (황해) 재령지방
- 26) ke-en : (함남) 전 지역에서 사용
- 27) keŋn : (함남) 일부 지역에서 사용
- 28) ke-uraj : (전남) 보성지역에서 사용
- 29) kegoltʃʰap : (전북, 전남, 경북) 극히 일부 지역에서 사용
- 30) keguraj : (강원) 정선 지역에서 사용
- 31) keŋul : (황해) 장연, 은과에서 사용
- 32) kegutʃʰap : (평북) 자성지방
- 33) kegultʃʰag : (경기) 개성지방
- 34) kegultʃʰap : (경기, 전북, 전남, 황해, 평남, 평북) 일부 지역
- 35) keŋgul : (충남, 황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
- 36) kegol :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 사용
- 37) kegul : (경기, 강원, 황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
- 38) ke-ul : (충남) 천원, 당진 지역
- 39) ke-ul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황해, 함남) 일부 지역에서 사용
- 40) ke : (경기, 경원) 일부 지역에서 사용

이상의 1)에서 40까지의 語彙들은 'torag'과 'hucin' 그리고 'golo' 'gole' 'huare'와 상호간에 意味論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同意味인데 그 뜻은 이들의 어휘를 전체 포함한다면 '개울' '小川' '井' '도량' '우물(샘)' '一구령' '谷' '泉' '河原' '냇가' '水渠' '池' '河谷' 등으로 그 章味를 유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形態的인 면》—

'torag'의 祖語再構形은 tVt 語系에서 變化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tVr語形態일 것이다. 따라서 'tv'의 한 형태로 나타난 어휘가 바로 'tor' (類合 上 18)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tor'는 Turkdy語의 'dere'와 比較를 ①에서 하였었다. 또한 'torag'과 'hucin' 'golo' 'gole' 'huare'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형태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祖語形態인 'tor'를 原型으로 보기로 하겠다.

첫째 : 'torag'과 'golo'와 'gole'와의 관계를 比較言語學의 측면에서 본다면,

- 1) 'torag'은 'tor'의 同根語 同形態에서 '-ag'의 접미어가 첨가된 語形態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torag'은 'tor+ag'으로 區分할 수 있겠다. 그러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t[e:]'은 (충남, 당진) (전북, 김제, 고창)에서 현재도 쓰이고 있고, 또한 '풀 [?tol]' 역시도 (전북, 무안, 고창)에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도라아[tora:]'는 (경남, 울주)에서 '도라:(tora:)'는 (경북, 경주)에서, '도라[tora]'는 (경남, 울주)에서 현재 쓰이고 있으며 또한 語彙字會에서도 '들랑(渠, 水渠也)' (訓蒙 上:5)이라고 하였으며 '들 거(渠)' (類合 上 18)라고 한 점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tor'는 'stem'이며 '-ag'은 'ending'이라고

할 수 있음을 것 같다.

2) 'tor'와 'golo' 그리고 'gole'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i) 'tor'의 組語再構形은 'tv̚r'形이며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golo'는 'goł+o'이며 또한 'gole'역시도 'goł+e'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o'와 '-e'는 접미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러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ke-ul'은 (충남, 천원, 당진)에서 'kegul'이나 'kegol'은 경기, 강원, 황해, 전북, 경북에서 쓰이고 있으며, 'ke-ul'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황해, 함남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ke'는 경기, 강원의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k'egol'은 전남의 일부에서 'k'e-ul'은 전남 영광에서, 그리고 'ken'은 함남에서 쓰이고 있으며, 'ke-en'역시도 같은 함남에서 사용되고 있다. 'kegul'은 황해도 장연과 은곡에서 'k'oltj'agl'은 전북 군산 등지에서 'sogorap'은 경북 영양에서 'k'orap'은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korap'은 경북과 경남 등의 거의 전지역에서 쓰이고 있고, 'ko:l'은 경북 청도와 고령에서 'k'egoltj'an'은 전남지방의 일부에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方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e-ul' 'kegul' 'kegol' 'ke' 'k'egol' 'ken' 'ke-en' 'kegul' 'k'oltj'agl' 'sogorap' 'k'orap' 'korap' 'ko:l' 'k'egoltj'an' 등 여러 方言 形態들의 組語再構形은 'kv̚r~l'形인 'kor' 또는 'kol'일 것이다. 단자 語尾 '-r'과 '-l'은 '-r'이 開口度가 3度이며 역시 '-l'도 saussure의 分類에 의한 閉口度가 3度이다. 단자 差異가 있다면 Jespersen의 分類에 의한 可聽度만이 '-l'은 4度인데 비해서 '-r'은 5度이나 큰 辨別力은 없는 듯 하다. 그것은

同一한 流者(liquid)이기 때문에 셈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ke-ul' 'kegul' 'kegal' 'ke' 'k'egol' 'ken' 'ke-en' 'kegul' 'k'ol:tʃagj' 'sogoraj' 'ke'rap' 'korap' 'ko:l' 'k'egoltʃagj'의 stem은 'kor'이거나 'kol'이다. 여기에다 접미어 '-ul' '-gul' '-gal' 'φ' '-gol' '-en' '-ŋul' 'φ' '-goltʃagj' '-tʃagj' 'so-' '-agj' '-ag' '-ŋag' 등이 참가되어서 여러 方言形態들이 오늘날 쓰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stem은 '{kor/kol}'이며 나머지 形態들은 ending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stem인 '{kor/kol}'은 Manchu어의 '河谷'의 뜻인 'golo'와 Dagur Mongo이 중에서 'river'의 뜻인 'gole'와 東根語異形態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iii) Manchu어의 'golo'와 Dagur Mongo 어 'gole'의 共通祖語는 'gvi' 語系인 'gol'이며 이 'gol'과 '{kor/kol}'은 語頭子音에서 相互間에 對應關係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kor~l' 'gol'은 대용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比較言語學的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比較가 可能하다. 따라서 이들은 同根語異形態임을 결론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 'terag'과 Manchu어의 '井'의 뜻을 가진 'hūcin'과 Dagur Mongo 어 중에서 'river'의 뜻을 가진 'huare' 역시도 比較가 可能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hūcin'은 'hūctin'이며 'huare' 역시도 'huar+e'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는 'hūcin'의 경우에서 우선 볼 때 'hūcin'의 祖語再構形은 'hvt'語系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hvt'가 變化한 形態가 '{hvt/hvc}'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形態가 'huc'이며 여기에 접미어 '-in'이 참가 된 듯하다.

이러한 예를 'kol(谷)'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kol'의 語頭子

音인 'k'와 'hvt'語系의 語頭子音인 'h'와는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kol' 'hūcin' 역시 共通祖語 측면에서 보았을 때 同根語 異形態임을 알 것이다.

'huare'의 경우에서도 보면, 'huare'의 祖語再構形은 'hvt'語系가 아닌가 하며 이 'hvt'가 發展한 形態가 'hvr'形이며 이 'huare'는 이 'hvr'形인 'huar'이며 'huare'는 '-e'는 철가된 철가 이미이며 語中母音 '-a-'는 語中 첫째 母音인 '-u-'와 語末子音인 '-t-'사이에 끼게 되어진 삽입자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ua-'는 이 語彙의 形態上으로 보나 音聲學의 現象으로 보나 '-ua-'를 각各 獨立된 音素로 보는 것 보다는 오늘날 '-ū-' 대지 '-ā-' 등과 같이 單一音素로서 長母音化로 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huare'의 祖語再構形은 'hvt'語系에서 發達한 'hvr'이며 이 'huare'와 'kol'은 同根語異形態임을 알 것이다.

- 2) Manchu어의 井의 뜻인 'hūcin'과 河谷의 뜻인 'golo', dagur Mongo어의 river의 뜻인 'gole'와 'huare'는 形態論의 측면에서 同根語異形態이며 toraq과 kol과의 관계에서도 kol과는 同根語異形態이며, toraq과 tor과의 관계는 比較意味의 측면에서 比較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3. 結論

筆者는 '城南市 地名研究'을 寿井區의 高登洞 '도랑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筆者는 '城南文化研究(創刊號, 1994)'에서도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을 통해서 이 地域의 言語 가운데서 百濟語와 高句麗語의 要素에 대한 研究를 試圖한 바 있었다.

이번 研究 主題로 잡았던 寿井區의 高登洞 '도랑터'를 중심으로 研究한 結果를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A) '도랑터'의 지명에 관한 것

(ㄱ) 高登洞의 '도랑터' 지명은 '도당터' 지명을 포함적으로 하 않은 地名이다.

(ㄴ) 이 地域은 '철터' '우풀터' '珉 바위' '주마터골' '도당고개' '도당제산' '탑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神殿을 모셨던 장소' 같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山祭堂터'가 있을 地域이므로 '도랑터'가 複合的인 意味에서 탓을 것으로 추정된다.

(B) '도랑터'의 意味論의인 意味

(ㄱ) 과거에 堂祭를 지낼 수 있도록 건축물이 있었다가 근래 와서 그 건물이 헐리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용쪽과인 '도랑'이 생기게 된 장소

(ㄴ) 이 '도랑'은 '生命水' '聖水'의 源泉이라 意味로서 오늘날 '도랑'이라고 한 듯하다.

(C) '도랑터'의 形態論의인 特徵

(ㄱ) '도랑-'에 관하여

ⓐ '도랑-'은 다음과 같은 語彙와 比較言語學의 측면에서 比較가 된다

고 하겠다.

- ① dere : brook(Turkdy 語)
- ② cfao : lake, pond(Manchu 語)
- ③ hūcin : 井(Manchu 語)
- ④ golo : 河各(Manchu 語)
- ⑤ gole : river(Dagur Mongo 語)
- ⑥ huare : river(Dagur Mongo 語)
- ⑦ toraq(도량) dml stem인 'tor'과 'dere' 'hūcin' 'golo' 'gole' 'huare'는 比較言語學의인 측면에서 보면 同根語異形態이며, 'kol'과도 同根語裡形態이다.
만하자면 'kol'과 'hūcin' 'golo' 'gole' 'huare'는 同根語異形態이며 'tor'과 'kol' 역시 音韻對應이 語頭子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共通祖語再構形은 'kvi' 'hvt' 'tvt' 語系임을 알 수 있었다.
- ⑧ 그리고 方言에서도 여러 形態들이 現재에도 쓰이고 있고 증가된 점미 어들이 複合되어서 여러 類型을 만들었다고 하겠다.

(ㄴ) '-터'에 관하여

- ⓐ t'a(터, 臺)는 만주어 tesu, 풍구스어 tege, 몽고어 te, ta와 比較된다.
- ⓑ t'a는 뒤르크語 da, ta 와도 比較된다.
- ⓒ t'a는 몽골어 -a, ~da, ~dur(i)와도 比較되며
- ⓓ 原來는 實辭 '場所' '臺'의 뜻이었지만 오늘날은 虛辭인 '助詞'로서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筆者는 이상과 같이 '高登洞 도량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城南市 地名에는

- (1) Turkey 語的인 要素
- (2) Manchu 語의인 要素
- (3) Dagur Mongo 語의인 要素

26 城南市 地名研究

等이 적당히 접목되어진 채 오늘날 남아 전해 오는 현상을 地名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작업이 모여서 城南市 地名研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앞으로 先學, 同學, 後學와 비판을 기다린다.

百濟의 初期 疆域에 관한 研究

白 南 郁

(大宿專門大學教授)

[目 次]

- | | |
|---------------|---------------|
| 1. 序 論 | 4. 馬韓大·小國의 領域 |
| 2. 馬韓大·小國의 分類 | 5. 結 論 |
| 3. 馬韓大·小國의 國名 | |

1. 序 論

城南市는 광주산맥의 지맥으로 비교적 가파른 산세를 이루고 있는 남한 산성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市의 중앙은 단천이 북류하여 그 주위에 하천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청계산이 남북으로 편히 있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도시다. 특히 단천의 주변은 광활한 평야로 한강 하류지역과 연해져 있어 城南은 한강유역의 문화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城南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면유하여 성남이 위치한 지역은 역사상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된 적이 없었다. 城南 지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인 岩寺洞과 강변으로 이어지는 수진동에서 민무늬 토기, 삼평동에서 벗살무늬토기 그물주 민무늬토기, 금토동에서 민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어,¹⁾ 선사시대부터 한강의 하류지역과 동일한 선사문화권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高麗史』 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를 비롯한 기타의 여러 書誌에 幷州의 별칭을 淮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 지역의 경안을 淮安國이라고 위치를 비정하고, 이를 古朝鮮의 準王의 南來 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²⁾ 있다.

이는 성남 일대를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에 古朝鮮 시대부터 북방의 정세 변화에 기인하여 끊임없는 流移民의 来往가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강하류 일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 夫餘系의 一枝族인 溫祚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南下하여 전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형성의 터전으로 활용하였다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城南市와 한강 하류 일대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初期百濟의 疆域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百濟史의 연구, 특히 疆域에 관한 연구는 조선 후기

1) 韓國精神文化研究員, 「民族文化大百科辭典」 12, pp. 410~411.

2) 李丙應, 1961 『韓國史』 (古代篇) pp. 270~271.

에 이르러 丁若鑑이 종래에 懿禮城의 위치를 檳山으로 보는 기준의 인식에³⁾ 대하여 漢陽東北, 즉 三角山 東麓(동소문, 미아리 일대)로 비정한⁴⁾ 아래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⁵⁾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례성은 初期百濟의 정치 경제 문화중심지로써 도성을 포함한 한정된 지역범위를⁶⁾ 넘지 않았을 것이어서, 지배력이 행사되는 지역범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初期百濟의 영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러 국 가형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제고된⁷⁾ 아래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見見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료의 해석상의 문제인 바 『三國史記』의 早期記錄에 대한 신빙성 여부와 이와 관계되는 『三國志』 東夷傳의 내용과 대치되는 문제가⁸⁾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 3) 『三國遺事』 卷第 1, 遺祚王條 「毅禮疆域 一云 蛇川(山?) 今檳山」, 같은 책, 卷第 2, 南扶餘條 「毅禮 今檳山」, 『東國輿地勝覽』 卷 16, 檳山縣條.
- 4) 丁若鑑, 『段邦疆域考』 『與猶堂全書』 卷 3.
- 5) 河南毅禮城에 대한 諸家の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丙熙, 1981 「毅禮考」 『韓國古代史研究』, '春宮里一帶'.
金廷翰, 1981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郷土서술』 39, '鳳鳴里土城'.
尹武炳, 1974 「漢江下流에 있어 百濟文化研究」 『第2回 百濟研究 國際學術大會』, '春宮里一帶'.
李奎白, 1975 「百濟文化 學術會議錄」 『百濟文化』 7-8, '夢村土城'.
千寬宇, 1976 「三韓外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廣州古邑'.
成國輝, 1984 「漢江下流 百濟初期 城址研究」 『百濟研究』 14, '中浪川一帶'.
車善杰, 1981 「毅禮城과 漢城의 대하의(1)」, 『郷土서술』 39, '中浪川一帶'.
金龍國, 1983 「河南毅禮城考」 『郷土서술』 41, '三角山東麓'.
崔夢龍, 1985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外 領域」 『莫禮學報』 60, '夢村土城'.
- 6) 崔夢龍은 懿禮城의 범위를 夢村土城을 중심으로 반경 5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1985, 앞의 논문).
- 7) 新東亞심포지엄, 1971 「國家의 形成과 都市國家」 『新東亞』 5卷 1.
- 8) 金貞培, 1975 「韓國史의 爭點」 『韓國史의 爭點』.
- 9) 李道華, 1990 「百濟의 國家形成에 관한 再檢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pp. 105-152.

4 百濟의 初期 領域에 관한 研究

즉,『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 初期百濟의 영역은 溫祚 13년(BC. 6년)에
北은 河(禮成江) 南은 齊川(安城川) 西는 大海(黃海) 東은 走壤(春川)이라
고⁹⁾하여 경기도 일원에 이르나,『三國志』韓傳의 馬韓條에 百濟의 모체가
되는 伯濟國(AD. 3C경)은 馬韓 50餘國의 一個國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相互不能制御' 상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충돌 수 없는
시기상의 간격을 두고 있는 두 史書의 百濟 영역에 관계되는 상이한 서술
내용을 연구자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함에¹⁰⁾ 따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馬韓의 大·小國이 미구분된 『三國志』韓傳의 사료상의 한
계성에 연유하여 三韓諸國들을 일괄적으로 小國으로 파악하여 大·小國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에는 이로지 못했던 점이다. 한면 고고학적으로 百濟
초기의 표식 유물인 적석총의 분포를 바탕으로 『三國史記』의 百濟初期 영
역기사와 관련지은 견해가¹¹⁾ 있으나 보다 뚜렷한 물증의 뒷받침이 기대되
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는 곧 初期百濟의 영역을 규명하는데 있어 기본
사료인 『三國史記』와 『三國志』韓傳의 관계 기사중 馬韓 大·小國에 관계되
는 내용을 상호보완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임을 의미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三韓, 즉 馬韓의 大·小國이 미구분된 『三國志』
韓傳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馬韓諸國들을 大·小國으로 구분하여 大·小國
을 이해코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馬韓 大·小國의 개별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그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곧 百濟가 馬韓의 50餘 大·小國
중 一國인 伯濟國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초기의 百
濟의 영역을 서술하고 있는 『三國史記』의 관계기사가 『三國志』의 三韓諸國

9) 李內秀, 1977 「國譜 三國史記」 p. 356.

10) 虞重國, 1988 「百濟의 國家形成」『百濟政治史研究』.

11) 崔夢龍 樂五榮, 1985 「考古學的 資料를 通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叢」『于寬
宇先生追憶紀念 韓國史學論叢』.

崔夢龍, 1985 「高麗時代 百濟의 郡邑地와 領域」『高麗學報』 60.

의 기사 속에 내포 되어 있는 伯濟國의 성장 발전한 내용을 두 史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百濟 初期의 영역 관계 기사에 대한 신방성 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증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馬韓大·小國의 分類

『三國志』韓傳에 國名이 제시된 馬韓 50餘國은 百濟의 국가 형성과 발전의 한 역사적 상황을 구명하는데 있어 起發點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三國志』韓傳에는 馬韓諸國들을 戸數와 규모에 따라 大·小國으로 표현하고 있음 楚 大·小國의 개별적인 國名과 國數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료 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國」에 대한 이해를 일반적으로 小國으로만 파악하고,¹²⁾ 그 성격을 해명하려는 경향이어서 많은 見解이 제시되어 왔다.¹³⁾ 한편으로는 百濟와 신라의 국가 형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종래의 경향을 탈피하여, 『三國史記』의 초기記錄을 재인식하는 바탕 위에 三韓諸國을 각각 伯濟國 斯盧國은 領域國家, 기타 諸國은 城邑國家로 이해함으로써 三韓의 大·小國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접근된다 있다.¹⁴⁾

12) 李丙壽, 1976 「三國의 社會相」『韓國古代史研究』 p.282.

金哲翰, 1973 『한국사』 2(고대) p.102.

李基白 李基東, 1983 『韓國史講座』 1(古代篇) p.93.

李聖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이러한 見解를 따라 馬韓의 50餘國은 小國으로만 이해할 경우, 분한상으로 『三國志』韓傳에 나타나는 萬餘家 규모의 大國과 亂黨과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

13) 李丙壽, 1959 『韓國史』(古代篇) p.290 部族國家.

金容燮, 1956 「農耕史」『韓國文化史新論』 p.369 呂落國家.

金元龍, 1976 「三國時代의 開始에 朝鮮 考察」『東亞文化』 7, p.25 部落國家.

金貞培, 1979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韓國史研究』 26, p.15 君長社會.

14) 千寔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下)『韓國學報』 2 3.

石濟外 新羅安東 領域國家로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여타 三韓諸國들의 성격은 城邑國家라고 한 점 등은, 大·小國을 미구분한 상태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三韓諸國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엔 문제점이 예상된다.

6. 百濟의 初期 疆域에 관한 研究

이와 같은 馬韓의 大·小國에 관한 내용은 중국 측의 史書에서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三國志』 韓傳 및 『輪死』에서만 國名을 제시하고 있다. 馬韓諸國의 國名과 國數 그리고 國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三國志』 韩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韓 有愛襄國 牛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國 伯濟國 臣慎活國 遠慮不斯國 日革國 古麻著國 古離國 慈藍國 月支國 古離牛慮國 齊謂乾國 古爰國 莫慮國 牛離國 占離卑國 臣渠國 支徑國 街虛國 乍彌國 監美李離國 古諸國 武利物國 路國 兒林國 斯盧國 內卑離國 慈笑國 高慮國 酸慮國 曰斯鳥丘國 一離國 可不離國 支牛國 街索國 提慮國 牛慮卑離國 臣森後國 高慮國 古羅國 臨素牛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後卑離國 一離國 街奚國 不雲國 不期慎務國 爰油國 乾馬國 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위의 자료에는 愛襄國을 비롯한 馬韓地域의 五十四個國의 國名들이 열거되어 있고, 「大國은 萬餘家이며, 小國은 數千家」라 하여, 戶數로써 國의 규모를 大·小國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戶數의 합계와 國數의 합계를 각각 「十餘萬戶」「凡五十餘國」이라고 하였을 뿐, 戶數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大·小國의 國名과 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자료의 내용이 馬韓地域의 大·小國을 戶數의 多少에 의거하여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小國의 개별적인 數와 國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百濟의 國가 형성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大·小國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55개國名이 명시되어 있으나, 國의 수는 「凡五十餘國」이라고 하며 55개국의 기록과는 달리 國數를 개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 또한 馬韓地域의 大·小國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기재된 55개 國名과 「凡五十餘國」이라는 國數의 합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열 여덟번째의 「英慮國」과 마흔 네번째의 「高慮國」을 同名이라 하

이疊出로 보는 반면에,¹⁵⁾ 「莫盧國」을 합쳐 「莫盧卑離國」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제시되기도¹⁶⁾ 하였다. 한편으로는 서른 일곱례의 「不彌國」과 서른 아홉번례의 「支半國」, 그리고 서른 아홉번례의 「狗索國」을 각기 『日本書紀』 神功紀 49年條에서 碱地坡의 지명을 나타내는 「布彌國」「半古」라는 두 國의 誤記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 「不彌支國」과 「半狗國」으로, 「狗索國」의 '素'字를 다음과의 「健盧國」에 끌어이어 「素健盧國으로 이해하는 견해도¹⁷⁾ 있다. 이러한 先學들의 연구 성과는 한결같이 『三國志』 韓傳의 國名이疊出 誤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訂正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凡五十餘國」을 54個國으로 파악하는데는 동일한 입장은 취하고 있다. 그리고 『三國志』보다 年代가 늦은 『後漢書』에는 馬韓地域의 각 國名을 缺한 채로 「馬韓 有五十四個國」이라 하였고, 그 이후의 馬韓의 國數를 기록한 中國의 史書도 54개국이라 하고 있다.¹⁸⁾ 이와는 달리 『晉書』에서는,

「馬韓 凡有小國五十六所 大者萬戶小者數千家」¹⁹⁾

라고 하여 大國의 수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小國만 56所라고 하여 大國의 존재에 의심을 갖게 하나, 끝이어 『三國志』의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는 「大者萬戶 小者數千家」라고 하여, 이는 역시 戶數의 규모에 따라 大國으로 구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三國志』 韩傳을 底本으로 하여 歷緯 捜索한 『後漢書』가²⁰⁾ 馬韓의

15) 李丙熙, 1976 「三韓問題의 研究」『韓國古代史研究』, p. 162.

16)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東洋學』 9, p. 201.

17) 内藤虎次郎, 「卑麗呼考」『藝文』 1.

18) 『後漢書』 東夷傳, 「馬韓在西有五十四國」.

『梁書』 卷 54 列傳 48 諸夷, 「馬韓有五十四國」.

『南史』 卷 75 列傳 69 夷貊下, 「馬韓有五十四國」.

19) 『晉書』 卷 97 列傳 67 四夷.

20) 千寬宇, 1976 「《三國志》韓傳의 再検討」『異種學報』 41, p. 8.

國名을 訓한 채 54개국이라 함은, 前史에 있는 國名이 聲出 謤記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정하여 國數를 기록했을 가능성성이 있다. 나아가서 三韓地域의 새로운 지식이 첨가되어 馬韓의 國數를 54개국이라고 정리했다고 할지라도, 54개국으로 정리한 國名과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은, 馬韓地域의 大·小國의 합이 54개국이라는 『後漢書』의 내용을 확신하기에는 문제가²¹⁾ 있다. 이와 함께 先學들이 『三國志』에 기재된 馬韓諸國의 一郡國名이 誤記重疊되었다고 한걸같이 주장하나²²⁾ 그 내용이 각각 다른 반면에 國數의 합이 54개국이라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고 하여, 「凡五十餘國」으로 이해할 경우 先學들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馬韓의 大·小國의 합을 「凡五十餘國」이라는 그 자체의 내용이나, 혹은 기재된 國名의 수로써 파악함이, 馬韓의 國數를 54개국으로 고정하여 이해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大·小國의 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55개 國名의 기재 또한 謤記나 重疊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는 「馬韓… 有爰襄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라는 자료에서 馬韓의 大·小國을 각각 몇 개국으로, 小國의 數千家라는 '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할까?

이를 위하여 『三國志』 韓傳에 제시된 馬韓諸國에 대한 國名記錄을 통해 數值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에서 謤差를 상정하고, 이를 數式에 반영하여 馬韓大·小國의 수를 각각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이해코자 한다. 그러나 數式을 통한 算術的인 계산은 복잡성에 있어 어려울이 있는마 數式의 내용을 computer에 입력하여 馬韓大·小國의 수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1) 『後漢書』 東夷傳 이후 중국의 史書에서 馬韓은 54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三國志』 韩傳에 55國名이 제시되어 있고, 『晉書』 四夷傳에서 小國 50所에 포함되지 않는 大國의 수를 고려한다면, 馬韓의 大·小國의 합이 55個國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있다.

22) 李內善, 『위의 책』, p.262.

이미 제시된 『三國志』의 내용에서 「凡五十餘國」「萬餘家」「總十餘萬戶」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는 '餘'은 '나머지' '그 이상' '여분'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²³⁾ 그렇다면 「凡五十餘國」「萬餘家」「總十餘萬戶」라고 제시된 통계 수치에 '餘'의 일반적인 개념을 반영하면 각각 「五十九國」「萬家~萬五千家」「十萬戶~十萬五千戶」라는 폭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통계 자료에 '餘'의 의미를 반영하고, 大國을 X, 小國을 Y 그리고 大國의 戶數를 A, 小國의 戶數를 B, 總戶數를 W라고 표시 한다. 아울러 小國의 규모인 數千家의 '數'를 상수 'a'로 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數式을 설립시킬 수 있다.

$$\begin{aligned} 50X + Y &= 80 \quad \text{.....(1)} \\ AX + BY &= W \quad \text{.....(2)} \\ 10,000A &= 10,500 \quad \text{.....(3)} \\ B &= 1,000a \quad \text{.....(4)} \\ 100,000W &= 105,000 \quad \text{.....(5)} \end{aligned}$$

위의 數式에서 X와 Y는 馬韓地域의 실제한 大·小國이므로 각각 자연수이어야 하며, A가 변화하는 단위는 가능한 한 세분하여야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전체의 규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100을 변화 단위로 하고, 나아가 a의 변화 단위 역시 0.1로 하는 내용을 數式 ①②③④⑤의 조건과 함께 computer에 입력하여²⁴⁾ 결과를 보면, 馬韓地域의 大·小國의 수는 각각 大國 1~5個國, 小國은 49~58個國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大國

23) 諸橋轍次, 1951 『大漢和辭典』 권 12.

24) 수식을 Computer에 입력한 Program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Y PROGD
    C 1000<AX+BY<10500 & 50<X+Y<59
    COMPUTER NOSTACK
    DATA IC, K1, K2, K3, K4, K5, K6, K7, K8, K9/10*0
    DATA L9, L0, L1, L2, L3, L4, L5, L6, L7, L8/10*0
    DO 500 I=100000, 10500, 100
    →
  
```

10 百濟의 初期 疆域에 관한 研究

이 5개국인 경우는 4/198의 확률밖에 없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小國 또한 13/198의 확률 이하를 보여주는 56~58個國의 경우는 무시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馬韓地域의 大國은 1~4個國이며, 小國은 49~55個國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
→      A=1
      DO 500 J=11, 20
      S=J/10
      DO 500 K=1, 9
      B=K
      DO 500 L=49, 58
      C=L
      DO=B+C
      IF(DO, LT. 50, OR, DO, GT. 59) GO TO 500
      W=A*B+1000, *S*C
      IF(W, LT. 100000.) GO TO 500
      IF(W, GT. 105000.) GO TO 500
      IC=IC+1
      WRITE(10, 110) IC, W, L, S, K, L
110 FORMAT(10X, "C=13," 11X, "W="F8. 0,11X, "A=", 15, 10X,
           "B=", F5.1, 10X, "X=", 15, 11X, "Y=", 15)
           GO TO(11, 12, 13, 14, 15, 16, 17, 18, 19), K
           K1=K1+1
11   K9=K9+1
19   K9=K9+1
300 MM=L-48
      GO TO(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MM
29   L9=L9+1
      GO TO 500
30   L0=L0+1
      GO TO 500
38   L8=L8+1
500 CONTINUE
      WRITE(10, 120) K1, K2, K3, K4, K5, K6, K7, K8, K9
120 FORMAT(//,59,"* * * * X * * * * ",//,11X,"1=", 15, 17X, "3=", 15, 16X, "4=", 15, 16X, "5=", 15, /, 11X, "6=" 15, 17X,
           WRITE(10, 130) L9, L0, L1, L2, L3, L4, L5, L6, L7, L8
→
```

참고로, 위의 program의 결과에서 『三國志』에 기재된 馬韓地域의 國名과 수인 55와 小國만 56所라고 한 『舊書』를 제외한 중국 史書와 현재 先學들이 國名의 誤記을 정리한 내용인 54個國의 경우를 말해 하여 정리해 보면²⁵⁾ 54個國의 경우는 大國이 1~4個國, 小國이 50~53個國이 되고, (大國이 5,

```

→    11 FORMAT(//,59X, "***** Y *****", //,10X, "49=", 15, 15X,
      "50=", 15, 15X, "51=", 15, 15X, "52=", 15, 15X, "53=", 15, 15X, 10X,
      "54=", 15, 15X, "55=", 15, 15X, "56=", 15, 15X, "57=", 15, 15X,
      "58=", 15)
      STOP
      END
      X PROGA
      C=1 W=100500 A=10000 B=1.1 X=4 Y=55
      C=2 W=103900 A=10000 B=1.1 X=5 Y=49
      C=3 W=106000 A=10000 B=1.1 X=5 Y=50
      .
      .
      .
      C=196 W=102300 A=10500 B=1.8 X=1 T=51
      C=197 W=104100 A=10500 B=1.8 X=1 Y=52
      C=198 W=103600 A=10500 B=1.9 X=1 Y=49
      **** X *****
      1=55 2=51 3=48 4=40 5=4 6=0 7=0 8=0 9=0
      **** Y *****
      49=28 50=25 51=24 52=24 53=21 53=21 54=23 55=23 55=24
      56=13 57=10 58=6
      STOP
      25) 54個國의 경우(총 27가짓수)
      X(大國)
      1=6 2=6 3=6 4=6 5=3 6=0 7=0 8=0 9=0
      Y(小國)
      49=3 50=5 51=6 52=6 53=6 54=0 55=0 56=0 58=0
      55個國의 경우(총 24가짓수)
      X(大國)
      1=6 2=5 3=6 4=6 5=1 6=0 7=0 8=0 9=0
      Y(小國)
      49=0 50=1 51=6 52=6 53=5 54=6 55=6 55=0 56=0 58=0
  
```

12 百濟의 初期 地域에 관한 研究

小國이 49인 경우는 확률이 극히 적으므로 빼린다) 55個國의 경우는 大國이 1~4個國, 小國 51~54個國이 된다. 大國이 5, 小國이 50인 경우는 역시 확률이 극히 적으므로 빼린다. 앞에서 大·小國의 수를 50~59個國으로 잡았던 경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역시 馬韓地域의 大·小國의 수는 각각 大國이 1~4個國, 小國이 49~55個國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computer에서 얻은 결과를 보았을 때, 小國의 數千家에서 '數'의 범위는 1.1~1.9 사이에만 존재하므로, '數千家'의 범위는 1,100~1,900餘家의 범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자료로 사용한 統計數值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는바, 만일 인용한 『三國志』韓傳에 기록된 國의 수나, 그 규모를 나타내는 戸數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면, 統計 내용을 computer에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면 『三國志』에 제시된 三韓社會의 大·小國에 관한 統計資料는 믿을 만한 것이 되는가? 『三國志』東夷傳 總記에 “中國과는 太古時부터 교섭은 있었으나, 여러 해를 걸쳐 있었던 일이므로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西城은 前漢 強 때부터 그 지방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東夷는 後漢末부터 遼東의 公孫氏 정권이 무너지고, 魏 景初年間(AD.237~240) 이후로 삼세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²⁶⁾ 하여 중국인의 邊境에 대한 지식의 확대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는 中國인이 朝鮮 등 한반도 북부에 대해서는 『史記』朝鮮傳아니, 『漢書』의 朝鮮傳 撰述時 다소의 지식이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후 『三國志』의 撰述時期에 이르러서야 三韓社會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어, 『三國志』의 韓傳을 撰述하였다 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령 『三國志』韓傳에 景初年中(AD.237~239) 樂浪太守 鮑于爾와 帶方太守 劉昕이, 魏의 明帝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韓地域의 여러 臣民들에게 色君, 印綬를 주고 있다. 總人이 漢의 2郡에 印綬나 衣幘을 받으려 온 차가

26) 『三國志』東夷傳 序文.

千餘人이고, 下戶들도 漢2郡에 와서 조달하였으며, 弁辰韓地域의 鐵이 撫浪과 帶方에 수출되었다고²⁷⁾ 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三韓地域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증가됨과 아울러, 漢地域과 韓郡縣이 빈번한 교류를 갖는 과정²⁸⁾ 속에서 보다 상세한 三韓社會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漢書』前까지는 列水(漢江)以南地域의 일을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고, 韩地域에 대한 미미한 지식을 직간접으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韩郡縣과 韩人的 직접적인 道交通歷에서 譚官의 통역이 잘못되어, 韩의 臣賄가 義하여 帶方을 공격하였다라는 廉斯鑄의 예치법²⁹⁾ 譚官이 잘못 통역하였다든지 하는, 다소의 오류와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그렇지만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그 자체는 漢郡縣에서 韩地域의 자료에 대한 眞偽가 여과되어 이해되고 있음을 반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三韓社會에 대한 지식의 확대를 바탕으로撰述된 『三國志』韓傳은 그 내용, 특히 國에 관한 통계도 그 전세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撰述하였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三國志』韓傳의 사료적 가치는 높이 인정할 수 있겠고,³⁰⁾ 나아가 韩傳에 보이는 三韓社會의 國의 수나 戶數와 통계는 크게 의심할 바는 아니라고³¹⁾ 하겠다. 그렇다면 『三國志』韓傳의 國에 관한統計資料를 computer에 입력하여 얻어진 馬韓大·小國의 수는 약간의誤差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馬韓의 大國은 1~4個國, 小國은 49~55個國이라고 이해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7) 例의 雜,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摯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豐國臣智加陽邑君印經名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雷都朝謁 智加陽衣幘 白匣印經名幘千有餘人·弁辰……國出禮 韩論模皆從取之 諸市貿皆用錢 又以供給二郡。」

28) 『三國志』撰述時期인 AD.3C경이면 馬韓地域의 百濟와 辰韓地域의 신라가 직접 중국과 불교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한다.

29) 例의 雜, 「史譚轉有馬同 臣智加陽忿 劍帶方鬻時極豎。」

30) 千寬宇, 앞의 논문, pp. 16~18.

31) 李丙壽, 앞의 논문, p. 268.

3. 馬韓大·小國의 國名

前章에서 例示한 것처럼 『三國志』 韓傳의 馬韓 55개 國名이 大·小國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馬韓諸國의 國名을 기재하고 있는 史書로서는 또 『輪苑』이³²⁾ 있으나, 이 역시 『後漢書』를 비롯한 중국의 史書에서는 馬韓諸國의 國名을 생략하고³³⁾ 있으며, 그 내용 또한 三韓의 位치와 蘇馬提에 관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三國志』를 底本으로 한 것이어서 馬韓諸國의 國名을 大·小國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馬韓諸國을 그 규모가 离離家인 1~4개의 大國과 1,100~1,900餘家의 별위인 49~55개의 小國으로 그 國名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사표는 없다. 그러나 前章에서 제시된 『三國志』 韩傳의 馬韓 55개 國名中의 하나인 伯濟國이, 그 위치는 漢江 유역이며, 후일 百濟의 母體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三韓時代는 紀元을 前後해서 AD.3C까지인 바, 같은 시기에 해당되는 『三國史記』 기사가 참고될 것이다. 즉 百濟의 대외관계에서 국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關係記事를³⁴⁾ 분석하여, 馬韓大·小國에 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비롯한 기타 내용에서도 馬韓 50國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볼 수 있는 國名은 보이지 않으나, 初期 百濟의 대외관계에 「馬韓」이라는³⁵⁾ 기사가 집중되어 있는바, 이러한 兩國간의 관계를 통하여 그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張楚金撰 『輪苑』, pp. 47~48.

33)註 18) 참조.

34) 『三國史記』의 早期記錄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필자는 『三國志』 韩傳 및 『三國史記』 등의 문헌 기록이 大同小異 함을 검증하여질 것이다.

35) 『三國志』 韩傳의 馬韓과 구별하기 위하여 '馬韓'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三國史記』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始祖

- ① 十年 秋九月 王出獵獲射鹿 以送馬韓.
- ② 十三年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北至 河 南限鶴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 ③ 十八年 冬十月 驍馳掩至 王帥兵逆戰於七重河 廣漢酋長素牛送馬韓 其餘 頗盡坑之.
- ④ 二十四年 秋七月 王作龍川柵 馬韓王遣使責讓 曰 王初度河 無所容足 五 刀更

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為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而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巍何 王懸壤其權.

- ⑤二十五年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 一首二身 日者曰 井水暴 溢者 大三牲興之卦也 牛一卷二身者 大王拜隣國之應也 王聞之喜 遂有拜 吞辰 馬之心.
- ⑥ 二十六年 秋七月 王曰 馬韓之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爲社所拜 費腎 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難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假發馬 韓 進拜其國邑 唯固山縣觀二城 固守不下.
- ⑦ 二十七年 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 ⑧ 三十四年 冬十月 馬韓舊地而動 雄牛谷城叛 王納鉅兵五十討之 周勸自輕 罷斯其戶 幷誅妻子.

위의 史料 ①, ②, ③은 百濟가 「馬韓」에 神鹿을 바치고 使臣을 보내 遷 都를 알리며, 나아가 驍馳파의 전투에서 酋長 素牛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百濟가 「馬韓」을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史料 ④에서 「馬 韩王」이 百濟에 이르길 '왕이 처음 강을 건너 몸을 둘 곳이 없자 내가 東 北一百里의 땅을 주어安居케 하였다'고한 내용처럼 流移民集團인 百濟의 성립에 「馬韓」이 '稱王'을 하면서 土着社會의 정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史料 ①, ②, ③, ④의 내용은 土着政治集團인 「馬韓」이 '稱王'을 하면서, 後來하여 정착한 百濟에 각각 세력의 우위를 견지하고 있

36) 李賢惠, 1984 「馬韓地域 捷小國의 形成」『三國社會形成過程研究』 pp. 35 ~ 45.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馬韓」과 百濟가 각각 세력의 우열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 즉 국력의 규모는 어떠한 정도였을까? 이를 밝혀 줄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먼저 百濟의 국력, 즉 戸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溫祚 8년(BC. 11) 2월에 驍駕兵 3千이 駕禮城을 포위하니, 王이 城門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고, 同年 7월에는 百濟가 馬首城을 쌓고 鳳山柵을 세워 樂浪과 失和되면서 이르길 “만일 樂浪이 강함을 빙고 군사를發할 것 같으면 비록 小國이라 할지라도 대응할 것”이라며 하고 있다. 당시에 百濟는 3千의 驍駕兵을 정면으로 대결할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방어적 인 태세로 守城하고 있음을 이해케 한다. 그리고 곧이어 樂浪과는 小國이라 自稱하면서도 一戰을 각오하겠다는 자신감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樂浪이 대외 공격에 동원하는 군사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三國史記』에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나 南解次次雄 11년(AD 4) 金城을 공격할 때, 新羅가 6部의 군사 1千人을 거느리고 주격하는 내용과³⁷⁾ 太祖大王 69년(AD. 110)에 고구려의 玄 遼東의 雜과 친부에 동원되는 군사력이 2천~3천명의 병력인 바³⁸⁾ 漢의 1郡의 樂浪의 군사력은 그 절반의 수준인 千~千5百名의 병위에서 이해하며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百濟가 3千名을 직접 대항할 수는 없었으나, 樂浪과 군사적으로

37) 『三國史記』卷第 23 百濟本紀 第 1 溫祚王 8年條。

「驥 馬首城 豐駕山柵 樂浪太守使告曰 塊者 賤聞結好 意同一家 今風我離 遷立 城柵 或者 其有難食之謀乎 若不唯齋軒 駕城威柵 別無所藉擬 荷或不然 請一駐 以 駕負 王報曰 故隨守國 古今常道 豈敢以此有唯於和好 宜若執事之所不疑也 若執事特強出師 同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與」

38) 朴의 附。卷第 1 新羅本紀 第 1 南解次次雄 11年條。

「樂浪謂內虛 求攻金城甚急 六部兵一千人追之」

39) 朴의 附。卷第 13 高句麗本紀 第 1 太祖大王 69年條。

「漢幽州刺史馮煖 主 光守鎮光 遼東太守荀顥等強共來侵 擊殺後駕坐時 遷獲 兵 馬財物 王乃遣弟遼成 隨兵二千餘人 追燒 光等 遷盛遣使詣降」

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百濟의 군사력이 낙왕의 千~千5百名의 군사력과 대적할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나 溫祚 22년(AD. 4)에 왕이 騎兵 1千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다가 鞍韜을 격퇴하였다는⁴⁰⁾ 예도 주목된다. 물론 百濟의 步騎兵의 비율의 문제가 되겠으나, 군사력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百濟의 군사력은 鞍韜兵 3千餘名을 대항하긴 힘드나, 樂浪의 千~千5百名의 군사력에는 대적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와 더불어 騎兵 9을 동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溫祚代에 百濟의 군사력은 3千餘名에는 미치지 못하나 9名은 훨씬 상회하는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軍制의 내용이나 墓兵의 기준이 문제가 되겠으나, 군사력의 규모는 이를 창출할 수 있는 人的基盤의 범위를 추정하게 될 단서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三國志』韓傳에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宮家에서 성과를 뽐는 것과 같은 公共事業을 할 때에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労役을 시키고 있음을 三韓社會에서 役을 통한 人的資源의 운영이 이루어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라에서는 南解 7년(AD. 10) 脱解로써 太輔로 삼고 軍國政事를 맡겼다든지,⁴¹⁾ 百濟 溫祚 2년(AD. 17)에 왕의 族父 乙晉이 知識과 腸力이 있으므로 右輔에 拜하고 兵馬事를⁴²⁾ 맡겼다고 한다. 이처럼 三韓諸國들이 兵馬의 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馬韓社會에서 公共事業을 할 때에 労役을 시키기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동원과, 신라 百濟 등이 兵馬의 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강조는, 당시에 국가적

40) 『위의 책』,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溫祚王 22年條。

「王帥騎兵一千獵并覘東 遇鞍韜賊 一戰破。」

41) 『위의 책』, 卷第 1 新羅本紀 卷 1 南解次次雄 7年條。

「以脫解爲大輔 委以軍國政事。」

42) 『위의 책』, 卷第 23 百濟本紀 卷 1 溫祚 2年條。

「王以族父乙晉有知識體力 拜爲右輔 委以兵馬之事。」

인 차원에서 人的支配資源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단편적이긴 하나 백제의 병력 동원에 관계된 내용을 분석하여, 병력 동원을 가능케 한 인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여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馬韓社會의 한 戶의 사람 수를 평균 5인으로 보고⁴³⁾ 後代의 기록이긴 하나, 신라 村落文書에 각 村의 인구에 비하여 戶을 부과하는 丁男의 비율이 평균 21.3%임을⁴⁴⁾ 고려할 때에 한 戶당 戸을 부과할 수 있는 人的資源은 1명 내외이다. 따라서 1千~3千餘名의 군사력을 창출할 수 있는 百濟의 최소한의 人的支配基盤은 1千~3千餘戶의 범위에서 이해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되는 百濟의 戶數에 대한 규모는 馬韓小國의 戶數인 1,100~1,900餘家에 접근되고 있으며, 温祚 8년(SC. 11)에 塵鏡에 대하여 小國이라 자칭한 百濟는 馬韓의 小國임을 표현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馬韓諸國 가운데 小國이었던 百濟는 곧이어 국력의 신장을 가져와對「馬韓」관계를 변화를 가져온다.

앞서 예시된 사료 ④를 보면 비록 뒤에 철거하기는 했지만 百濟가 「馬韓」의 領域이 熊川에 権을 세울 정도로 세력 팽창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⑤에 이르러서는 晉 馬韓을 병합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이제 百濟의 국력이 「馬韓」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에는 ⑥에서처럼 「馬韓」은 점차 약해져 ⑦에서는 百濟에 의해 馬韓이 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①, ②, ③, ④의 예처럼 温祚 24년 이전까지는 「馬韓」이 百濟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으나, 점차 小國의 규모였던 百濟가 성장함에 따라 「馬韓」을 멀하고 百濟가 그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 ②, ③, ④의 기사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百濟가 우대하였던

43) 金眞培, 앞의 논문, p.3.

44) 旗田義, 1972 「新羅の村落」『朝鮮中世社會の研究』, p.437.

『馬韓』은 그 국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가 문제된다. 그러한 점을 직접적으로 전해 주는 내용은 없으나, 新羅本紀에 馬韓王이 신라의 사신을 꾸짖어 이르길 ‘辰 弁은 우리의 屬國인데 근년에 職貢을 보내지 아니하니, 大國을 섬기는 祀가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느냐’하고 있다. 또한 馬韓王이 죽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라가 馬韓王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앞서 사신을 유포인 일에 대한 懈恨을 표출하면서도 사신을弔慰를 표하고⁴⁵⁾ 있다. 이는 百濟뿐만 아니라, 慶州地域이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에까지 大國을 자칭하면서 事大之禮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추궁하는 내용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馬韓』은 일반적인 小國의 규모보다는 월등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서 「馬韓」의 舊將인 周勳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百濟가 군사 5천을 동원하였다는 내용이 『馬韓』의 국력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즉 『馬韓』의 국력은 千~3千戶의 규모로 이해되는 百濟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나아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辰韓의 유력한 세력인 신라(斯盧國)에 까지 事大之禮를 강요함과⁴⁶⁾ 더불어, 百濟가 『馬韓』을 멸한 후에 반란을 일으킨 관여 세력을 토벌하는데 군사 5천을 동원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하기 이전의 『馬韓』의 국력은 앞서 百濟의 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5千戶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을 것이다. 초기 百濟와의 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馬韓』은 시기적으로 三韓時代에 해당되는바, 그 규모로 보아 馬韓諸國 가운데 禹餘家에 해당되는 大國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45) 『三國史記』卷第 1 新羅本紀 第 1 積居世四干 39年條:

「馬韓王薨 或說上曰 昔韓王崩尋我使 今當其喪往之 其國不足卒夜 上曰 幸人之 善 不仁也 不從 乃遣使吊慰」

46) 위의 책, 卷第 1 新羅本紀 第 1 積居世四干 38年條:

「遣愬公聘於馬韓 馬韓王讓 公曰 臣下二韓 為我屬國 此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그런데 百濟와 관련지어 萬餘家의 규모로 이해한 「馬韓」은 『三國志』 韓傳에 馬韓이 萬餘家인 1~4國의 大國과 1,100~1,900餘家의 범위인 小國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馬韓의 55國名中에는 앞서 百濟와 관련지어 萬餘家인 大國의 규모로 파악된 「馬韓」이란 國名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료의 내용이 주목된다.

◎『三國志』 韓傳.

「馬韓: 有 伯濟國 月支國 楚離國 凡五十餘國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僕呼臣
雲道支報安哥 支演臣離兒不倒拘寧秦支廉之號 其官有楨率善邑郡 同義侯 中郎
將 都尉 总長」

◎『後漢書』 韓傳

「韓有三種 凡七十八國 伯濟其一國焉 惟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其立其體爲辰
王 都日支國 辰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入焉」

◎『輪死』 三韓傳 壇注 所引「魏略」

「辰王治日支國 支國置官 亦多曰臣智」

위의 사료에서 ◎와 ◌는 辰國이 月(目)支國을⁴⁷⁾ 다스린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에서는 ◎, ◌의 내용과는 관계하게 目支國에 都邑을 둔 辰王이 三韓의 總王, 즉 馬辰弁韓이 모두 辰王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지적된 바처럼 『後漢書』의 辰王 目支國에 관계된 기사는 『三國志』를 壇注 調索하는 과정에서 辰王의 字義에만 의미를 두고 馬辰弁韓을 하나로 묶어 취급한 오류로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目支國은 辰王이 존재하는 정치사회 상태임을 이해할 수는 있다. 韓의 여러 郡縣에게 韩鄕縣이 邑君邑長이란 印綬를 주었다는⁴⁸⁾ 일반적인 鄉位와는 달리 ◌에 제시된 '臣智或

47) 『輪死』 所引「魏略」, 『後漢書』 韩傳에는 目으로 되어 있다. 이에 月=目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月支國을 目支國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8) 『三國志』 韩傳.

「諸韓國臣智 加縣君印綬 其次與邑長」

加優呼臣雲……安邪……漁臣……狗邪……之號'라고 한 길다란 '號'를 目支國의 長王에게 주고 있다. 위의 칭호는 단락이 난해하여, 그 의미가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目支國의 長王이 臣智 혹은 馬韓臣 離新國 弁辰安邪國 馬韓漁臣 離兒國 弁辰狗邪國 등 몇 나라의 王號를 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⁴⁹⁾ 한다.

이는 三韓의 諸勢力과 어떤 형식으로든 교섭을 가졌던 것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諸小國들과의 宗主·附屬관계를 바탕으로 廣郡縣과의 교류를 주도하는 역할을⁵⁰⁾ 암시하는 듯하다. 즉 目支國은 馬韓의 諸國들에 비해 國名이 유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長王이 臣智라는 호칭이 韓의 諸國들의 族長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칭호와는 달리 그 세력과 권위가 뛰어났음을 강조하는 '號'로써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에서 三韓의 78國중에 伯濟의 國名이 제시되어 있다. 『梁書』에서도 馬韓 54個國中 伯濟가 그 하나라 하면서 점차 강대하여 諸小國을 병합하였다고⁵¹⁾ 하며, 후일 馬韓諸國中에 성장한 百濟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後漢書』와 『梁書』에 百濟의 성장된 후의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國名만 기록 강조하고 있는 예처럼, 目支國 역시 中國人의 입장에서 馬韓의 다른 50餘國과는 구분하여야 할 특수한 상대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目支國이 다른 諸國과는 달리 國名이 반복되고, 臣智의 呼稱 또한 특별히 권위를 부여한 듯한 내용은 1,100~1,900餘家에 지나지 않는 일반적인 小國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곧 目支國이 小國보다 훨씬 규모가 큰 大國일⁵²⁾ 뿐만 아니라, 土着社會와 韓郡縣과의 관계에서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특별히 강조되었을 것이다.

49) 李基白 李基東, 『沿史 稱』, p. 94.

50) 李丙善, 「蓋國'과 '辰國' 问题」, pp. 240~241.

51) 『梁書』卷 54 列傳 48 諸夷條.

「馬韓有五十四國 百濟即其一也 後南漢大兼諸小國。」

52) 金貞培, 1985 「目支國小考」『千寬宇先生遺稿記念韓國史論叢』, pp. 126~127.

그런데 萬餘家의 大國인 目支國은 그 위치에 대하여 益山,⁵³⁾ 天原, 櫻山과 平澤, 成歡邑대⁵⁴⁾ 益山金馬, 禮山일원,⁵⁵⁾ 廣州,⁵⁶⁾ 서울 지역,⁵⁷⁾ 漢江以北의 慶禮城이라⁵⁸⁾ 하여 겹쳐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百濟王統을 二元으로 置고 仁川(彌都忽)과 忠淸南都의 海岸方面의 同一生活圈을 형성한 古王時代 百濟를 지칭한 海上勢力으로 이해되고⁵⁹⁾ 있다. 이처럼 萬餘家의 大國으로 파악되는 目支國의 위치는 많은 異見들이 있으나, 馬韓 50餘國들이 散在하였던 京畿 忠淸 수羅道 지역에서 이해되고 있는 공통적인 견해는 漢江流域에 자리잡은 百濟와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특히 仁의 사도에서 百濟와 「馬韓」의 관계에서 보이는 離川柵이 安城으로 위치가 비정되어⁶⁰⁾ 「馬韓」을 멀한 후 溫祚 36년(AD.17)에 짓은 湯井城이⁶¹⁾ 溫陽으로⁶²⁾ 이해되는 점은, 앞서 異見을 보이는 目支國의 위치에 대한 공통 지역의 범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미 설명된 바처럼, 王이 존재하는 정치 사회구조가 「馬韓」과 目支國이 일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萬餘家로 이해되는 점은 馬韓 50餘國의 일원인 伯濟國, 즉 百濟에 대하여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萬餘家의 규모인 「馬韓」은 끝 目支

53) 丁若謙, 『我朝疆域考』(馬韓條).

韓故宮, 『海東雄史』(馬韓條).

54) 李丙善, 『目支國의 位置과 그 地理』 pp. 242~248.

55) 金真培, 『高麗史』, p. 131.

1976 「準王 仁 晉國與 三韓正統論의 論問題」, 『韓國史研究』 13.

56) 安在鎬, 『朝鮮上古史略』上卷, p. 272.

57) 鄭寅昔, 『朝鮮史研究』 p. 116.

58) 申采浩, 1977 「南漢三韓考」, 『朝鮮史研究』 p. 89.

三上比男, 「南部朝鮮における韓人部族國家の成立と發展」, 『古代東アジア史研究』, p. 105.

59) 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 24, pp. 13~130.

60) 李丙善, 1977 國譜 『三國史記』 p. 356.

61) 『三國史記』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晉祚 36年條

「榮潤井城」

62) 李丙善, 『高麗史』, p. 358.

國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보건대, 『三國志』韓傳에 존재되어 있는 馬韓의 大·小國名 중에서 目支國만이 离餘家에 해당되는 大國이었으나, 伯濟國이 점차 성장하여 溫祚 25년 무렵부터 大國으로 등장되었고, 溫祚 27년에 目支國이 百濟에 망한 후부터는 伯濟國만이 大國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目支國과 伯濟國을 제외한 爰農國 半塞水國 桑水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車祿國 臣噴沾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謙者國 古離國 處難國 吏離半盧國 素謂乾國 古愛國 英盧國 半離國 古卑離國 臣疊國 支授國 斧盧國 半猶國 監愛卑離國 古滿國 臣利鞠國內路國 兄林國 納盧國 內卑離國 恒奚國 邁盧國 群卑離國 田斯烏且國 一離國 不彌國 友半國 斧索國 抵盧國 牛盧卑離國 臣蘇童國 莫盧國 古柳國 臨素半國 臣雲紳國 如來卑離國 楚山坐卑離國 一離國 斧奚國 不雲國 不斯噴斯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등이 小國이 될 것이다.

4. 馬韓大·小國의 領域

馬韓大·小國의 개별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료는 없다. 馬韓와 大國인 目支국과 伯濟國, 그리고 爰農國을 50여 小國들은 生業이 分化되지 않는 상태에서 生產經濟가 농경을 바탕으로 전개될 때, 人口分布는 農耕條件, 특히 耕作地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⁶³⁾ 일반론을 고려할 것 같으면 지역 면적과 戶數의 규모, 그리고 農耕條件를 서술하고 있는 사료가 주목되어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志』東夷傳.

夫鉏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
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食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城數平歟 土

63) 上野福男, 1967 「豐山村」『都市·村落地理學』pp. 27~40.

地宜五穀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面與朝鮮濱接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鄰於九
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 無原澤 隊山谷以爲居 食潤水 無良田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
與挹婁 夫餘 南與僕領接 戶五千
律……方可四千里……馬韓在西 其民土着 植種……總十餘萬戶……井賦……
總四十五萬戶……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위의 사료는 夫餘와 高句麗 東沃沮 그리고 韓의 지역 범위와 戶數, 農耕에
관련되는 자연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夫餘와 高句麗는 '方可二千里'
라 하여 지역 범위는 같으나, 戶數에 있어서 각각 8萬戶와 3萬戶라 하여 2.7
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夫餘는 '東夷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지역이고
오곡이 잘된다'고 한 반면에 高句麗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좋은 땅이
없으며 농사를 짚어지어도 口腹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여, 農耕地狀態가
夫餘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가 國初부터 비옥한 農耕地帶來 文物이 풍부한
遼東玄巖漁 등 韓郡縣地域에 대한 공격과⁶⁴⁾ 더불어 沃沮 東纏 등의 지역
에서 貢納를 청수하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 대외 활동이 약탈적인 경제활동으로
이해되는⁶⁵⁾ 농경에 대한 불리한 자연 조건에 기인하여 식량 생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秋收感謝祭인
東盟(고구려), 舞天(流)이라는⁶⁶⁾ 農耕社會의 祭天行事가 대대적으로 행하여
졌고, 특히 夫餘의 옛 품습에 가뭄의 책임을 왕에게 물어 심한 경우에는
왕을 죽이는 예가⁶⁷⁾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災害때문에 흉년이 들면 賑恤을

64) 『後漢書』 東夷傳 高句麗條.

65) 虛寧敘, 앞의 논문, p. 161.

66) 『三國志』 東夷傳.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高句麗條)

「常用十月節祭天 夏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流條)

67) 『三國志』 東夷傳.

「舊夫餘俗 旱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夫餘條)

한다거나,⁶⁸⁾ 廣開土大王의 南進政策을 보다 나은 農耕地域을 향한 진출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은⁶⁹⁾, 夫餘條의 '其民土着'에서 알 수 있듯이 농경 생활이 본격화되고 生業이 미분화된 당시에 있어, 농경 활동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생활과 직결되고 있음을 이해해 한다.

그리고 위의 자료에서 東沃沮는 '그 지형이 東北은 힘소하나, 西南은 길어 方可千里이며, 戶數는 2千戶'라 하여 지역 범위가 '方可千里'이나, 戶數의 규모는 夫餘나 고구려에 비해 극히 적은 千戶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東沃沮의 위치가 山岳地帶로서 전체 면적에 대한 농경지의 비율이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심한 격차가 나는 咸境道 일원이어서⁷⁰⁾ 농경지 조건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 韓은 馬韓條에 '其民土着'이라 하여 정착에 의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사의 始終時에 각각 祭祀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幷辰條에는 토지가 오곡과 벼를 재배하기에 알맞다고⁷¹⁾ 하였으나, 馬韓條에는 耕種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麗州 古東面 欣岩里 聚落地에서 출토된 벌찌나,⁷²⁾ 全北의 扶餘郡 龍化里에서 벌찌 자국이 찍힌 無文土器 파편이 발굴되어⁷³⁾ 馬韓地域에서 青銅器時代末부터 相作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卷第 23 百濟本紀 第 1 多 王 6년(AD.33)에 '下命國南州郡始作稻田'이라는 稻作 기록과 더불어, 同書 卷 2 新羅本紀 2의 誓解王 22년

68) 『三國史記』卷第 14·15·16·17 高句麗本紀 第 2·3·4·5 同中王 2年條·太祖王 56年條·故國王 16年條·條上王 38年條.

69) 朴性璣,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韓國史研究』27, pp. 24 ~27.

70) 李弘植, 金의 等, p. 1028.

71) 『三國志』雜情.

「常以五月 下種此 祭鬼神 群聚歌舞 歆盪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舞有二舞 十月肅功祭 亦復知之.」

72) 任孝率, 1978 「欣岩里住居址」4『1976-1977年度 發掘推進報告』pp. 30~32.

73) 金榮來, 1975 「全北遺蹟調査報告」.

條의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라는 기록이 百濟에 관계되는 기록의 誤載라고 고려할 것 같으면⁷⁴⁾ 馬韓地域에는 당연히 稚가 재배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馬韓社會가 主穀物로서 오곡 稚를 경작하여 식량의 근본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夫餘나 고구려의 예처럼 三韓社會에서도 『三國史記』의 百濟 新羅本紀에 각각 日食과 같은 자연현상이 정확히 관측된 기록이 정리되어 있고,⁷⁵⁾ 旱·洪水·霜·雷·大風 같은 天災나 혹은 撞害 같은 困害가 심하여, 곡물 생산이 격감되면 한결같이 賦恤⁷⁶⁾ 행해지고 있다. 또한 『魏略』와 康斯銘說話에서 ‘聞樂浪土地美 人民饑藥 亡欲來降’이라는 예처럼 費耕地 조건에 따라 주민이 이동하고 있음을 끈 농사에서 얻은 곡물이 식생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하여 주고 있다. 이는 三韓社會가 본격화된 농경을 통해 생산된 곡물에 의해 식생활이 의존되고 있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馬韓의 농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夫餘와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이 ‘方里四千里’라 하여, ‘方里四千里’라한 夫餘보다 지역 범위가 두배로 되어 있고, 戶數 또한 韓이 14~15萬戶로 8萬戶인 약 夫餘의 두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夫餘 東沃沮 및 韓의 戶數와 지역 범위에 대한 앞서 제시된 사고의 내용은 농경 사회에 있어 인구의 분포가 농경 조건, 특히 경작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농경 사회에 있어 인구 분포는 농경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後代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15세기의 기록이긴 한 前時代에 비하여 畜業分化가 세분되었지만 농업을 富國強兵과 民生安定의 근원으로 강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朝鮮初에 있어 인구 분포와 농경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戶數와 경작지를 道別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4) 李丙熙, 1977 譯註『三國史記』 p. 36.

75) 申澗植, 1981 『三國史記研究』 pp. 184~191.

76) 李昊榮, 1971 「韓國古代社會의 畜害와 稚貫策」『史學志』 5, pp. 3~50.

<表-I>

道	戶數(單位: 戶)	者·田의 面積(單位: 組)	戶當面積(單位: 組)
漢城府	五部17,015 城庭里1,779	1,415	7.9
京畿道	20,882	200,346	9.6
忠清道	24,170	236,000	9.8
慶尚道	42,227	301,147	7.1
全羅道	24,073	270,588	11.2
黃海道	25,511	104,772	4.5
江原道	11,084	65,916	5.9
平安道	41,167	308,751	7.5
咸吉道	14,739	130,418	8.9

위의 표에 의하면 京畿道 忠清道 慶尚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咸吉道 즉 전국 8道中에 黃海道와 江原道를 제외한 6道에 면적과 戸數의 분포는 비례하고 있다.

그러나 黃海道와 江原道는 다른 道의 戸數와 農耕地에 비하여 2/3~1/2이나 적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다. 同書의 黃海道條의 내용을 살펴보면 瑞興都護府나 鳳山郡은 땅이 네마르나, 빵나무와 산에 뽕이 많아 누에치기를 생업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리고 海州郡 豊津縣 康翎縣 및 延安都護府 지역의 백성들은 魚鹽으로 生業을 삼는다고 하며, 그 이외의 지역도 누에치기 魚鹽 鐵生產을 중요시한다고⁷⁷⁾ 하고 있다. 이는 黃海道地域은 주민들이 농경 이외의 생산 활동을 다른 道보다 강조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江原道 三陟府의 백성들은 海產物을 얻는 것을 業으로 하고, 수렵이나 山間特產物을 제취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활동이라고 이해케 되는 내용이 보인다. 즉 특산물인 毛皮나 藥草 등이 다른 道에 비해 강조되어⁷⁸⁾ 기재하

77) 『世宗實錄』 卷 151 黃海道條.

78) 『列傳』 卷 15 江原道條.

고 있다. 이와 같은 黃海道와 江原道 지역의 농경 이외의 생산 활동을 중요시하는 내용을 고려할 것 같으면, 다른 8道처럼 戶數(人口)의 분포가 농경지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諸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三國志』 東夷傳에서 기술한 夫餘 高句麗 東沃沮 그리고 韓의 地形範圍 및 戶數에 관한 내용은 農耕條件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後代의 상황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운영되었던 朝鮮初에도 역시 인구의 분포는 농경지의 분포와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三韓社會도 그 자체 즉 馬韓과 辰弁韓의 戶數가 농경지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다. 馬韓은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며, 辰弁韓은 江原道 慶尙道라면, 馬韓이 10萬餘戶이고, 辰弁韓이 4~5萬戶란 戶數의 분포는 농경지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三韓社會의 각 지역에 대한 농경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地形條件이란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문화 농법에 따라 可耕地의 운영에 많은 변화가 따르겠으나, 농경이 가능한 絶對面積은 三韓時代와 그 이후의 시대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즉 후대에 농경지로 사용하는 地形은 三韓時代에 서도 可耕地의 조건을 갖춘 농경의 기본적인 지형 상태였을 것이며, 三韓社會의 농경지도 그러한 地形範圍에서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농경지에 대한 후대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三韓社會의 戶數와 農耕關係를 이해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後宗實錄』 地理志에서 三韓地域인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江原道 慶尙道地域의 耕作地를 말해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II> 『世宗實錄』 地理志(15C)

道名	耕作地(單位: 組)	全耕作地(%)	耕作地(比)	備考
京畿道	207,119	20.5		萬城 個性 포함
忠清道	236,300	23.3	10	
全羅道	268,175	26.5	濟州縣 除外	
慶尚道	301,147	29.7	4.2	
合計	1,012,741	100	14.2	

위의 表 II에서 馬韓地域(京畿道 忠清道 全羅道)과 晉弁韓地域(江原道 慶尚道)의 耕作地에 대한 비율은 각각 10:4.2가 되어 10餘萬戶와 4~5萬戶로 되어 있는 馬韓과 晉弁韓의 戸數의 比와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三韓의 戸數의 분포가 三韓時代의 可耕地의 분포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馬韓의 戸數의 분포 즉 馬韓大·小國의 戸數의 분포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馬韓大·小國의 領域를 밝히는데 있어 戸數의 분포를 후대의 農耕地分布와 관련하여 이해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馬韓地域에서 戸數가 1,100~1,900餘家인 小國의 영역은 馬韓地域의 農耕地의 1/56~1/91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즉 표 II에서 제시된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의 耕作地의 1/56~1/91인 12,765~7,820組(世)를 포함하는 지역 범위가 될 것이다. 萬餘家인 大國의 영역은 1/10인 71,159組(世)의 農耕地를 포함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位置比定이 뚜렷한 伯濟國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溫祚 16년(AD. 3) 이전인 小國일 때는 그 영역이 성남과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한 廣州일대(廣州牧 16,269組(世))가 된다.⁷⁹⁾ 이는 馬韓王(目支國王)이 百餘里의 땅을 주어 百濟王을 安送해 하였다는⁸⁰⁾ 지역 범위일 뿐만 아니라,

79) 위의 책, 卷 148 廣州牧條.

80) 『三國史記』卷第 23 百濟本紀 第1 溫祚 24年條.

三韓社會에서 물자 교역을 운영하는 상호 보완적인 공동 생활권이 半徑 50 里라는 지역 범위와도⁸¹⁾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小國 역시 그 영역은 다소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지역 범위는 京畿道 忠清 道 全羅道 全體耕作地의 1/50~1/91인 12,765結~7,820結(世)을 포함하는 지역 범위였을 것이다.

한편 국력이 성장되어 百濟가 萬餘家의 大國의 규모에 이른 溫祚 24년 (AD. 6)~25년 (AD. 7)代의 영역은 도표 II에서 馬韓地域의 農耕地의 1/10인 71,159.4結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서울 성남과 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대략 漢江以南인 莫城府(1,415結) 廣州牧(16,269結) 果川縣(3,128結) 穎川縣(2,762結) 水原都護府(19,154結) 南陽都護府(4,348結) 安山 郡(2,289結) 龍仁縣(5,988結) 陽城縣(4,724結) 陽智縣(2,068結) 高平都護府(6,296結) 仁川郡(2,601結) 須成縣(2,841結)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目支 國의 영역도, 최근 다양한 青銅器遺物이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는 羅山(3,732結(世))을 중심으로 天安(5,158結(世)) 豐山(5,446結(世)) 道陽(3,853結(世)) 新昌(3,064結(世)) 瑞山(7,283結(世)) 沔川(4,053結(世)) 唐津(2,632結(世)) 德山(5,199結(世)) 青陽(2,559結(世)) 保寧(3,127結(世)) 結城(3,251結(世)) 大興(3,026結(世))을 포괄하는 지역 범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百濟國 및 目支國의 영역을 지도상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81) 白雨都, 1981 「『三國志』籍帳의 「國」에 관한 調査」『白山學報』 26, pp. 43~45.



<圖1> 日支國 및 百濟國의 領域

위의 지도에 나타나는 百濟國의 영역은 文獻과⁸²⁾ 考古學을⁸³⁾ 바탕으로 각각 이해되고 있는 百濟初期의 영역이 北은 祿成江, 東은 春川 堤川, 南은 安城川으로 정리한 내용과 얼마간의 격차는 있었으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

82) 千寔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pp. 117~132.

83) 崔夢龍 編五榮, 1985 「考古學的 資料를 품해 芭 百濟初期의 領域考察」『千寔宇先生追憶記念 韓國史學論叢』 p. 117.

는다고 하겠다. 百濟가 溫祚 24년(AD. 6)에 雄川柵(安城川)을 만들었을 때에 馬韓(目支國)의 질책을 받고 柵을 할아 빼린 예와⁸⁴⁾ 더불어, 同王 36年條에 湯井城(溫井城)과 古沙夫里城(古卓)⁸⁵⁾ 그리고 多 36年條에 娘子谷城(清州)을 쌓았다는⁸⁶⁾ 내용과 〈安城川〉 同王 37년부터 蛇山城(報恩)일대에서 신라와 번번히 전투 기사는⁸⁷⁾ 百濟가 馬韓(目支國)을 멀한 이후의 기사인 바 目支國의 영역이 남으로는 錦江, 북으로는 安城을 경계로 하는 忠淸南都 일대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5. 結論

이상으로 初期百濟의 강역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三國志』 韓傳의 國數와 湖水에 관한 統計資料를 바탕으로 통계에서 계기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상정하고, 그 변화과정을 포함시킨 數式의 내용을 Computer에 입력하여 미구분 상태인 馬韓의 大·小國의 國名과 領域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小國이 존재되어 있는 馬韓諸國 가운데 無餘家에 해당되는 大國은 1~4個國이며, 數千家 규모의 小國은 49~55個國이다. 그리고 '數千家'라는 박연한 小國의 규모는 각 小國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1,100~1,900餘家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84) 『三國史記』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溫祚 24年條.

「王作雄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五湖東北 一百里之地安之 其特王不爲不厚 宣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繁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但犯我則罷 其如義何 王懸 逢壞其權」

85) 『朝鮮書』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溫祚 36年條.

「築湯井城 分大豆城民戶居之 八月 修葦圓山 銅峴二城 築古沙夫里城」

86) 『朝鮮書』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多 36年條.

「王拓地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

87) 『朝鮮書』 卷第 23 百濟本紀 第 1 多 37年條.

「王遣兵攻新羅蛇山城 不克 移兵攻狗壤城 新羅發騎兵二千 逆擊走之」

둘째, 萬餘家의 大國名은 馬韓의 50餘國中에서 溫祚 24~25년(AD. 6~7)까지는 目支國만이 萬餘家의 大國이었으나, 伯濟國이 그 무렵에 國력이 성장되어 萬餘家에 해당되는 大國의 규모가 되었으며, 溫祚 27년(AD. 9)에 伯濟國에 의해 目支國이 망하고서는 伯濟國만이 大國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目支國 伯濟國을 제외한 諸國들이 1,100~1,900餘家 규모의 小國일 것이다.

셋째, 馬韓 大·小國의 領域은 農耕社會에서 戶數의 분포가 農耕條件, 특히 農耕地의 분포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後代의 耕作地를 三韓時代 可耕地의 地形條件를 갖춘 면적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위치 비정이 확실한 伯濟國의 예를 보면, 伯濟國이 小國일 때 그 領域은 漢江 以南의 서울 지역과 城南市 및 廣州 일대가 되며, 國력이 성장되어 大國의 규모에 이른 溫祚 24~25년대의 領域은 伯濟國의 지역을 중심지로 하여 北은 漢江, 南은 安城川이며, 東은 南漢江, 西는 黃海에 접하는 지역이다. 이는 끝夢村土城을 비롯한 인접 城南 지역이 백제의 漢城時代부터 중심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目支國의 영역은 忠淸南道 地域이며, 小國의 領域은 다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지역범위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전체 耕作地의 1/50~1/91인 12,765結~7,820結 2(世)를 포함하는 지역범위일 것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 1개 郡 규모일 것이다.

넷째, 馬韓 50餘國을 大·小國으로 각각 분류하여 國名과 領域를 파악해 본 결과,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溫祚代에 서술된 내용 특히 영역에 관계된 기사는 『三國志』韓傳의 내용과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百濟 초기의 疆域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城南地域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새롭게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百濟가 樂浪과 驪鷄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溫祚 13년 河南懶禮城(夢村土城)으로 도읍지를 옮긴 이후, 남한산성을 비롯한 城南地域은 南의 馬韓, 北의 樂浪과 驪鷄을 대

34 百濟의 初期 鐵城에 관한 研究

적하는데 있어 군사전략적인 요충지로써 지역적 위상이 강조 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城南一帶의 지리적 잇점은 결국 百濟가 고대국가로 성장 발전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文周王 元年(475년)에 百濟가 高句麗의 남진에 의해 熊津(公州)으로 천도하면서 漢城時代를 마감 할 때까지, 약 500여 년간 城南地域은 百濟 수도에 접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써 의미가 주어졌을 것이다. 이는 곧 城南地域이 기원을 薦한 시기에서부터 5C동안 韓半島 中南部의 어느 곳보다 선진문화를 소유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魚 順 英

(城南文化院 理事)

全 在 烈

(城南市 建築 審議委員)

〔目 次〕

1. 序論	3-2. 무대 시설 空間
1-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3-3. 公演場 分析
1-2. 研究의 方法	4. 公演場 施設 基準 設定
2. 民俗 놀이의 特徵	4-1. 무대의 規模
2-1. 民俗 놀이의 紀元	4-2. 시각적 條件
2-2. 民俗 놀이의 形態	4-3. 음향적 條件
3. 公演場 空間 分析	5. 結 論
3-1. 무대 및 계석 空間	参考文獻

1. 序 言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에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법의 마련으로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뜻 있는 분들에 의해 민속분야가 발굴, 재현되면서 오늘에 이르나 안타까운 일은 민속놀이의 재현 및 발전을 위한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 민속예술이 연기자와 관객과의 구분이 거의 없었던 공연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식 일반극장에서 일부 공연됨으로써 전통형식을 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¹⁾

이에 우리의 삶실민속공연장을 설립해서 국민 모두에게 재현, 공연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려주므로 더 큰 발전 및 보금이 되 따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²⁾

통상 민속놀이라 함은 일반 대중의 공동체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 전승되어 온 인간의 습속을 내용으로 한 토속적인 놀이³⁾를 말하고, 그 종류는 현재 120여 종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현 우리전통 민속놀이 공연에 가장 적합한 무대 및 관람석의 규모와 무대시설 공간의 기능문화의 척도⁵⁾를 조사, 분석하여 원형에 입각한 민속놀이 공연장의 시설기준

1) 실무설, 민속극의 무대공간 : 꿈간 74/6, p.36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탕작한 민속극장은 옛 그대로의 들판도 서구 근대극형식의 무대도 아니다. 우리 극을 재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2) OLYMPIC 유치 등으로 야외 민속극공연장 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됨

3)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예술사전, 공연예술업서5, 1979, p.9.

4) Ibid.,p.14

5) 과거 야외, 놀이터, 마당, 공터 등에서 공연 됨으로서 천막들이 고작이며 One-Room-System으로 배식 가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 (1) 민속의 기원 및 구성요소상의 특성과 민속놀이 형태를 알아본다.
- (2) 이제까지 공연장 구성요소인 관객, 연기자의 접근관계 및 과거 민속놀이 공연장의 형태와 현재 세워진 아의공연장 및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 및 공간을 조사·분석하고,
- (3) 상기 조사 및 분석에서 공연장의 공간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유추하고 시각 및 음향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설기준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2. 민속놀이의 특징

2-1. 민속의 기원

1) 발생적 기원

신인용함에 그 기본 이념을 두고 발전해 온 민속⁶⁾은, 이를 표현한 것이 음주기무와 계천의식⁷⁾인데, 이는 동양 사상의 오행설이나 음양설⁸⁾에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다.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기악, 신라의 황창무, 처용무

6) 유통식, 한국부교의 역사와 구성, 연대 출판부, 1975년, p. 58

7) 김파철, 조선민족사, 민학사, 1974, pp. 11~39.

8)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에서 7, 출사위, 1981, p. 256

9)

10) 유통식, op. cit., p. 60, p. 72, p. 259에서 양성적·음성적·변증법적 전개로서 과정을 설명

* 문화예술진흥원, 무형문화재총람, 민학사, 1975,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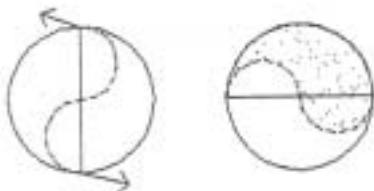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민속예술 제1집, 1978, p. 167.

11) 유통식, Ibid., p. 60.

4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등과 조선조의 산대감회 및 나례감회로 연결¹²⁾된다.

또한 극적인 효소는 무교사상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대부분의 민속제례 행사는 원시때부터 삶의 표현이었고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창조이었다.¹⁴⁾ 즉 민속제례는 그들의 종교의식인 동시에 원시예술이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기원 형태가 태극의 형태를 띠는 것은 동양적인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데, 이는 대부분의 종(개인별 혹은 군무형태)이 태극의 모양을 그리면서 표현되는데도 깊은 연관이 있다.¹⁵⁾ 동상 우리가 말하는 무형문화란 그 기원에 있어 무교와 관계되어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¹⁶⁾(그림 2-1, 2-2, 2-3 참조)



한 명 속
양주산대놀이 춤사위 연구
p. 54

(그림 2-1) 양주산대놀이 2인 춤의 풍선자취

12) 문화예술진흥원, 궁연예술집서7, op.cit., p.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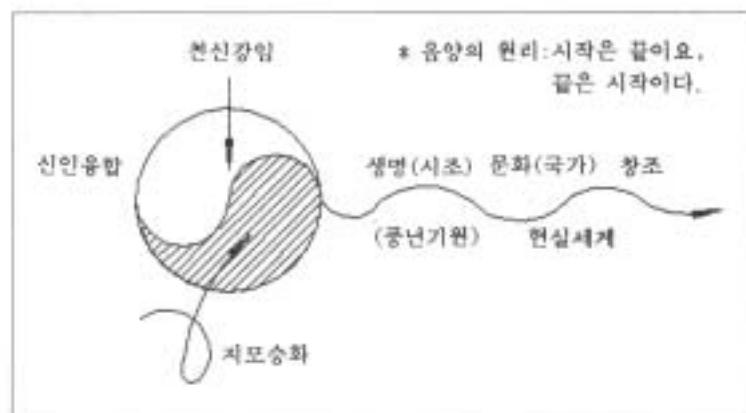
한명숙, 양주산대놀이 춤사위연구, 이대대학원, 1982,p.51

김홍우, 연극원리, 풍행사, 1982, p. 17.

원시 극적 무용에 속해 있던 언어는 후에 문학화되어 가고 음율은 음악으로 동작은 무용으로, 변형되어 이것이 종합화되므로 연극을 형성하게 된다.

13) 김홍우, op.cit., p. 17

한국의 민속문화, 한국문화 SERIES, p. 112.



(그림 2-2) 고대민이 지녔던 신앙구조

— 류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현대출판부, 1975년, p. 60.



(그림 2-3) 무속의 변천 및 전개

— Ibid, p. 74

2) 민속놀이의 특성

① 공연 형식상의 특성

공연 형식상의 특성은 주로 극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3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내용의 선택과 변형에 의한 비자설주의의 원리이고, 둘째는 그 흐름에 있어서 비연속성이 있고, 세째는 공간적 차이와 기리를 축약시킴으로써 통일한 무대공간, 예술현실 속에 나타나는 동시적 진행¹⁴⁾ 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무대공간상의 특성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무대는 예전에는 마당이나 빙터였으며, 현재에도 애의 공간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질 때보다, 그 성격상 방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원형 공연장에서는 사방에 관객이 있으므로 무대 장치가 거의 필요없으며,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이용하였다. 무대 구조물의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극중 장소의 임의성, 놀이관의 가변성 등을 가져 올 수 있다.¹⁵⁾

③ 연기적 구성요소의 특성

민속놀이의 구성요소는 춤(Dance), 말림(Mime), 대담(대담:Text), 노래(창:Song)를 들 수 있다.¹⁶⁾

④ 춤사위의 특성

무당춤(제), 탈춤, 농무 등은 처음에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 풀어가는 이른바 내향적 동작 구조와 외향적 동작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원시적 동작에서 대등, 무한대로 변화되어 흥을 일으키는 즉흥적인 요소(인간적 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구조는 독립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14) 최 술, 전통극의 무대공간, 창작과 비평, 1974. 여름, pp. 354~363

15) 장한기, 신야사, 1975, p. 159.

16) 탈춤가을 합동공연 캠프不太好 1982년

공연예술연서, 공연사진, p. 14

중국 경극은 창(소리), 고(몸짓), 험(대사), 타(음악)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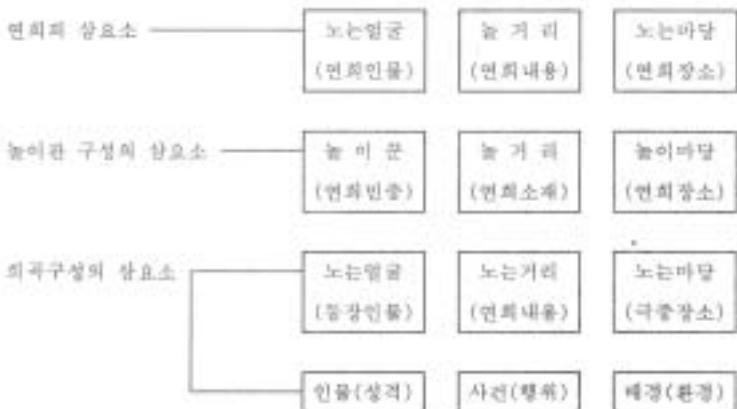
시 음화되어 춤의 맥을 형성하며 원막적으로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한다.¹⁷⁾

탈춤 동작의 생성 요인을 보면, 원형 무대로 인해 생성된 동작, 지방적인 기질, 무술적인 동작, 무속적인 영향 등을 알 수 있다.¹⁸⁾

또한 춤추는 자의 신분과 성격 그리고 의상에 따라서 그 춤의 성격과 형식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다.¹⁹⁾

2-2. 민속 놀이의 형태

민속놀이를 위한 연희의 3요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가면극의 연희의 삼요소 - 희곡과의 비교

17) 문예진흥원, 공연예술업서7, op.cit., p. 256.

18) 한명숙, op. cit., p. 56.

19)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회, 유신훈화사, 1982, p. 15.

3. 공연장 공간 분석

3-1. 무대 및 객석공간

[1] 공연자와 관객과의 관계

연극의 예술적 구성요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요소가 언제 어느 때고 연극에는 있어왔다. 이것이 다른아닌 공연장소와 공연자 및 관객인 것이다.¹⁸⁾ 이러한 언급과 같이 공연장소와 공연자, 그리고 관객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동양극과 서양극, 그리고 한국 민속극에 있어서 관중의 참여정도와 관심의 요소를 알아 보고, 그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연장 형식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구체화됐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⁹⁾

지역극	성격	요소	특징
한국극	관객이 극에 대해 적극적임.	춤, 노래, 동작, 재담 등	감성적 공동체의식
동양극	관중의 참여가 자연스러움,	춤, 노래 등 Spec-tacle적 요소	중간적 특성
서양극	무대와 관객의 구분이 명확함.	Plot의 전도	이기적 상대성과 독관성

특히 서민에 의해서 서민을 위해 행해진 민속극에 있어서의 관객의 참여정도는 민족성 혹은 민속극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호 공간을 형성한다.

동양에 있어서 그 규모와 상황 적용에 의해, 일본의 가무기(가-Song, 무-Dance, 기-Action), 능(Noh) 등에서는 CHORUS를 통해서 관객의 간

18) 김유택, 한국전통연극과 그 고유무대, 개문사, 1978, p. 26

19) 명언사, 한국가면극과 동양연극의 비교연구, 미대대학원, 1979, pp. 69~74.

접적인 참여가 있었고, 중국은 단지 반응만 보일 정도이나 한국의 민속무용, 극 등에서는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로 어울려 추임새, 상대역 등에 의한 일체화를 볼 수 있다.²⁰⁾

서양에서도 관객의 수용, 능력, 회망 정도는 배우의 연기뿐 아니라 극의 성격까지 결정해 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객과 연기자와의 관계는 적접적으로 무대와 객석의 접속 관계로 나타난다고 본다.²¹⁾

[2] 무대와 객석의 접속관계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구체화된 예가 무대와 관객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서구에서도 무대의 형태, 위치, 이용 등은 반세기 동안 연극관계자들의 커다란 관심이 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탈리(Italy)형 무대는 삼세기 동안 극장을 지배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강렬한 반발이 생겼는데 이는 무대와 관객의 접속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²²⁾ 즉, 관객의 교간과 참여라는 관념, 즉 양자의 공동참여의 성격이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 무대의 위치와 형태가 변화한다.

중국의 경극 극장이나 Elizabeth시대의 Shakespeare의 극장의 예를 보면 이 극장들은 관객석의 기본 구조가 최고의 친밀도를 얻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민속무대와 관객공간

한국의 전통민속 무대공간은 여기에서 대상으로 채택된 6가지 놀이 중에서 농악, 민속무용 등은 마을의 큰 마당 등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거의 기

20) Richard Southern: *The Seven ages of the theatre*, London:Fabor & Faber, 1962,에서 세계연극을 7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3단계와 4단계 단계에 해당 된다고 본다.

③소규모의 간단한 것으로 종교적 의식이 세속적인 단계로 변천하는 과정 ④ 무대는 발행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건축물속에 수용되지 않는 단계

21) Robert's Vern.M On Stage, A history of theatre, New York Harper & Row, 1962, p. 490.

22) 김유택, op.cit., p. 27.

복상으로 남아 있지않고, 주로 가면극 공연장과 납사당 놀이판 정도가 문헌조사나 사례조사에 나타났다. 이러한 불리적 형태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① 공간구성상의 동선관계 : 관객과 공연자 출입구, 관중집결 등
- ② 공간구성상의 위치관계 : 무대, 관객, 개복청(공연자 특기 및 도구 보관)
- ③ 공연수용상에 적절했던 원형 측정

3-2. 부대 시설 공간

민속극 공연장에서는 부대시설 공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달막(개복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내체로 보면 공연자가 옷 갈아 입고, 악기, 사물들을 보관하는 행위가 일어난다. 한편에 포장을 쳐서 개복청을 내고, 또 한편에 차일을 쳐고 거기에 자리를 할아 삼 현청을 내고 개복청에서는 탈군들이 말과 복색을 걸치며, 삼현청에서는 짤이(악사)들이 삼 현육자를 쳐서 출에 반주를 한다.²⁵⁾라는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산대놀이에서는 한 사람의 등 끝이 한 과장²⁶⁾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는 출입구가 삼현청 앞에는 없고, 개복청에서 무대로 들어오는데 있기 때문이다.²⁷⁾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복청의 크기는 보통 1.8평(민 속촌의 경우)에서 2.5평 정도까지 나타난다.²⁸⁾

하지만 현재 부대시설의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면 개복청은 회상의 보관실, 공연자의 분장실, 소도구의 준비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리 및 위생공간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5) 한명옥 op.cit., p.6.

26) 축파산대놀이 연극대본 : 축파산대놀이 보존회, 1982, p. 24.

여기서 마당이란 의미는 전통적인 텁출 12마당 구성에 바탕을 둔 것이며, 과장이란 마당극의 내용을 서구극적인 막, 장 구성법에 근거를 둔 것.

27) 한명옥, op.cit., p. 36.

28) 전통 가설 TENT를 이용함.

(전통 민속극 공연장 조사)

탈출종류	무대의 위치	악 사 식	색	무대의 규모	공통점
태서탈출 (복부)	높이차 (30cm정도)	탈판의 앞쪽 개복청(좌측)	화려한 의상	살화를 참조하면 큰규모로 생각됨	배경부
산대높이 (중부)	경사진 곳 (10cm 정도)	개복청(좌측) 삼현청(우측)	검잖은 색	1 = 8~10m 정도	주로 야 간에 연 기
야 유흥 (남부)	평평한 곳	사무실 앞 악사석(전면)	검잖은 색	큰방식 4닢정도 (약1.7 3.0/1.8)	
오 쟁 대	평평한 곳	선악사(전면) 관례석	검잖은 색	큰 방식 5~6닢 정도	
남사당폐 한 곳	약간파인곳 또는 평평 한 곳	선악사(전면) 관례석	화려한 의상	2칸방식 6닢 정도	

3-3 공연장 분석

1) 전래 전통 공연장 분석

- ① 연기자출입장로만 남겨놓고 거의 관중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²⁹⁾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인원수에 제약이 따름 즉, 평지에서는 관중의
박이 5인 정도로 한정되므로 무대 및 객석공간이 제약을 받으리라 본다.)
- ② 무대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 겹으로 관중석에서 가시의 불편 및
관중석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인한 소음발생률이 높으리라고 본다.³⁰⁾
- ③ 공연자 수가 가장 많은 남사당의 풍물 놀이판이 12m의 직경을 갖는

29) 원형 경기장이나 반원형 돌출 무대와 비슷

특징 : ① 무대의 배우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작적 또는 ??적 ?과

② 연기자와 관객의 밀접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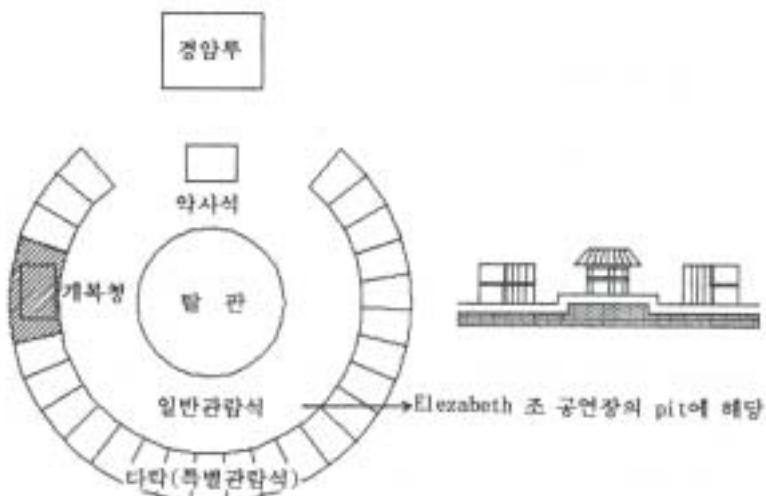
30) 지방중심의 공연이 도시로 나오므로 경사진 자연지형을 구하기 어려울 때
라 구조물의 형태를 갖추기도 함.
본 계획안은 인위적 경사를 무도록 한다.

12.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것으로 보아 과거 놀이관의 규모 추정의 근거가 되리라 본다.

2) 현 공연장 분석

- ① 무대 규모 및 공연장 형태면에서 놀이 종목 수용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 ② 가시선 및 부지 선정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 ③ 개복청 시설의 미비로 인해 공연자와 기존주위시설 이용 등에 따라 보행동선이 길어 진다.
- ④ 외관 처리상의 재료, 분위기 등이 거의 고려가 안되었다.(그림 3-1, 3-2 참조)



(그림 3-1) 풍산탈춤의 놀이관
이두현 한국가전극(일지사, 1979), p. 243

조사 사항	한국 민속촌	국립극장	경동교 회 옥 외 공연장	드라마센터
I TYPE 분석	관중석 			
2 무대면적 (m ²)	254.5(65평)	435.6(132평)	42(12.7평)	191.4(58평)
3 관중석면적 (m ²)	347.3	525		136.5
4 관중 수(명)	800	616		390
5 높이의 종류 (수용가능높이)	민속극, 농악굿	민속극, 농악굿	일반연극, 민속극	일반연극, 민속극
6 관중석의 높이(cm)	30	20	31	42
관중석의 폭(cm)	85	100	76	49
7 계단의 높이(cm)	30	30	15	20
계단의 폭(m)	86	100	48	42
문제점	무대규모의 협소함, 개복정 규모 협소함, 가시선 양호,	무대형이 공연 형태에 부적당 개복정과의 연 결문제(동선이 질다) 객석크기 절정 제한도, 가시선의 문제	바닥재로 처리 의 문제점, 공연 수용 규 모의 협소,	고대와 근대의 화합형, 소규모 공연에 적당함. 실내극 장으로 인한 조명·객석 구 체가 급함,

(그림 3-2) 공연장 조사

4. 공연장 시설 기준 설정

4-1. 무대의 규모

무대는 놀이형태 관찰 및 분석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며, 무대의 조건은 평지 무대로하고 각 종목마다 최대범위와 일반범위로 분류하며, 실제적인 측정방법은 공연 및 연습시의 측정, 문헌조사 및 증언 등을 통해 설정하였다.

(1) 놀이 행위에 따른 범위

(1) 놀이형태의 가변성이 거의 없는 경우

종 류	공연범위	인 원 수	비 고
굿	$\ell \approx 10m$	악사 5~6명, 무당 1명, 들리리 4명	원보다는 좌우측이 고정된
관소리	$\ell \approx 6m$	창연 1명, 고수 1명 정도	위치를 떠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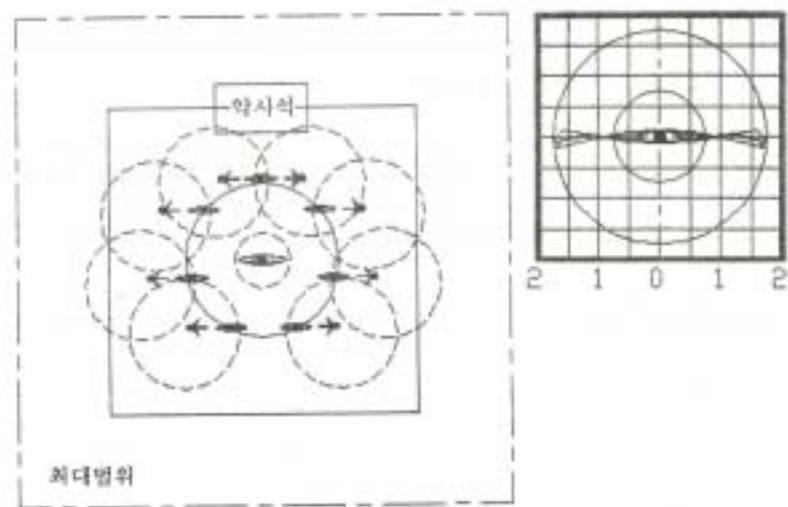
여기서는 놀이의 범위가 거의 일정 하므로 무대상의 위치에 있어 변화를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이러한 형태는 최대범위와 일반범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놀이 형태의 가변성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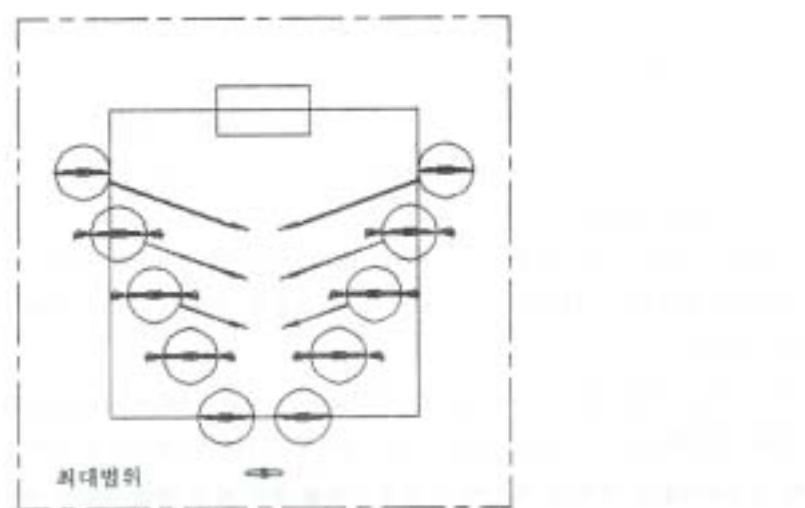
1) 가 면 극

가 면 극	지역별	공연범위	인원수(과정별)	비 고
북 부	$\ell \approx 4\sim 12m$	10~13명	주로 중앙에서 행위가 일어난다.	
중 부	$\ell \approx 4\sim 12m$	9 명	보통 악사식을 대활한 방향에서 극이 형성되며 악사는 관중의 입장	
남 부	$\ell \approx 4\sim 10m$	8 명	중부 형태는 원의 형태, 군무의 형태 각 극마다 옆드리고 있는 장면	

놀이 형태를 신축하여 최대범위를 설정한 예이다.(그림 4-1, 4-2 참조)



(그림 4-1) 봉산탈춤 연기의 범위 0 1 3m



(그림 4-2) 강령탈춤 연기의 범위

16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2) 농 악

	공연종목	공연범위	공연인원	비 고
농 악	남사당놀이	$\ell \approx 15m$	21 명	농악은 악기의 음색을 갖추기 위해 15, 21, 24, 30명의 등의 출연자 수를 갖춘다.
	일반 농악	$\ell \approx 18m$	24 명	농악은 놀이의 형태가 다양하다.

3) 민 속 무 용

민 속 부	공연 종목	공연 범위	출연인원	비 고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ell \approx 12-18m$	30 명	주로 손을 잡고 춤
	승전부	$\ell \approx 10m$	5 명	연기자의 일체감 조성

[2] 무대의 범위 설정

인원수에 따른 각 놀이 범위를 조사해본 결과 원의 형태를 띤 춤과 동작이 위주이며 상기 도표의 공연범위내에 잡히는 것을 알았다. 경험치로 민속촌의 경우, 무대는 최초 $r \approx 7.5m$ 로 하였으나 가면극, 소규모 농악 이상이 것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아 성토시켜 $r \approx 8.5m$ 로 하였으나 농악 24명 일 경우를 측정해본 결과 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인 수치 및 측정치를 무대규모의 최소로 하고 이것을 토대로 객석 좌전열의 한계를 가시각으로 잡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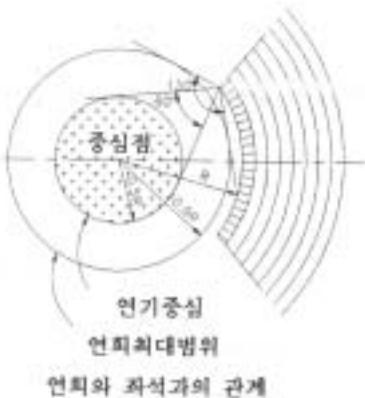
무대 중심에 시선의 한계를 중 좌후열 관객석까지는 야외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공 간적 차원에서 시각각 및 음향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키도록 한다.

민속촌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로서 평지무대를 많은 사람이 둘러싸므로 공간이 밀집해 보이고 과거 공연이 주로 평지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수평축이 강조되었음에 비해서, 객석에 인위적 구배를 줄 때 따라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다.(시각, 공연에의 열중, 음향, 관중의 질서) (그림 4-3, 4-4 참조)

4-2. 시각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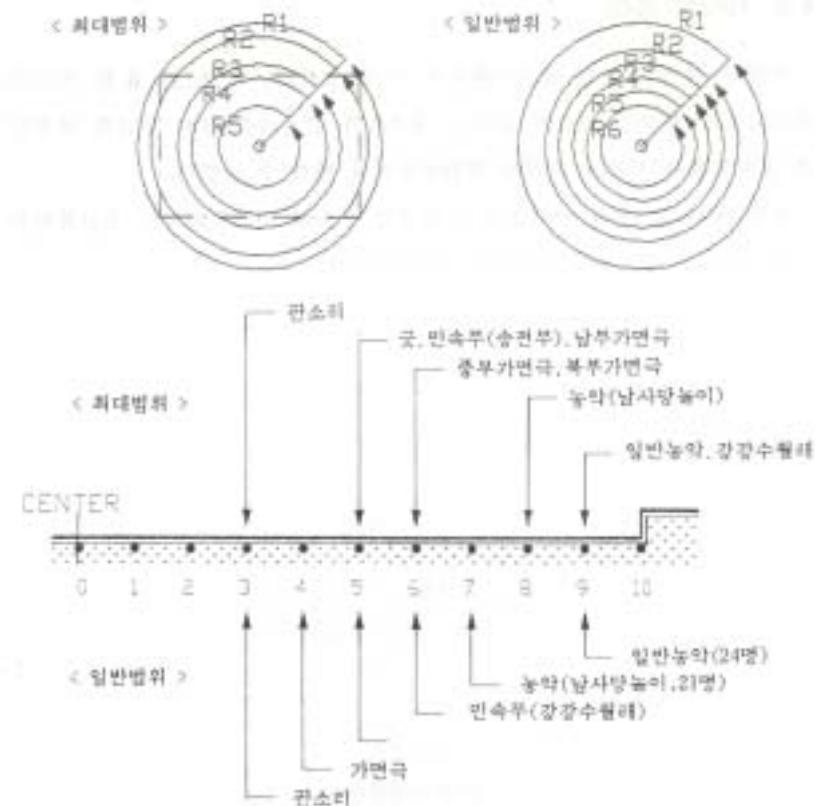
무당의 신들린 듯한 얼굴이 만든가, 악사(재이)의 악살스런 표정, 가면극 공연자들의 한심을 휘말아 옮기는 깨끼춤과 덧배기춤 등8) 우리의 무형문화 공연무들이 시작적 측면이 강한예술이라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동작 및 몸짓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소산물임을 고려 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그림 4-3) 무대범위설정관계
NEUFERT ARCHITECTS' DATA, p. 349
최전열 책석범위 설정을 위한 시양국

10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m	놀이종류	최대출연인원	특 징
R1 9	일반 농악 강강수월례	24 30	춤·음악
R2 8	농 악	21	춤·음악
R3 6	북부가면극 중부가면극	13 8	춤·대사 노래·체험
R4 5	굿. 승 전 무. 남부가면극	11 5 8	춤·체험 노래·대사
R5 3	관 소 리	2	춤·창

m	놀이종류	최대출연인원
R1 9	농 악	24
R2 7	농 악	21
R3 6	민 속 무 (강강수월례)	30
R4 5	굿	5
R5 4	가 면 극	4-8
R6 3	관 소 리	2

〈그림 4-4〉 혈대분석도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지각각 측면의 여러 각도(시야각, 가시거리, 간각적 영역)의 분석을 통해서 높이 범위와 최대 한계로부터 (무대범위의 최소) 최전열 및 최후열 백석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무대범위와 연결시키며 적당한 공연장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야외공연장이 뒷에 따라 외부공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1]가시각

(1) 시각의 원리

한쪽 눈이 수평선에 대하여 보여지는 범위는 외측으로 940, 내측으로 620가 되는데, 이 중 안면의 중심 측에서 좌우로 30 ~ 60도 좌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유효되는 인지 공간이다.¹⁷⁾

대상물에 있어서 D / H 이론을 살펴보면, 외부 공간에서 본 건축물에 있어서는 1:2~1:3(시각 30~18도) 정도는 되어야 그로 인한 실리적 압박감이 생기지 않게 되며, 이것은 건물 사이의 간격을 건물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자연경관을 통일된 화면으로 인지할 때 시선의 방향은 하향각 0~30도가 최적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상기 이론에 따라 보면 풍상 야외 공연장 계획에서 관중의 입장에서는 중심 수평축에서 상부의 시선보다는 실제로 하부의 시선이 (하향 0~30도의 범위, 15도 적당함) 좋으리라 여기자며 연기자의 입장에서도 연기자가 무대의 전 범위를 이동할 경우도 18도~30도(27도가 적당)의 상부 범위를 넘지 않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본다.

[2]가시 거리

상기에서 민속극을 시각예술이란 관점에서 보아 전경에서 가시각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 바, 본 절에서는 관객과 가시거리 한계를 설정, 반영하려고 한다.

여러 공간 이론가들의 관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한계를 잡기

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철에서는 이를 수치의 공통점을 찾아서 적용의 타당성을 기하려 한다.

(1) 갑각적 영역

인체를 중심으로 한 갑각체는 오감으로 외계의 조건을 수용하는데, 이때 조건의 강도, 위치, 거리, 공간정도에 따라 지각되는 정보가 규정된다. 보통 갑각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간격(Spacing)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해 방식에 기초하며 E.T.Hall은 생활 활동에 있어서 인간 상호간의 거리 영역인 10m 이하인 치수에 대해서 일정, 개인, 사회, 공중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충시설의 배치나 외부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인간 상호간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외부공간에서는 통상 60m를 중심으로, 이것을 변곡점이라 지칭하는데, 60m 이내이면 사람에게 가까운 쪽이 거리의 식별에 용이한데 60m를 넘으면 반대로 멀리 떨어진 쪽이 거리 식별에 유리한다고 한다.

180m 거리가 되면 남여의 구별이나 신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상기 이론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이론상으로 나온 60m의 1/1.6(약 38m정도)으로 가시거리를 짧아야 피실험자들의 반수 이상이 사물을 구별 할 수 있다고 한다.]

(2) 가시 거리

외부공간에 적용되는 예를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상호 관계로 나타난다.

- ① 외부공간을 만들고 있는 물적 환경의 분석
- ② 물적 환경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받는 사람의 반응
- ③ 물적 환경과 받는 쪽과의 상호작용의 실태분석

SPACE	범위번호 (Zone No.)	범위 한도 (Range Limit)	비고
LOCAL	0	0~1.8m	회화에 가장 가까운 거리
	1	1.8~4.5m	표정 식별 가능
	2	4.5~10.5m	얼굴 식별 가능
	3	10.5~24m	
	4	24~30m	
TRANSITION SPACE	5	60~135m	광장내 좌석등자 가능
	6	135~300m	사람의 인식 가능
	7	300~750m	4500m는 무한히 넓은 거리
	8	750~1800m	
	9	1800~4500m	
	10		

이상과 같은 치수를 종합하면 얼굴을 식별 할 수 있는 거리는 10.5~24m까지의 다양한 범위로 잡히는데 공연의 종류에 따라 가시거리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연장의 경우 무대의 가시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① 관객석의 거리가 무대에서 가까울 것
- ② 천열의 관객 머리가 방해되지 않을 것.
- ③ 내려다 보는 각도가 너무 급하지 않을 것.
- ④ 관객석이 무대의 중심선에 가까울 것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 바에 의해 이러한 수치들에 행동적인 의지와 공연시 내용규모를 고려한다면 공연장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리라 본다.

[3] 공연장 시지각적 기준설정

- ① 가장 큰 요인으로 자연의 영향 (건물이 밀집 짧수록)을 들 수 있으므로

2.2 韓國 民俗 公演場 設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로 자연을 내지 경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식수와 자연의 재료 처리를 하여, 도시속의 구조물이 되나 외관 자체가 하나의 조망의 요소가 되도록 한다.

- ② 지각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심리적 효과를 만드는 절보 수용법칙으로 대상과 인간과의 거리와 시야 (각도가 하나의 기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심리적 공간양이 변화되리라 본다.
- ③ 색 구별등 시각의 범위에서 눈의 가시의 범위를 고려하여 좌우 중심축에서 30도~60도의 한계를 잡아서 야외 무대의 시야폭을 설정 해준다.
- ④ 수직 시야각은 통상 입위 일때 하향으로 10도가 적치고, 않은 좌위 일 때 15도의 할 시선이 되므로 본 계획안에서는 앉은 자세(좌위)를 고려해 15도 하향이 되는 선에서 시선의 집점이 잡히도록 책석처리를 하도록 한다.
- ⑤ 계획안에서는 남측으로 자연 경관을 도입해, 연기자가 무대의 여러 범위에서 가시 할 경우 수직상하각이 30도 이내로 잡히도록 고려한다.
- ⑥ 얼굴 식별 한계는 공연장에서 20m정도를 이상적 거리의 한계로 잡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에서는 민족 공연시 표정및 몸의 동작들을 구별하기 위한 연기의 중심으로 본다면, 그 중심에서 최후열 책석의 범위를 20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⑦ 공연장의 최대 거리가 40m 이내로 정해진다면 상호 인식이 가능하며, 서로를 부를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인식이 가능 하겠다.

4-3. 음향적 조건

음향 문제는 야외 공연장에서는 1차 반사음(1/20초 이상의 시간차를 둔 음)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관중석 및 주위소음의 문제 음원에서 직점 음이 전달되므로 음의 감소율을 고려해서 벌위설정을 하여야 한다. RMS(root

mean square)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관소리의 경우는 원음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 70~80db 정도가 유지되며 악사들의 연주시 소리도 보통 100db 까지 유지되어 Mike 사용이 필요없겠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면극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면(탈 — 마분지, 목, 바가지 등의 부재)의 흡음 까지 고려하면 더 작아진다. 보통 Wireless 마이크를 사용하여 공연하고 있다.

[1] 음향계획의 조건

- ① 음이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 ② 공연장 및 관체에 음이 Energy가 균등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 ③ 음이 명료하여야 한다.
- ④ Orchestra 각 악기의 음이 Balance, Blend가 좋고 암상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Echo나 Focusing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⑥ 소음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상기의 일반적인 음향목표를 야외 공연장의 기준에서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음의 충분한 크기 (Energy) 확보를 위해 확성기(Amplifier)설비를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② 음의 성질상 음파는 구의 표면적 $S = 4\pi r^2$ 과 같이 퍼진다. 점음원에서 출발하는 구 음파(Spherical Wave)의 음압을 보통 거리에 따른 음압파의 (Sound Power Level) = $20 \log_{10} D_2/D_1$
- ③ 음의 명확도는 외부의 소음 정도가 음원에서의 소리와 (5dB 이하) 하면은, 소리의 명확도는 멀어져 관객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 10dB의 증가로 음은 2배로 들린다 통상 음원에서 오는 음보다, 주변의 작은 소음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 ④ 야외에서는 잔향 시간 및 잔향특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24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 ⑤ Echo 현상은 반원형 그라스 야외극장통 대규모 공연장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야외에서는 바람과 온도의 변화도 음선 (Sound Ray)의 선로를 방해하여 음 에너지의 분배를 크게 수정 시킨다. 따라서 소리의 속도는 음속심풍속으로서 VECTOR SUM을 갖는다. 통상 연설, 음악 등의 파장의 유입은 온도, 상대습도, 음파의 진동에 의존한다.

(2) 소음 및 소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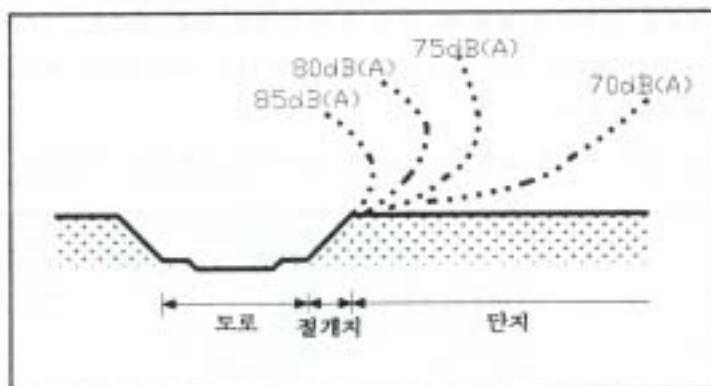
야외 공연장 음향계획시 중요한 것은 소음처리 문제로 이는 이제 까지의 연구가 실내음향에 주의가 집중된 아래 여기에 대한 연구가 변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³⁵⁾

특히 현대 사회의 소음공해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소음은 대체로 물리적인 특성 가운데 그 강도에 위하여 좌우되는데 야외 공연장 계획이 담에 따라 소음 문제에 관한 사항 및 처리 문제가 중요하리라는 관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한다.

- ① 지상 공중교통로 부터의 분리
- ② 자연적 경사로서 모든면을 둘러싸는 언덕 (무드롭게 경사진 대체)
- ③ 인공적인 방풍막(Artificial Embankment)
- ④ 밀집된 수풀들이 있는 장소
- ⑤ 풍속은 10Mile/h 이하가 되는곳
- ⑥ 소음 레벨(Level)은 40dB이 초과 하지 않은곳

(3) 공연장 음향기준의 설정

- ① 본 계획안에서는 원형무대에서 음과가 구의 표면적 ($S = \pi r^2$)과 같아 평지므로 음이 균등하게 전달된다고 본다.(그림 4-5. 참조)
- ② 실제로 본 계획안에서는 관객동선의 유입이 자연스러워 사람의 음성에 의한 발생이 기대되어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에 범위로 넣는다면 식수대 설치시는 내, 외부 상호 차단작용이 기대된다.



(그림 4-5) Open Cutting에 의한 소음효과
* 자료 : "Building Research Station". Current paper 20.

대기 내 소리의 명료도 시험 (Articulation Test)은 음질의 명료도의 기준은 100개의 Speech Sound를 외칠 때

85 %	매우 양호
75 %	만족
65 %	거의 만족할 만하다.

여기서도 풍향의 영향은 커서 연설자 주위의 모든 방향에서 연설의 이해도를 감소시킨다.(보통 음속 5~10 Mile/h 이하정도인 곳이라야 함)

또한 관중 점유율이 높을수록 음의 침투율이 높다.

관중에 전달하는 음의 레벨이 Seating Area Slope와 Sound SOURCE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리의 전달상에는 단지(Site)의 고저에 따라서 앙개와 구름의 음 차단 효과도 고려한다.

- ③ 실제로 소음 크기가 문제 되는데 삼기의 소음 및 소음처리 문제는 야외 공연장 대지(Site) 선정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음원 자체에 대한 처리와 인위적 대책이 가능하다고 본다.

26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④ 소음을 고려하지 않을 때 적합 음의 크기는 음원으로부터 18m이내가 적당 하다고 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범위가 정해지리라 본다.

다음은 상기 조건을 종합하여 정리한 기준이다.(그림 4-6, 4-7참조)

분석요소		형태				
무대구조	접촉정면설	△	◎	○	◎	○
적인 면	가사선상의문제	△	○	△	○	△
	방향설	○	△	△	△	○
공연형식	사설적 연극	◎	△	×	×	×
적인민	환상상징적연극	×	○	△	◎	○
가변성	연기자 출퇴장	△	○	○	○	△
	공연 면적	×	×	△	◎	×
	공연 장소	×	×	×	○	×
	연기자	×	×	△	○	×
	관중집여도	×	△	○	◎	△
일체감	집단설	×	△	○	◎	○
	공통설	×	×	○	◎	○
	현장설	×	△	△	◎	△
	생활설	×	×	×	○	
	계의설	×	×	○	◎	○
민족극	오락설	△			○	
	기능문화정도	◎	○	×	×	△
기준	조명효과정도					

◎: 아주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그림 4-6〉 일반적 기준에 따른 공연장 분석

현대						
분석요소						
무대설비	기능 문화	◎	○	○	×	△
	조명 효과	△	○	◎	◎	◎
	연기 자	△	△	◎	◎	○
	무대시설 설치	○	○	○	△	△
시각적	가시각	×	○	◎	○	×
	가시거리	×	○	◎	×	×
관중밀도 조정	PRIVACY문제					
	연기 자	◎	◎	◎	×	○
	관중	○	○	○	×	○
음향적	소음조절	○	○	△	×	×
	공연 여부	○	○	○	×	
	ECHO 발생여부	○	○	○	○	×
환경계획	기후에 대한 적용	◎	◎	×	×	×
	음영 처리	×	×	○	×	△
	접근 편의성	○	○	◎	◎	○
기준	대지 선정 기준	○	○	△	△	×
	높이 원형 형태	×	○	◎	○	△
	면적제한과 가중여부	△	△	◎	△	△

◎ : 아주 좋음, ○ : 좋음, △ : 보통, × : 나쁨

(그림 4-7) 민속놀이 기준에 따른 공연장 분석(민속극 공연시 기준)

5. 결 론

최근에 한국의 풍물 및 민속놀이를 위한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는 민속공연에 적합한 공연건설물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미흡하거나마 민속공연에 합당한 건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속은 그 기원을 무교(무속신앙)에 두고 있으며 변천해 오는 가운데 음양 및 오행의 원리(예 놀이 동작, 의상의 색, 조성, 인원수, 음악의 원음 등등)가 작용 했음을 알 수 있다.
- (2) 각 지방의 놀이 형태는 그 지방에 따른 기질과 무대형태에 따라 성장된 동작 등, 형상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때로의 신분과 성격 등에 따라 행식이 달라져 보인다.
- (3) 과거 공연장 조사와 분석의 결과, 과거 공연장이 ① 푸렷한 형태를 띠지 못한점, ② 규모규정의 불분명함, 현재 몇곳의 야외 공연장의 문제점은, ③ 관객의 시거리의 부족, ④ 무대시설 공간의 수용기능상의 문제점등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각 연구와 시설기준을 설정한다.

3-1. 무대공간

- ① 공연 및 관람 형태에 따라 원형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 ② 연기자들이 공연할 때 행태(Behavior)에 따른 무대의 규모 추정 효과 : 관소리 (2명 $r = 3M$), 일반체(국) (10~11명, $r = 5m$), 가면극 (최대 13명, $r = 4~6m$), 민속무
- ③ 공연의 크기에 따라 무대공간이 객석 공간화(주변 잔디자리) 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한다.

- ④ 무대로 통하는 통로는 출연 형식 및 출, 회장을 고려해서 2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2. 관람객 및 통로

- ① 관람객은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며, 공연의 규모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 ② 관객의 자연스런 유입을 위해 외부와 연결된 계단을 갖추도록 한다.
- ③ 가시각 및 가시거리는 외부공간 이론도입 및 공연형태에 따르며 먼저 가시거리 분석에 따라 20M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수용인원 1,000여명,(0.55~0.8M/1인) 객석에서의 수직 가시각은 15도로 한정시키며, 최전열 가시각을 130도 이내(색구별 한계 및 수평거리 범위)로 잡으며 무대 중심(Center Point)에서 $r = 10M$ 부터 객석을 배울 시킬 수 있다. 보통 연기의 중심을 $r \approx 5 - 6 m$ 범위내로 잡을 수 있으나 이는 자연스런 상대의 가시영역인 60도 내외로 잡힌다.)
- ④ 음악문제는 관중의 가청 정도 및 외부소음 문제가 중요하며, 공연장 부지 선정시 외부 소음 기준 및 그 방지책이 고려 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 가면극의 경우는 마이크를 갖추어야 하고 관소리 및 기타 악기 사용 종목은 70~100dB을 상회하며 평가해본 결과도 무리가 없다.
(보통 생음일 겨우 18M 정도로 한계를 잡음)

3-3. 무대시설 및 재료처리

- ① 무대시설은 실내에 위치하여, 문화의 출,회장 동선연결이 쉽게 되어야 하며 상설공연시(1개 공연단체 150분 ~ 180분 정도 소요) 대기실은 2개 Team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 ② 공연 천후회 연기자 분장 등을 고려할 때 분장공간과 화장실 및 샤워실 비가 필요하다.
- ③ 대기실 면적은 민속공연시 최대 30명으로 보고 1개 Team이 가지는 면적은 30m² 이상이 되도록 한다.(1인 / m²)
- ④ 공연장의 실내, 외 부재는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수목의 배치는 음영조절, 소음처리 및 휴식공간 등을 고려해 남측에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기준설정 측면에서 고찰한 본연구는 민속이론 물리적인 건축물조의 도입과정에서의 건축이론 도입에 무리가 따르나, 이 분야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공연장시설 설정과정에서 공연단체 및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 분석하여 이를 건축 각론적인 차원에서 해결 하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예술연서, 민속예술사전, 1979
2. 조동일, 한국 가면극의 미학, 한국 일보사, 1975
3.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서울 흥성신서, 1979
4. 김우택, 한국 전통 연극과 고유 무대, 개문사, 1978
5. 임학선, 한국 무용 연구 1집, "한국 무용의 연극적 요소" 한국 무용 연구회, 1982
6. 심우섭, 한국의 민속극,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5
7. _____, 야외 민속극의 극장 도입문제 「드라마」 제3호, 1972.5
8. 유동석, 한국무교와 역사와 구조, 현대출판부, 1975
9. 관립위원회, 광, 열, 음, 수, 공기와 Design, 서울 기술 문화사, 1982

10. 구자현 감수, 외부 공간과 조경 디테일, 기술 문화사, 1982
11. Edward.T.Hall, 보이지 않는 차원, 김팔문 역, 형제사, 1979
12. 안영배, 한국 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13. 윤이흠, 한민족의 전통과 과제 서울:한국민족종교협의회, 1987, pp.16 ~17.
14.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진사, 1994. p. 7.
15.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령원, 1979, pp. 24~27.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미술"
p. 612
17. 이순영, 민족문화선양에 관한 소고, 성남문화연구, 경기도 성남시, 1994
18. V.Olkundesen 외 Acoustical Design in Architectur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50
19. D.R.Payanre, Design for the stage, S.illus, Univ.Press, 1974.
20. Kenneth Macgowan and William Melnitz, The living stage
Prentice-Hall Inc., New York, 1955
21. Roberts, Vera M. On Stage : A History of the Theatre,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22. Neufert Architects'dat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 Press, 1977.

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全 寶 三

(新丘専門大學 教授)

[目 次]

- | | |
|------------------|------------------------|
| 1. 미 리 말 | 2) 개원사와 8道 사찰과
護國精神 |
| 2. 民族精神의 背景 | 3) 鮮卑精神과 삼학사 |
| 1) 歷史的 背景 | 4. 現代的 의의 |
| 2) 文化的 背景 | 5. 書는 말 |
| 3. 民族精神의 特性 | |
| 1) 碧巖 覺性禪師와 護國精神 | |

1. 머 리 말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배후도시 즉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쪽의 거대 도시와 성남, 하남, 광주를 평통처럼 두르고 한가운데에 고원지대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시민의 역사공간이요, 문화공간이다. 여기를 찾는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은 남한산성의 현재의 모습에서 그 역사의 현장인 백제문화의 영혼이나, 조선왕조와 청나라의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을 떠올리기보다는 먹거리 문화의 장소쯤으로 치부하여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고원지대(450m 정도)의 산성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남한산성의 옛모습을 찾아보면 백제의 시조 온조왕을 기리던 온왕청과 온왕묘를 모신 백제의 성산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백제의 화려하고 천만한 문화의 꽃을, 아름답고 섬세했던 400년간의 영화로운 문화의 산실이 남한산성이라는 사실을 겸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도 남한산성의 숭일전(崇烈殿;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호)에 보면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혼을 모시고 제일(祭日)을 찾아 이곳 분들이 제사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찾아볼 수 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梧厓道城)과 춘궁리 일대에 도읍을 정하고 앞산의 개념인 남한산을 성산으로 하여 중요시한 여러 혼격을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라는 그후 여기를 한산주, 한주, 남한산주라 부르면서 일장성(日長城) 혹은 주장성(晝長城)이라는 토성을 쌓아 당나라 군대를 여기서 무찌르고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여 갔다. 삼국이 격돌하던 시대에는 여기 이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흥하였고 여기를 빼앗긴 국가는 국운을 잃어 마침내는 멸망하는 과정을 밟아갔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남한산성은 우리 한반도의 중추 허리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에는 남한산성이요, 북녘에는 북한산성으로 조선 왕조시대에는 남·북산성이 수도권 방어의 국가 제일 중요 시설로서 충용청(摶戎廳)과 수어청(守禦廳)을 둘 정도로 변창한

곳이기도 하였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남한산성의 축성은 인조 4년(1626)에 백암 각성선사로 하여금 조선 8도 도총설으로 임명하여 오늘의 석성으로 2년 5개월의 역사 끝에 완성하였다. 그 후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함에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에 몽전하여 47일 동안 황전을 둑려 하던 폐왕의식의 삼정적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그러므로 여기 남한산성에 관한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수없이 나타나 있는 것¹⁾만 보아도 남한산성이 우리 민족사에 어떠한 위치였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여 진다.

본 논고는 이러한 남한산성 관계의 문헌 기록²⁾과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나라사랑의 도량인 남한산성의 호국 의승군들의 활약과 그들이 이룩한 조선팔도 사찰의 전립 배경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백암 각성선사의 호국 의지와 조선 8도의 사찰이 산성에 세워진으로 조선왕조 270년간 산성 승번제도가 유지 했 때까지의 불교의 호국도량의 역할을 수행한 남한산성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여 민족의 자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의 선비정신의 고향인 남한산성의 삼학사를 중심으로 현철사의 내력과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충절을 본받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의 소중함과 우리 선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가치관 혼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의 좋은 지혜의 셀터 역할을 하리라 본다.

1) 《宣祖實錄》으로부터 《高宗實錄》에 이르기까지 270년간 남한산성에 관한 기록은 수십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와 남한산성에 관한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사료가 된다.

2) ①朝鮮王朝實錄 ②南漢記/洪敬謙 編 ③御產致/申景灝 撰(英祖朝) ④梵字致/正祖 奉撰(1799) ⑤韓國寺刹全書/權相老 編(1979) ⑥韓國佛教史學大事典/趙明基 編(1991) ⑦傳統守制日錄/文化公報部 宗務室 編(1991)

2. 민족정신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한강은 한반도의 하리 부분을 횡으로 흐르는 큰강인 만큼 옛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패권을 다투던 곳이다. 그러므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나라는 번성하였고 빼앗긴 나라는 쇠퇴하였다.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의 청량산(淸涼山)과 청계산(淸溪山) 사이에 한강의 판현(樊川)을 지천으로 한 땅이었다. 성남은 반원면을 중심으로 전사시대와 삼한시대 즉 유사 이전의 시대는 고인들을 위시한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최초로 백제의 시조 온조왕 14년(BC 5)에 한반도의 서남쪽에 천도(遷都)의 도읍지로 정한 하남 위례성(梧厓城 토성 일대)의 땅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설제(十濟)에서 나라 이름을 떠올라 개칭한 땅이었다. 그 이후 춘궁동, 이성산과, 남한산에 도읍을 정하니, 지금의 서부면 춘궁리 일대를 중심으로 남한산성은 백제의 전성기 약 400년 간의 중심 무대였다. 지금도 남한산성 북문 밖을 고읍(古邑) 즉 고고을, 고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남한산성에는 온조대왕을 기리는 온왕정과 온왕묘가 있었다. 백제 개트왕 21년(AD 475)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창수왕의 남진정책에 밀려 충남 읍진(公州)으로 천도함에 따라 남한산성 일대는 고구려(60여년간)의 땅이 되었고, 그 세력은 충주 중원에까지 벌쳤다. 그후 신라 진흥왕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일대의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신라의 땅이 되었고, 그 세력은 평양에까지 미쳤다. 신라 문무왕 3년(663)에 한산주, 문무왕 8년(668)에 남한산주, 경덕왕 15년(756)에 한주(1주 1소경 38군 및 47현이 속한 경기도 정도의 크기)라 칭하였다. 신라는 이 땅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외교사에 등장하였고 나아가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내는 외교적 층위를 보였으며, 삼국

통일의 대업의 기초를 이 땅에서부터 쌓았다.

지금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주(廣州)라 함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한주로부터 개칭하였으니 1054년 전의 일이다. 고려 성종 2년(983)에는 치읍으로 12목(牧) 중에서 광주목(廣州牧)이 되었으며, 동 14년 12절도사를 둘 때에 광주를 불국군 절도사를 고치어 관문도(關門道)에 소속시켰다. 현종 3년에는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安撫使)를 삼았고, 동 9년 12목을 줄여 8목으로 고칠 때에도 광주목은 그대로 남았다.

조선조 세조 때는 근기사진(近機四鎭)의 좌보로 중요시하였고, 세종 때 광주에 진(鎮)을 두어 여기에다 여주, 이원, 양근, 지평, 음죽, 양지, 죽산, 파원 등을 모두 광주방에 소속시켰다. 선조 10년(1577)에 광주부(府)로 승격되어 수어사를 겸하였다. 그리고 인조 원년(1623)에는 광주유수제(廣州留守制)를 실시하였다. 인조 4년(1626)에는 남한산성을 대내적으로 쌓고 주치(州治)를 성내로 옮기었고, 불 8년에는 광주부윤(府尹)으로 되었다고 광주군의 역사를 설명하는 각종 자료는 즐명하고 있다.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이어(移避)하였고 47일 동안 항전을 한 역사를 간직한 땅이었다. 그 이후 남한산성은 수어사가 관리하던 조선왕조 시대에는 수도권 방어에 중요한 중심축으로 발전한 산성 도시였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담병(唐兵)을 막기 위하여 지금의 남한산 동봉(東峰)에 성을 구축하여 야장성, 또는 일장성이라 불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오늘의 석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왕조 선조 28년(1595)에 속조를 서두르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산성의 효세화는 조정의 큰 역사(役事)의 하나였다. 서산대사도 숭명을 아끌고 남한산성에 오른 기록을 《조선왕조실록》³⁾은 남기고 있다. 그후 광해군 13년(1612)에 다시 증축하였

3) 《直隸實錄》 卷 80(29年 9月 12日條).

고, 인조반정의 공신록을 두고 2등 공신에 책록(策錄)이 된 이관은 난(1624)을 일으키니 인조는 황급히 공주로 피신하는 끈을 치르면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조 4년(1626) 수어사 이서(李瑞)에게 명하여 다시 개축하였고, 수어청을 두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원사에는 승군 본영을 두었다. 여기 남한산성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여 백암 각성선사가 조선 8도 도총첩으로 전국의 승려들을 관찰하여 남한산성의 수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8도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호국 의승군의 정신적 도량이 되었다. 산성이 환공된 후에도 승려 370여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산성의 수비를 책임졌으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물결에 남한산성의 승번제(僧番制)가 폐지될 때까지 270년간 지속된 제도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호국 승군들의 의지가 살아 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현철사를 중심으로 한 삼학사의 정신은 조선의 충절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요람지가 되었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삼학사의 고귀한 애국심과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민족사의 우뚝솟은 준봉이다.

병자호란 이후 동, 서, 남의 3문에 문루(門樓)를 세우고, 4방에 창대를 축조하였으며 봉암외성(蜂巖外城), 한봉외성(漢峯外城), 신남성(新南城), 포루(砲樓), 돌대(墩臺), 암문(暗門) 등이 축축되었다. 설벽 주위는 8km의 견고한 석성이 되었다.

중앙의 방어체계는 5군영제였다. 즉 서울 도성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이 있고, 수도 외곽에 수어청과 총융청을 두어 내우외환(內邁外患)을 대비하였다. 남한산성은 수어청을 두어 관리하게 되었다. 수어청은 반청운동의 상징이었고, 수어사는 판서급 중신이 말았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외적의 침입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나라의 방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배청의식을 심어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며 민족주체의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

리고 민족정기를 더욱 신장시켜 폐비의 절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역사의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은 근세에까지 이어져서 조선왕조의 구 한말에는 의병운동⁴⁾(乙未義兵, 内午義兵, 丁未義兵 등)의 산실로서 남한산성의 지세를 활용하여 구국운동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19년 기미 만세 독립운동 시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1 운동의 핫불을 높이든 땅이었다. 그러므로 민족 자존의 땅 남한산성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옳게 배워야 한다.

2) 문화적 배경

남한산성은 해발 496m의 고지대로서 천연적인 유통과 수령과 수도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총림, 기이한 바위의 모습은 이 산성을 오르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평균 높이가 400~450m의 고원 분지로서 서울보다 약 350m나 높은 지리적 위치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언덕과 끝까지 형성되어 있어 천연적인 요새지이다. 서울보다 항상 4~5도가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 여름철에도 많은 도시민이 몰리는 피서지로서도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은 천연적인 자연자원과 더불어 백제의 혼왕장을 위시하여 수어장대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었다. 남한산성의 본격적 축성이래 27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문화재들이 국가의 특별 관리로 잘 관리 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산성의 승변제도를 폐지하면서 70년간 관리의 부재⁵⁾와 일제의 원자한 한민족 말살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므로 많은 문화재들

4) 廣州의 韓未義兵關係의史料는 廣州圖書와 別근의 資料인 《내가 사는 광주》(廣州文化院, 1993.12.30.) 資料 參照。

5) 남한산성의 승변제는 1894년까지 촉 270년간 지속되었고, 그 이후 남한산성은 경기도가 1963년 1월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정하면서 다시 관리사무소가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파손되어 갔다. 더우기 일제는 1907년 8월 1일 조선인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하면서, 남한산성의 많은 문화유적들을 화약고의 폭파와 함께 젓속에 묻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마저 왜곡시켜버리고 말았다. 더 나아가 남한산성은 치욕적인 땅이요, 패배의 땅이라는 자괴감에 젖게 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사관을 철저하게 싫어 높았다. 이제 역사의 긴 짐에서 깨어나게 하여 여기 남한산성을 옛조상들의 생활풍속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관찰, 탐구할 수 있는 민족정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국민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 낮은데 반하여, 남한산은 산은 높으나 골이 깊지 않으므로 낮이 깊다 하여 일장산(日長山) 또는 주장산(晝長山)이라 불렀다.

인조 2년(1624)에 당시 수어사 이서(李曙)가 책임을 지고, 측성의 공사 책임은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으로 불은사에 머무르던 백암 각섬선사를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임명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1626년에 현재의 남한산성의 석성의 모습을 완성하니 2년 5개월⁶⁾의 대역 사였다. 이때의 석성의 전 둘레가 6,277보(步)이고 성가위가 1,700침(墳)이며, 사방에 성문을 만들고 16개의 비밀문(暗門)이 있었다. 그리고 성 안에는 판아(官衙)와 행궁(行宮)이 있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에 4개의 장대(將臺)가 있었고, 전부터 있던 망월사와 육정사 외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어 4장대의 좌, 우에 배치하였고 개원사에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승군을 충관하였다. 그 외에도 용성(靈城)·성광(城廟)·우물·쉼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남한산성 안의 시설물의 확장은 인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계속되었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은 상궐이 73칸(間) 반, 하궐이 154칸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재덕당(在德堂)을,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宗廟)를 봉안하기 위하여 좌전(左殿)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실(右室)을 세웠다.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行宮)을, 바깥 삼문(三門)의 상루(上

6) 인조 2년(1624) 3월에 착공하여 인조 4년(1626) 7월에 완공하였다.

權)인 남한루(南韓樓)를 세웠었다. 객관(客館)인 인화관(人和館)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순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실(宮室)에 따른 시설들이고,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창(守御廳)·제승헌(制勝軒)을 비롯하여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창(裨將廳)·교련관청(敎練官廳)·기폐관청(旗牌官廳) 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각(鐘閣)·마방(馬廄)·뇌옥(牢獄;감옥)·성황당(城隍堂)·여단(厲壇) 등이 들어섰다.

이 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摠戎廳)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좌·중·우·후(前左中右後)의 5영(營)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문을 자화문(至和門),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이라 하였다.

남한산성에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 제2호인 숭열전, 제3호인 청광당, 제4호인 헌정사, 제5호인 침폐정, 제6호인 연무관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인 지수당, 제15호인 장경사가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인 망월사지와 제119호인 개원사지가 있다. 그리고 영월정, 명춘정,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망월사 등과 보(堡), 누(疊), 돈대(墩臺) 등이 있다.

현존하는 문화재보다도 역사속으로 사라진 문화재를 더 많아 간직한 남한산성은 옛 문화유적을 찾아 당장에 복원이 어렵다면 문화 유적의 표식이라도 세워야 한다. 민족의 자존이 숨쉬고,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가기 위하여서도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무신을, 아니 우리들의 무지를 일깨워 다시는 역사의 말혹시대를 만들지 말고, 민족 자존의 역사와 문화를 남한산성에서 빼우고 익혀야 하는 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3. 민족정신의 특성

1) 벽암 각성선사와 호국정신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살피면 우리는 먼저 호국정신의 고향으로 남한산성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불교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호국의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축성을 위하여 조선의 8도 승려들이 동원되었고,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이들도 승려들이었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 자료⁷⁾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원래 여기 남한산에는 신라시대의 사찰인 망월사(望月寺)와 육정사(玉井寺)가 있었다. 인조 2년 (1624)에 이괄(李括)의 난을 겪은 조종은 대대적인 축성을 시작하면서 승려들이 거처할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때에 건립된 사찰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망월사와 육정사를 제외한 7개의 사찰⁸⁾ (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한흥사, 장경사, 개원사, 등림사)이었다. 그러므로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고, 8개의 사찰은 4장대를 중심으로 좌, 우에 2개씩 사찰이 배치되어 조선 8도의 부처님의 원력이 충집결 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찰은 조선 8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모두 남한산성의 축성에 참여한 승려들이 세운 사찰들이다. 그러므로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호국의 사찰이 되어 나라사랑의 실천도량이 되었다. 사명(寺名)도 호국과 관계가 있는 국청, 천주, 한흥, 남단사 등이었다. 이 모든 조선향을 부처님의 힘으로 하나로 모았고, 실천에 옮긴 중심인물은 벽암 각성선사로서 조선 8도 도총설이었다.

벽암 각성선사는 조선왕조의 3대 8도도총설(八道都摠攝)으로 임명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호국 승군장이다. 나아가 병자호란 시

7) 《仁祖實錄》과 洪敬謙 編의 《南韓誌》의 記錄 참조.

8) 洪敬謙 編, 《南韓誌》 卷3.

호국승군인 황마군(降魔軍)을 조직한 전술가요, 승군을 이끈 용장이기도 하였다. 벽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밝힌 본인의 출고(追稿)⁹⁾가 있지 만 여기에서 다시 그의 중요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암 각성선사는 선조 8년(1575) 12월 충북 보은의 서삼산(西三山)에서 김해 김씨인 아버지와 조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정원(征圓)이며, 별명(別名)은 각성(覺性)이고, 스스로 지은 호(號)가 벽암(碧巖)이다. 어느날 밤 어머니 조씨가 벽암 노인으로부터 옛 거울(古鏡)을 받아 지니는 꿈을 꾼 데불로 그를 희임(懷妊)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을 살피면 때 각성은 양가(良家)와 정성어린 부모 술하에서 태어났 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기도 하였다.

각성은 태어날 때부터 낭달라서, "생김새가 비범(風骨異常)하고 뛰어난 얼굴(容貌粹美)로 눈동자는 빛났다(星眸如電)"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자질(天資)이 출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효심과 웃어 른 대한 공경심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벽암은 10살 때 뜻을 세워 군대 의 화산(華山)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삼목장노(雪默長老)를 스승삼아 제자 가 되었다. 이어 14살 때는 머리를 깎고(剃髮) 불도에 정식으로 입문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보정(寶晶)대사로부터 받았으며 그후 불경을 공부하였다. 훗날 그의 스승이 된 부휴선사가 화산에 왔었다. 그런데 한눈에 벽암이 불법의 진수를 담을 수 있는 출류한 그릇(法器)임을 알아차렸다고 전한다. 그 뒤로 벽암은 부휴선사를 봉아 스승으로 모셨다. 속리산 등 여러 명산을 두루 찾았다니며 스승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形影相隨)고, 경, 읊, 품 삼 장을 널리 열람하였다. 그리고 선조 25년 일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역시 스승을 모시고 장검(杖劍)하여 명나라 장수(明將)와 함께 특히 해전(海戰)¹⁰⁾

9) 全寶三, 《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 《城南文化研究》 17간호, pp. 175 ~199, 城南文化院, 1994, 5.

10) 李龍和, 《朝鮮佛教通史》, p. 502.

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전투에 분연히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니 명나라 장수들도 각성의 해전에 뛰어난 전술과 인품에 탄복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가야산에 있을 때 벽암이 스승 모시기에 정성스럽게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지라, 사명(泗溟)도 줄곧 “훌륭한 시자(侍者)”를 두었다고 축하해 마지않았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도 해인사를 지나갈 때, 벽암의 모습이 유품관(相貌駢偉)을 보고 부후선사에게 “백악(伯樂)의 마굿간에는 준마(駿馬)의 망아지만 많을 뿐, 선사의 시자(侍者)는 천리마와 같은 청년”¹¹⁾이라고 부러워했으며, 또 부후와 각성의 사제 관계를 자기 나라의 불도경(佛圖經)과 도안(道安) 관계에 비유해 찬란¹²⁾한 일도 있다. 벽암 각성은 스승 모시는 일에 철저하였고 그 인품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은 부후와 각성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대불(大佛), 소불(小佛)이라고 하며 존경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풍해군은 벽암 각성을 불은사(奉恩寺)에 머물게 하고 관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의 직함을 내렸으며, 많은 하사품도 내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대부와 고우를 갖게 되었다.

벽암 각성선사는 인조 2년(1624. 7. 28.)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판도총 섬이라는 중요한 직책, 즉 송군대장으로 산성 축성의 대임을 전적으로 책임¹³⁾지게 되었다. 조선 8도에서 소집된 의승군은 성내의 8사에 배치되고 망월사(望月寺) 등 8사(玉井寺, 開元寺, 國清寺, 天柱寺, 南壇寺, 張經寺, 東林寺)에는 모두 병기창파 화약고 그리고 군량미를 저장¹⁴⁾하였다. 그리고 산성 내의 동, 서, 남, 북 네 봉우리에 장대를 설치하고 그 장대의 좌, 우에 사찰을 배치하였고, 승군 본영 사찰로 개원사에서 모든 지휘 통솔을 하였다. 벽암 각성은 의승군 대장으로서 전국 의승군을 지휘 감독하여 나라로부터 아

11) “伯樂之齡多駿駒禪師侍者驥之子也”

12) “圓澄道安復見於海外”라고 부후와 각성 사제 관계를 찬란한 것이다.

13) 李詮和, 《朝鮮佛教通史》, p. 488.

14) 高真相,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錄에 대하여〉 – 《佛教學報》 제1집, 1963. 10. 15.

무려 보조 없이도 2년 5개월 만에 완전히 축성의 대임을 마쳤다. 남한산성은 수도권 호위에 적절한 산성 요새(要塞)였고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양 병훈련장(營兵訓練場)이 되었다. 그리고 벽암 각성이 영도(領導)하던 의승 군은 이때부터 수도 방위를 위한 상비 정예군으로서 면목을 갖추어 조선왕조 270년 간의 숭번제를 유지 발전시켰다.

그리고 진충호국(盡忠護國)하는 불교도의 빛나는 애국정신을 유감없이 반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군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축성 역사(築城役事)를 헌신적 노력으로 출중히 완성¹⁵⁾한 각성은 나라에 이바지 한 공로가 있으므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치하를 받았다. 즉 인조 4년(1626) 11월에 받은 사령(辭令)¹⁶⁾에 의하면 '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시호(諡號)와 가사(袈裟)와 벨우가 특별히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벽암 각성은 화엄사로 내려와 사찰을 중수(1633)하여 울창한 총림(大叢林)을 차리고 불법 풍토에 정진하면서 도제 양성에 온 경업을 쏟았다.

이와 같이 벽암은 남한산성을 축성·수비·경영하는 데 앞장섰고, 항마군을 조직하여 쓰러져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는 등 그의 충성스런 애국심과 헌신적 역량은 높이 평가되었다. 1640년 봄에 쌍계사로 돌아가서 옛 사찰을 중수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 등의 주언(奏言)으로 그는 규정도총설(綱正都摠攝)으로 임명되어 부주(茂朱)의 적상산성(赤襄山城)에 있으면서 사고(史庫)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국가적 중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각성은 1642년 해인사에 돌아와 있었던 6월에는 사명대사를 뒤이은 일본에 사신으로 과간(日本使臣;使令)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성은 말을 달려 서울로 향하면 도중 노병(老病)으로 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본 사신의 자리를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대사가 말았던 애국

15) 《仁祖實錄》 卷13. 仁祖 4년(1626) 7월 22일조 韶祖.

16) 求禮 華嚴寺에 現在 保存되어 있는 辭令狀 參照.

하 대일 외교활동을 각성에게 맡기고자 했던 나라의 의도로 보아 각성의 배국적 역량이 뛰어났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후에는 백운산 상선암(上仙庵)에 머물렀으며, 1642년 보개산으로 들어가서 법석(法席)을 열었다. 이때 왕자였던 효종은 그를 만나 화엄종지(華嚴宗旨)를 배웠다. 1646년 가을 법주사에서 동문인 회언(熙彦)과 은거하였고, 회언이 화엄사로 가서 입적하자 그도 화엄사로 가서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도업(道業)에 힘써 국은에 보답할 것”과 “사후(死後)에 비(碑)를 세우기 말 것”¹⁷⁾을 유언한 뒤 입적하였다. 나이 86세요, 법립 73세였다.

이상은 백암 각성선사의 진충보국하는 나라사람의 정신을 살렸다. 한국 불교의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어 발전되어진 호국정신의 기본바탕에는 불교와 민족은 둘일 수 없다는 한국불교의 특성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조선 8도의 역량이 종동원된 호국의 의지가 서린 역사의 땅이므로 모든 것을 포용한 또 하나의 한국정신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곳이다.

2) 개원사와 8도사찰과 호국정신

남한산성 내에는 신라시대의 고활인 광월사와 육정사를 제외하고는 백암 각성선사에 의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과 수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찰이다. 4장대를 중심으로 8개의 사찰과 승군 본영으로 개원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주자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및 받침하여 주는 자료는 『남한지』가 있다. 여기서 『남한지』의 기록을 살펴보자.

인조갑자(仁祖甲子; 1624) 성을 쌓을 때에 승 각성(覺性)으로 팔도도총燮(八道都摠燮)을 삼아 성역(城役)을 맡아 팔도의 승군을 소모(召募)하게 하고 또한 성내 각 절에 명을 내려 8도에서 부역(赴役)해 온 승군들의 공

17) 법주사에 세워진 韶斗軸이 치은 비문과 화엄사의 李愚軸이 치은 비문 참조.

양을 지어 올리는(供饋) 일을 문장(分掌)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원에 비로소 주관각도의승임번(主管各道義僧立番) 및 승총(僧摶) 절제(節制) 중군(中軍) 주장(主將)의 명칭이 생겼다.

무릇 성내의 아홉 절은 갑자년에 시작된 것이니 맘월사(望月寺)가 가장 오래고 육경사(玉井寺)가 다음 가며 나머지 아홉 절도 모두 새로 세운 것인데, 동림사(東林寺)가 가장 뒤늦고 영원사(靈源寺)를 또 늦게 두었다. 모두 성 지키는 일을 맡았으며, 구사(九寺)에 각각 군기(軍器)와 화약을 비축¹⁸⁾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① 개원사

개원사의 일주문 안회 우측에 있는 사지(史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개원사는 인조 2년(1624)에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들을 출지휘했던 본영 사찰로 창건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있었던 원래의 방월, 육정사 외에 7사를 창건하는데 개원사를 본영 사찰로 활용하고 나머지 8사는 각도의 승병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개원사는 조선 승병의 충지휘소로 크게 각광 받았던 사찰이다. 그후 고종 3년(1894) 갑오경장 때 의승 봉번이 폐지될 때까지 270년 간 수도 한양을 지켜온 호국사찰로 변모했으며 전국 사찰의 승리를 규찰하는 규정소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하게 조선 불교의 종본산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인조 15년(1637) 아래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으나 1970년 화재 발생 때 범당 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전소되었다. 그후 작은 전물 1동이 겨우 남아 있었으나 선효화상(禪曉和尚)이 신도들과 함께 10여년 간에 걸친 원력을 끝에 대각전, 묘사 등의 건물을 신축한 후 면모가 일신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군기고지·누각지·종각지 등에는 주춧돌·식개·박석 등이 남아있어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 사찰에

18) 供饋場 幕, 《南漢誌》, 佛子 幕 豐原。

는 남한산성 축성과 산성 수호 숭군들이 사용했던 유분 1점과 석장·옹기·함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번창했던 사찰의 영광을 알려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 다시 《남한지》의 기록을 살펴보자.¹⁹⁾

동문 안에 있으며 불경을 많이 간직했으며, 큰 놋동이 넷이 있으니 무게가 각각 2백여근이요 쌀 몇섬씩이 듈다. 먼곳이 있어 금봉어를 기르고 있다. 인조정축(仁祖丁丑; 1637) 가을 한 조각배가 서호(西湖)에 흘러들어 왔는데, 배 안에 사람은 없고 오직 대장경 책함(冊函)만이 떨었고 위에 “中原開元寺開創”이라는 일곱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 강가의 사람들이 비국(備局)에 바치고 다시 임금님께 전달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끈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왔으니 우리나라 철간에 같은 이를 가진 절을 찾아서 주어 길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그 배 끝도 중예 개원(開元)으로 이름한 것은 다만 이 절이 있는 까닭에 열별로 이를 싸고 따로이 사신을 보내 이 절에 간수하게 하였다.

현종병오(顯宗丙午; 1686)에 불이 절의 화악고에서 일어나 불길이 병궐하였는데 얼마만에 갑자기 반대쪽 바람이 일어 불을 껐다. 속종 갑술(肅宗甲戌; 1694)에는 불이 나서 다섯칸 누각이 다 탄 것 같더니 갑자기 큰 비가 쏟아붓듯이 퍼부어 불이 곧 철로 꺼져 누중(樓中)에 두었던 군기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으니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개원사는 갑오경장 이후 산성 승번제도가 폐지되면서 채락의 길을 걸었다. 1907년 8월 1일에는 산성의 무기 수거령과 화약 험지 폭파 사건 때 하루 아침에 폐사의 비운을 맞고 만다. 잡초 속에 주춧돌만 무성하면 개원사 옛터에 1976년에 선효 비구가 다시 개원사 중창 불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 다리를 건너 언덕을 넘

19) 洪敬謙 著 《南漢記》, 廣州府 譯, pp.81~82 佛子 원조.

어 조금 산길을 걸으면 남한산성 개원사 일주문이 보인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개원사 송덕비²⁰⁾가 눈에 띠고 개원사 사적비도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개원사판 불경도, 큰 놋동이도, 연못의 금붕어도 다시 찾아볼 수 없지만 벽암 각성선사의 호국의 의지가 서린 호국승군의 본영으로서의 자태가 떡딱하다.

양관 대제학에 이어 이조관서를 지낸 남용의은 개원사에 들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개원사는 큰 절이다.

天險의 間 關門의 古 수을 누르는구나.
싸울뒤에 城池는 賽氣가 남아 있고
가을이 오니 고과소리 또한 출프도다.
의로운 봉우리 淩潤한 것은 모두 중의 말이요
낙엽이 소소하니 客의 마음 激感하게 하네.
눈에 가득한 山洞에 눈풀이 흐르니
서찰데 높은 곳에 오르자 마소²¹⁾

라고 읊었다.

(2) 망월사

남한산성의 동문안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경사 후록(後錄)에 있다. 옛부터 망월암(望月庵)이 있었던 곳이라 9사중에 가장 고찰(古刹)이 된다. “고려 때 한양에 창의사(莊義寺)가 있었는데 태조께서 도

20) 사적비를 중심으로 3개의 송덕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원사 잣나무 그늘 청풍부 셨린 자리 / 다생겁 그 푸른 허잇 마음다해 심었는데 / 만나기 어려운 법 만나 브리도록 거닐까 / 사랑 정도 먼곳 아닌 바로 여기 거기인데 / 텁번 충만 고요속에 연꽃들을 피워내고 / 이 한생 부처님께 올려 환희꽃을 빚는다.

21) 洪徵譜 編 《南漢誌》, 광주군 편, pp. 232~233.

성을 세울 때 이를 히물고 그 불상과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한 말과 금정(金鼎) 하나를 미리로 옮겨다 두었다”는 《남한지》의 기록²²⁾을 중심으로 땅월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옛모습은 온데 간곳이 없다. 다만 유구중 몇들이 있고, 산신각 옆에 옛 화약고 티가 있을 뿐이다. 아마도 여기에도 일제의 무기, 화약 수거함에 예외적인 사찰이 되지 못하고 그때의 환란을 피하지 못하였는가 보다. 조계종의 성법(性法) 비구니의 크나큰 원력이 10년전 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남한산성 제일의 도량이 되었다.

적멸보궁에는 성법 스님이 인도의 간디 수상으로부터 직접 받아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그 광체가 온 산성을 감싸고 듦다. 땅월사 절 입구에 들어서면 하늘 높이 솟은 적멸보궁 13층 탑전을 쳐다보면 하늘나라에 피워낸 부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옛 동장대 자리에 올라보면 부처님의 세계가 발자국마다 연꽃되어 피어나고 있다. 이 13층 적멸보궁탑은 별자호란 시 전물 장경 위령제를 거행하였던 속종 대왕²³⁾의 어진 뜻을 이은 남한산성 내의 유일한 탑전이면서 전란에 희생되어간 영혼을 달래기 위한 보탑이다. 천상과 지상에 함께 피워낸 현세의 부처님이 나루신 자리가 땅월사인가 한다.

③ 국철사

서문 안에 있고 누(樓) 앞에는 못이 있다. 천하는 말에 절이 부국(富局)에 있는 때문에 부승(富僧)이 많다고 한다.

인조 갑자년에 성을 뚫을 때 각성이 두 절을 이룩하였다. 그 절 이름을 한홍, 국청으로 지었는데 모두 그 뜻을 모르다가 별자난을 치르고 나서야 한(汗)은 한(漢)과 음미 같고, 금국(金國)이 이 해에 청(淸)이라 개호(改號)한 것을 깨달았다. 인조도 기이히 이기 상사(賞賜)를 후하게 하였다고

22) 洪徵 著 《南漢記》, 廣州郡 譯, p.83.

23) 《唐宗實錄》卷19, 閏年 14년 2월 26일 참조.

《남한지》는 기록하고 있다.

국청사는 2단 자연석 기단 위에 장대석(長臺石)을 올리고 그 위로 조성한 팔작(八作) 지붕에 검쳐마와 원주(圓柱)를 한 정면(正面) 3간(間), 측면 3간 짚인 현재의 국청사 대웅전은 1967년도에 옛 자리에서 서문쪽에 근접한 새로운 장소에 세워졌다. 특히 팔작 지붕은 대웅전 안 천정을 만들고 그 천정 안에서는 파약을 제조하고 법당에서는 예불을 했다고 한다. 법당 안의 주불(主佛)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3기만 있다는 신라 현안왕 3년 범일국사(梵日國師)가 강원도 철원 보개산 심정사에 조성(造做), 봉안(奉安)했던 천불중(千佛中) 일불(一佛)이라고 하니 사물만 재건했을 뿐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값비싼 유적(遺蹟)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성삼문(成三門)의 친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별풍 1점과 송시열(宋時烈)의 친필 속자 3권이 있다는 기록은 전하여지고 있으나 현재는 그 자취를 찾을길 없다. 성삼문이나 송시열이 송파를 돌아 남한산성 서문에 올라 국청사에 들려 친필을 남겼음직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만 확인할 뿐이다.

그뿐인가? 절을 돌아 마당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해있는 국청사 우물의 내역(內緣)은 효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지 않고 옥수(玉水)가 흐르고 있는 국청사의 우물이다. 지금은 환백하게 보존하기 위해 금고식으로 만들었고 넘치는 물을 다시 받아 절 입구에 약수터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우물의 사연은 풍물한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착하고 선(善)한 효심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경주 이씨 조상에 이집(李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경주군(慶州郡) 구천면(九川面) 둔촌에서 그의 부친이 악성(惡星)을 알고 있었다. 이에 그의 아들 이집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백일기도를 하였다. 그러면 중 어느날 꿈에 산신이 현몽을 하며 이곳에 이르러 우벽간(右壁間)에 쌓인 나뭇잎을 굵으니 의외의 맑은 생물이 나와 그

24) 廣州郡 編, 《내가 사는 광주》, pp. 287~289.

물을 떠다가 부친께 마시게 하니 드물이 나았다고 한다.

그후 이 셈물은 전국에 알려져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성시를 이투었고 실제로 효험도 있어 간혹 지금도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④ 장경사

남한산성 동문 안에서 동북쪽 약 900m 거리의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경내는 넓직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천 뒤에 철쭉이 많고 노송 숲에서는 송옹(松茸)이 난다. 진남루(鎭南樓) 남쪽에는 땅대(望臺)가 있으며, 올라가 보면 그윽한 경치가 여러 절중에 으뜸이라고 《남한지》는 기록하고 있다. 장경사의 사찰을 기록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성 시 산성 수축의 승군 총지휘관인 8도 도총설(都摠攝; 벽암 각성대사를 말함)을 두어 전국에서 승군을 소집하여 축성케 하였다. 산성 내에서는 원래 망월사와 옥정사 2개의 사찰만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축성 부역을 위하여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로서 같은 데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세웠다. 7개의 사찰들로는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한홍사, 천주사, 동령사, 남단사 등으로 모두 9개의 사찰이 되었다. 별자호관 때에는 270명의 승군이 청군과 대치하여 성을 지키기도 하였으며, 그후 승군은 고종 때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해산되었다.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重創)했으며 대웅전은 가장 화려하게 치이진 고건축 양식의 건물이다. 요사체(懶舍體)인 서계(西齊)는 대웅전에서 서남쪽 15.4m 거리에 있는데 1988년 예전 것을 헐고 34.7평 규모로 중축했다.

현재 산성 내에서 장경사만이 유일하게 옛 모습으로 남아있고 망월사, 개원사, 국청사는 근년에 다시 중창되어 명액(名額)을 잊고 있다.

⑤ 천주사

서장대(西將臺) 아래에 있으며 누(樓) 앞에는 뜻이 있다는 《남한지》의

기록은 찾을 길 없고 주춧돌과 물집구만 옛터에 잔영으로 남아 있다. 남한 산성 남문에서 수어장대를 오르는 길목이어서 휴일이면 수만의 인파가 몰리는 천주사 옛터를 몇 사람이나 알아 볼 수 있을까. 수어장대의 높은 봉우리를 좌측에 끼고 천주봉 작은 봉우리를 배경으로 떡 베티고 셋을 옛 천주사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역사의 영고성체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끼는 장소이다. 청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늘나라를 받치고 있는 부처님의 원력이 있는 한 조금도 무례울 것이 없다는 천주사의 높은 기상은 민족의 기상 바로 그것이었다. 천주사 뒷편 옛 석터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남시와 분당 선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병소가 되었다. 더욱기 한밤의 야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옛 뜻이 있었다는 기록 때문만은 아니지만 웃삼거리 앞을 흐르는 물줄기는 여기서 발원하여 산성천으로 흘러 들어 간다.

천주사의 하늘 높은 기상은 민족의 기상되어 남한산성의 새로운 민족혼의 도량으로 태어나리라 믿는다. 훗날 이 천주사에 오른 김석주(金錫胄)는 다음과 같은 시를 2편이나 남겼다.

子吉의 온조王 자취가 묘연하며
遭私에 울타 흘기보니 눈물의 흔적이로다.
山僧은 與亡의 일 관계 아니하고 흘로
창문향하여 연화결을 끝부화네.

—聲長篇에 높은 다파에 의지하니
다파밖으로 흰이 옛 싸우든 언덕이 보이네.
바람을 입하여 出塞曲불음 기다리지 아니하고
漠域 月色에 진다이 시를 짓네.²⁵⁾

25) 《南漢記》, 廣州郡 謂, p. 233.

⑥ 옥절사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있는데 뒤에 큰 우물이 있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 한다. 담월사와 더불어 신라의 고찰로 산성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면 양지 바른 언덕의 사찰이었다. 지금은 주춧돌과 유구만 남아 옛 모습을 아련하게 전하여 주고 있지만 명당의 절터였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에서 옥구를 같은 셈티와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잡은 절이었다. 산성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친근감을 실어주던 사찰이요, 북문을 지키던 승병들의 기원과 원력의 터다. 지금은 잡초 속에 폐사자로 주춧돌만 남아 있다.

⑦ 둥림사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주변 암석들 모양이 우리들 시선을 끈다. 봉암(峯巖) 아래에 있었다. 지금은 밭길이 가장 품한 곳이 되었지만 남한산성 안을 흰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찰이다. 시인 이면서 《李敏敎》와 남용익(南龍翼)은 둥림사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山城에는 城이 古史이오
해발은 높아가 너그립다.
보호하고 쪽쪽함은 전에 일 참고 하겠으나
올라보니 장관을 얻었네.
五色구름은 하늘에 지쳐이오
六月인데도 땅 높아 축구나.
사진의 對檻策을 계획하여
길이 나라가 편안하도록.²⁶⁾
나라에는 金湯의 건고함이 있고
사람은 이제 宗廟처럼 너그럽구나.

26) 위의 책, p. 232.

빛나는 성루에는 옛 쌓은 것 더하니
승지엔 먼저 보이던 것을 고쳐었네.
돌이 넓으니 三丘이 小하고 풀가 높으니 五月에도 출구나.
시험하여 구름이는 곳을 보라.
아름다운 氣는 바로 서울이 나라.²⁷⁾

⑧ 한홍사

개원사 등쪽 기슭에 있으며 땅이 매우 시원하고 넓다. 지금은 사찰의 모습 간 끗 없고 주춧돌만 남아 있다. 벽암 각성선사가 이 절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가 영원히 흔들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청군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한홍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나라사랑의 높은 뜻이 사찰 이름 하나하나에도 선조들은 뜻으로 새겼다. 이러한 전통을 우리는 길이 인식하여 나라사랑의 대비원력을 배워야 한다.

한홍사 승려가 벽지와 산나물, 순무우를 진상하였기로 종이는 비구(佛乞)에 내리고, 무우와 나물은 종신과 부마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남한지》의 기록²⁸⁾은 산성의 한 역사로 기록하기에는 우리들의 발길을 자꾸 멎추게 한다.

⑨ 남단사

한홍사 서쪽 기슭에 있다. 남장대를 중심에 두고 한홍사의 서쪽을 지키는 숭군들의 사찰이다. 예기에서도 남단사의 남단이라는 사찰 이름은, 우리는 단군의 후손들로서 청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 내의 개원사를 중심으로 조선 8도의 사찰들은 산성 축성과, 수성(守城)의 대임을 맡아 호국사찰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였다. 국난 극복을 위하여 조선 8도가 모두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일어선 곳이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 곳 이곳이 남한

27) 위의 책, p.232.

28) 위의 책, p.291.

산성의 정신이요, 국민의 산교육장이요, 호국승군들의 의지가 서려 있는 역사의 땅이다. 이러한 성스원던 땅에도 근대사 조국의 암울했던 그림자가 드리우던 1907년 8월1일 사찰에 있던 무기와 화약고는 모두 현저 폭파 되었다. 일제의 조선 강압통치가 시작 되면서 남한산성은 다시 크나큰 시련을 맞보게 된다. 9개의 산성 사찰에 나누어 있던 화약고는 폭파되기에 이른다. 화약고가 폭파되는 동시에 사찰도 함께 사라지는 비운을 맞보게 되었다. 그 환란 중에도 동문 북쪽의 장경사만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사찰은 동시에 운명을 함께 하였다. 그 이후 개원사, 망월사, 국찰사가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5개의 미복원 사찰(천주사, 남단사, 한흥사, 통림사, 옥정사)의 폐사지에 주춧돌·맷돌·절구 등 유물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남한산성을 오르는 도시민들에게 호국 도량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고 있다.

3) 선비정신과 삼학사

선비정신이란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지조(志操) 의식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인간 중심적 사고의 전통 속에서 수양과 극기 및 학문탐구를 추구하는 성인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전통을 중시하였다. 선비는 바로 이와 같이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그리고 선비는 학문과 덕을 겸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는 일신의 생명을 들보지 않고 대의를 위할 줄 아는 지조와 철의가 굳은 인간을 말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비의 개념을 유교적 교양에 의해 형성된 지도자 및 고정된 신분적 개념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선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볼 때 선비정신은 보편성을 띤 지조정신이요, 외리정신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은 인격의 수양을 통한 도덕적 귀감의 제시와 애국 충절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함께 추구하였다. 선비의 절대적 충의와 지조 정신은 선비정신의 높은 기개와 절의를 중상하는 전통의 말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비의 사회적 공익(公益)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은 임진왜란, 명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병사를 일으켜 적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선비들의 면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비의 사회적 공의정신은 민족의 자주정신의 뿌리가 되었으며 민족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선비정신은 학식과 인격을 갖춘 즉 인격적인德성을 갖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선비정신의 인격적 조건은 생명에 대한 욕망도 넘을 만큼 궁극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진 德과 인의 德목, 의로움의 德목과, 지조를 선비의 인격적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비정신은 역사를 회롭게 이끌어 가려는 지성과 청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이 명자호란 시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죽음을 딱하여 조선의 선비의 기개를 떳떳이 발휘한 세 분을 일러 父和(父和) 삼학사(三學士)라 부른다. 평양 서운 흥의한(洪翼漢), 교리 윤집(尹集), 부교리 오달제(吳達濟)가 바로 이들이다. 1636년(인조 14)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선을 속국시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오자, 흥의한,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의 이 사신들을 죽여 모독을 씻자고 주장하였다. 1937년 1월 인조가 삼전도(三田護)에서 군옥을 당하며 화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세 사람은 불립대군(鳳林大君)과 함께 청나라로 불법히 갔다. 흥의한은 1637년 2월 초에 청군이 화군하는 길에 평양에서 잡혀서 25일에 심양(瀋陽)에 이르렀으며, 윤집, 오달제는 청군의 진(陣) 뒤에 있어서 그해 4월 15일에 야 심양에 이르렀다. 19일에 용골대(龍骨臺)가 왕명으로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청나라에서 살기를 권유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에 윤집과 오달제는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하였다. 흥의한은 10일에 이미 처형당하였다는 설이 있고, 윤집과 오

달제와 함께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다. 한편 이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청 태종이 친히 국문하였는데, 흥익한은 국문에 달당히 맞서 척화를 주장했던 뗏떳한 대의를 밟히면서 나라에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더 이상 못함을 안타까워할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집도 청 태종의 회유적인 설득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몸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뜻은 죽어도 뗏떳하다는 기개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청 태종도 이들의 기개에 오히려 감탄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충의와 대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문(旌門)을 내리고, 흥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윤집에게는 충정(忠貞), 오달제에게는 충렬(忠烈)이라는 시호가 각각 내려졌다. 이들 세 분을 일러 우리는 삼학사라 부르며, 날한산성 양지바른 언덕에 현절사 제향을 짓고 선비정신의 그 옮은고 꽃꽃한 정신을 배우고자 하였다. 이들 세 분의 생애를 간단히 살피기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의 《민족대백과사전》과 신구문화사의 《한국인명대사전》²⁹⁾에서 이 분들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흥익한 (洪翼漢)

1586(선조 19)~1637(인조 15). 병자호란 때 3학사(學士)의 한 사람.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 운옹(雲翁). 찬성 숙(淑)의 현손으로, 진사 이성(以成)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김립(金琳)의 딸이며, 백무인 교위(校尉) 대성(大成)에게 입양되었다. 이정구(李廷龜)의 문인이다. 1615년(광해군 7)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 정시 문파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서(司書)를 거쳐, 1635년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시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신을 보내오자, 상소하여 제호(帝號)를 침질한 죄를 문책하고 그 사신들을 죽임으로써 모욕을 엎자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이 해에 병자호란이

29)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86. 8.

임이나자 죄명진(崔鳴吉) 등의 화의론(和議論)을 극구 반대하였다. 이 병자호란으로 그의 두 아들과 사위가 모두 적의 칼에 죽었고, 아내와 머느리는 적에게 불들렸으나 봄을 깨끗이 보존하고자 자결하였으며, 늙은 어머니와 딸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조정의 권유로 청군(淸軍)의 화를 피하기 위하여 평양부 서윤으로 나갔으나, 청나라의 강요로 화전을 배척한 사람의 후두머리로 지목되어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과 함께 청나라로 잡혀갔으며, 그곳에 물들려 갇어도 청장 용골대(龍骨大)에게 “지난 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자신으로 왔을 때 상소를 올려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다”³⁰⁾ 하였고, 잦은 협박과 유혹에도 끝내 굽히지 않고 선하된 도리와 그 충의를 다하여 죽음을 택하였다. “내 피를 목에다 뱉어서 친다면 내 넋은 하늘도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밖에는 다시 할 말이 없노라”³¹⁾ 마지막 이 한마디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조선 선비정신의 울림은 활을 보여 주었다. 그리므로 우리는 이른바 ‘병자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흥익한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훗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남한산성의 현절사(顯節祠)에 그의 영혼이 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강화의 충렬사(忠烈祠), 평택의 조미사(褒義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화포집 花浦集》, 《북행록 北行錄》, 《서정록 西征錄》이 있다.

② 윤집 (尹集)

1606(선조 39)~1637(인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택(成伯), 호는 일계(林溪) 고산(高山), 현감을 지낸 형갑(衡甲)의 아들이며, 남양부사를 지낸 계(策)의 아우이다. 13세에 아버지를 이의고 행의 밑에서 공부하여 1627년(인조 5) 22세에 생원이 되고, 1631년 26세에

30) 《三學士傳》, p. 91, 民族文化推進會, 1985. 7.

31) 仰의 集, p. 98.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실서가 되고, 1636년 이조정랑 부교리를 거쳐 고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국왕과 조정 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난을 피하였으나 청병에게 산성이 포위되어 정세가 극히 불리하게 되었다. 최명길(崔鳴吉) 등이 화의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 오달제 등과 함께 화친의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뱙 것을 청하였으며, 최명길이 국왕의 뜻을 움직여 화친의 일을 성립시키고자 입대(入對)하여 중지와 사관을 물리치도록 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옛날 화친을 주장하여 사필(史筆)의 베일을 피할 수 없었던 전희(秦檜)와 같은 대간도 감히 사관을 물리치지 못하였다고 극렬한 말로 규탄하였으며, 국왕이 대간(臺諫)을 끼리지 않고 오직 사특한 회논단을 옹호하고 간사한 신하만을 의회하면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경고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 측에서 최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여 그는 오달제와 더불어 상소를 올려 자진하여 최화론자로 나섰다. 청명에 의하여 북쪽으로 끌려갈 때도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여 철밀이 오히려 감복하여 존경하였다 한다. 청나라에서 고문과 죄유 등으로 그의 뜻을 들리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자 마침내 실양성 서문 밖에 끌려가 사형당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1세였다. 그의 죽음은 조선인의 의리와 절개를 청나라 사람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하였다. 세상에서는 오달제, 흥익한과 더불어 삼학사라고 부른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남한산성의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었다.

③ 오달제 (吳達濟)

1609(광해군 1)~1637(인조 15).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운례(允諧)의 아들이다. 19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34년(인조 12) 26세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으

로부터 벼슬을 시작하여 병조 좌랑, 시강원 사서,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을 거쳐, 1636년(인조 14년)에 부교리가 되었다. 이때 후금 외 세력이 날로 커져 청체전원 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무섭게 위협하여 왔다. 이에 화친을 위하여 주화파·화명길 등의 주장으로 사신을 교환하게 되자, 임금을 속이고 삼사(三司)의 공의(公議)를 위협, 제지하여 임의로 사신을 보낸 죄명길을 단백하는 상소를 올렸다. 겨울에 병자호만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나라와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였다. 인조가 청군에 항복하게 되자 청나라 측에서는 전쟁의 책임을 척화론자에게 돌려 이들을 찾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척화를 주장하였지만 박상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에 오달 씨는 윤집과 더불어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서서 적진에 잠히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적장 용끌대는 그의 뜻을 염려하여 차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 살라고 화유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不義)라고 하고 저들의 말을 듣으면 오랑캐가 되고 마는 것이라 하여 끝까지 항변하였다. 그는 마침내 심양성(瀋陽城) 서문 밖에서 윤집, 홍익한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학사라고 하여 그들의 절개와 충성을 높이 기리게 되었다. 그는 목매화(墨梅畫)에도 뛰어났는데, 이몽룡(魚夢龍)·조숙(趙叔)·허목(許穆)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명나라의 목매화 풍을 영향받아 구도가 조금은 변잡한 감을 준다.

그의 그림은 목매도(墨梅圖) 2점이 전하며, 이러한 구도의 목매화는 뒤의 조지운(趙之耘)·홍수주(洪受疇)·박동진(朴東晉)·조희룡(趙熙龍)·이공우(李公愚) 등의 목매화에 영향을 주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남한산성의 현질사에 계량되었다. 거서고는 《충렬공유고 忠烈公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삼학사의 정신은 죽음을 뛰어넘은 용맹과 결의로 우리민족의 귀감이요, 우리의 자랑이다. 특히 이들 세 분중 홍익한은 평양부 서윤이요, 윤집은 이

조정랑 교리였으며, 30세의 청년으로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오달체는 무교리의 직책이었지만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을 찾아 의롭게 죽음을 택하였으며 그때 나이 28세 약관의 청년이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라는 이들 삼학사의 충절은 남한산성의 양지바른 언덕 현절사에 영원히 피어나리라 생각된다.

4. 현대적 의의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민족정신의 도량으로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가꾸어야 할 성스러운 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충절의 혼이 잠들어 있고, 건승보국하는 나라사랑의 땅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역사의 전한 할기를 달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나라사랑하는 큰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남한산성은 많은 도시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반성하면서 역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길이 삼학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요, 호국 승군들의 회복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된다.

먼저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이 남한산성이 아말로 역사의 땅이라는 자각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광조객으로 계승하자. 그리고 역사가 있는 땅, 문화가 있는 땅으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체험의 장소요, 국난 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저기에 옛 산성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문화 유적 표시판을 세워 누구나 쉽게 여기가 역사의 땅이란 사실을 쉽게 인식시키는 작업도 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많은 도시민이 찾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충립이 울창한 자연 공간으로 남한산성은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장이요,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많은 위성도시들이 산업화, 공업화로 치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농립이 융통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으며, 고원지대로서 약 400m의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을 최대로 살려 역사와 문화가 있고,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민의 자연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쉬는 자연 교육장의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요, 미래의 꿈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한산성하면 '치욕의 땅', '폐천의 땅'이라고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없이 불렀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가 우리에게 물려준 식민지 사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적어도 조선왕조 시대에는 역대 임금들이 들려 그때 그일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던 산성이었기에 수어장대의 내부 판액을 무망루(無忘樓)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별자 호란이후 전봉장명 위령제를 올리며 나라사랑의 높은 뜻을 되새긴 장소였다. 일제가 우리에게 심어준 식민지 사관을 벗어나는 우리들의 진지한 노력이 남한산성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을 치욕의 땅, 폐천의 땅이란 역사를 오도하는 식민지 사관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자호란만을 강조하는 산성의 역사를, 백제의 성산과 한반도의 중추적 허리에 해당하는 역사의 땅으로, 그리고 도시민의 역사, 문화, 자연학습의 장으로 강조되어져야 한다. 역사의 땅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남한산성의 문화지도를 만들이 이 땅을 찾는 도시민에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맷 는 말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탐구하기 위한 작업을 통하여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멀망을 길을 걷고,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민족은 반영의 길을 걸어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8도 의승군들의 기와 택이 숨쉬는 곳이요, 조선의 선비정신이 숨쉬는 역사의 팔임도 밝혔다.

조선 8도 도총첩인 백암 각성선사의 나라사람의 진충호국하는 정신은 서산, 사명의 뒤를 이은 호국 승군장의 역할과, 남한산성의 축성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북하여 간 호국의 영장으로서 백암 각성선사와 행적도 살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은 국가와 민족은 둘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不二)라는 불교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교의 호국정신이 민족과 어찌한 관계를 찾았는가 하는 사실도 살폈다.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선비정신과 삼학사의 높은 정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세를 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였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고향땅이 남한산성의 현결사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이 땅이야말로 선비정신의 고향으로 삼학사의 숨결이 들리는 선비의 고향, 충절의 땅 남한산성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알장서야 한다는 흥익한, 윤집, 오달제였다. 충절의 높은 애국심으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기계를 굽히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삼학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겨레의 귀감이다. 민족 앞에 충절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 삼학사의 높은 애국심은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영원한 지표다. 이들은 조국 앞에 책임을 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말로만의 애국심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정신은 삼학사의 높은 정신이요, 우

리 모두의 크나큰 교훈이다. “구차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어서 죽어서 내 피를 복에다 빌라서 둘둘 친다면 내 넓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면서 이역 만리길에서 눈을 감았다. 고국산천을 꿈꾸며 죽어 영혼으로 남한산성의 언덕에 모셔진 세 분 삼학사의 충절은 우리 삶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이다. 삼학사의 영혼이 잡든 남한산성의 현 절사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며 조선 선비정신의 뿌리를 살펴보았다. 흥익한, 윤집, 오달재 세 분의 영혼이 잡든 현절사는 오늘을 사는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역사에서 찾으며, 남한산성의 땅에서 찾아야 한다.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이 끽내는 날,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모란’ 地域의 鄉土史 정리

韓 春 燮

(時調詩人, 國文學者)

[目 次]

- | | |
|------------------------------------|-------------------------|
| 1. 머리글 | 3) 김창숙 지역 개척자의
功業 是非 |
| 2. 모란 鄉土史 이야기 | 4) 市로 승격된 후의 ‘모란’ |
| 1) 開拓 初期의 地域 紹介 | 변천사 |
| 2) ‘모란’ 開拓의 침체기에
나타난 ‘광주대단지’ 조성 | 3. 마무리 글
발표 |

1. 머리글

오늘날 '모란' 지역 명칭은 원래 경기도 廣州郡 突馬面 下大院里 일원이었다. 현재와 행정지명으로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부를 가리키지만, 지역 주민들의 새마을 조성 개척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모란' 땅이야 말로 한낮 보잘것 없는 시골 활무지 자갈밭이었다. 현재는 모두가 도시화로 제 모습이 가려진 이 땅에서 사람의 땀방울 뿐이라는 놀라우리 만큼 새 고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단대천〉과 〈하대원천〉이 샛강만도 못하여 여름철 우기(雨期)를 제외하곤 일년 거의가 모래와 자갈밭 낮은 데로 발목 잡길 정도의 산골짜기 도량물이 흐르는 정도였다. 분당을 지나 오포로 가는 한낮, 시끌 들판위에 드문드문 논과 팔곡식이 보이던 길목 계점이었던 '모란' 지역의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본인은 어찌면 30년 이전의 지난간 땅의 이야기꾼 역할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저기 문헌기록에 따르면 돌마면이나 중부면 일부 지역에 편입되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광주군 網村面이거나 中郡面의 墓里지역으로도 속한 적이 있었다. 빌라티 개울의 산골 도량물이 질펀했던 자갈 모랫벌 상태의 1960년 초기를 기점으로 하여 『모란개척단』 브로도자와 삼·곡괭이질 개발 물이 일고부터 '모란'의 지역사정은 산촌 활무지의 제 모습을 잊게 되었다. 모란지역은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 철거 이주대책의 공포가 있기 훨씬 이전에 이미 김창숙(1926~1991) 예비역 장교 선두자 및 지역 청·장년 수십 명에 의한 개척사가 60년 경부터 시작된 곳이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銚南市 인공 都市化 역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란'이 첫 살을 든 후에야 서울 시청의 광주대단지 개척사가 뒤따라서 펼쳐진 곳이라고 해야 한다.

필자가 성남시 최초의 도시화 개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모란' 지역 土地 정리를 서두른 것은 이 곳의 개발 초기였던 1964년도 겨울부터 모란이라는 생소한 농촌의 무허가 『모란 중학원』 초창기 교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

는 데서 김필의 욕심을 가져보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당시의 모란 지역 개척단 생활상도 기억되며, 아울러 개척단장 김창숙, 그리고 지역 유치로서의 다방면에 걸친 일을 말았던 장승길 모란우체국장, 강복현, 박천복, 최재원, 김갑수 등의 모란개발의 중심적 인물을 익히 알았던 연유로 하여 이 論考는 중언과 기억의 보존성에 중점을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짧다면 짧은 세월 속에 여러 지면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란' 향토 발전 일화들이 한결같이 정확치 않은 채로 옮겨지고 전해지므로 하여 앞서 살았던 선대의 功過를 평가함에 잘못이 있다고 믿어 몇 사람의 중언과 필자의 실체답을 걸드려 이 잘잘못을 되도록 바로 잡아 두려는 데 이 글의 김필의도를 밝혀 두는 것이다. 아무래도 기록자료의 부족과 그 당시 이 땅의 原住民이 상당수 거처의 이동으로 제한된 몇 사람들만을 만나야 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확실성있는 논고라고 자부할 수 없다. 다만, 크게 잘못 전해지는 '모란' 지역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보강하는 면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남시의 도시 발전 역사는 모란이 그 출발지점이라는 것과 아울러, 누가 뭐라 해도 『모란개척단』 청년단체의 원주민 땀의 땃가는 정신적으로라도 오랫동안 기억해 둘 이야기요, 향토사의 문학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1994년의 이 짓점에서 보아 '모란' 지역은 성남시 제일의 삼업·교통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기에 충분하다. 분당구 새도시 문화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드디어 분당선 지하철개통이 착공 4년 만만에 막을 올렸으며, '모란'역 자체가 머지않아 개통될 지하철 8호선과의 환승역 지역으로서 또한 큰 기대감을 안고 있어 '모란' 지역이야말로 말 그대로 桑田碧海 중심도심지 땅이 되었다. 벽찬 감정을 버린다해도 이 지역의 이야기를 전술하다 보면 그 누구라도 말 몇 마디와 글 몇 단락으로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변화의 개발 바람이 스치고 멀려온다고 비유해 보겠다.

2. 모란 鄉土史 이야기

1) 개척 초기의 지역 소개

'모란' 지역이 김창숙 외 부락청년들에 의해 개척되기 직전만 해도 한국의 전형적 농촌 들판에 지나지 않았다. 突馬面 하대원리였던 구역으로 동쪽은 여수리와 인접되어 있고, 서북쪽은 단대천을 경계로 하여 中部面 관리, 남쪽에는 길재 탄천까지 면친 논과 밭이 이어진 들판자갈과 모래가 달혀 있었던 것별과 비슷한 지형을 드러낸 곳이었다. 오늘날의 '모란' 지하철 역과 연결되고 있는 문당행 길따라 비포장 들판 도로가 빛빛하게 있을 뿐, 하루 세 차례 서울을 왕래하는 시외 버스만이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시골이어서 이파금 통과하는 벌다쁜 화물 자동차라도 오갈때엔 차뒤로 풍기는 먼지와 휘발유 냄새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게 지역주민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더구나 고개 하나를 두고 있는 수진리와 탄리 두 마을에는 30호 이상의 원주민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어 아득하고 정감어린 시골이라 하지만 '모란' 땅에는 人家가 전혀 눈에 띠지 않을 뿐 아니라 세차게 부는 들판 바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든 땅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찾아 볼 정도 이외엔 비교적 넓은 들판이 크고 작은 들패이나 드든드른 보일 뿐이었다. 아직은 사람들이 살만한 터를 만들어 둔 데가 없어 진흙 밭과 모래 끝판 과수나무가 한두 군데 눈에 떴을 뿐이었다. 상대원리를 걸어 다니는 주민들의 중간 통로가 가운데로 있어 이산과 저산 넘어 마을을 왕래하는 인근 부락의 원주민 삶의 구역에 불과하였다. 여름 장마가 계속될 때는 양면의 단대천과 하대원천의 체방없는 산골짜기 물이 불어 들 전체를 절편하게 물수렁으로 만들기 일쑤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해가 진 저녁만 되면 왕래하는 사람이 끊어지는 적막 황무지 땅이 곤, 오늘날의 '모란' 지역의 1960년 경 경황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벽촌 들판에 삶의 터를 잡아보자고 개척의 삼성을 하게 된 까닭은 순전히 김창숙 예비역장교 한 사람의 고집스런 의지 때문이었다. 김창숙과 함께 서로 손발이 되어 모란개척을 이끌어 가던 그의 손아래 처남 김석초(1940~운수업)와 부단장 중 한 사람인 강복현(1934~명동의원 역임) 두 사람과의 대담에 의하면,

김창숙 모란개척단장이 12년간 군인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서자 본인 말대로 풍산업에 종사할 뜻을 지녀 전국을 돌아 다녔다. 상당기간 이곳저곳을 답사하면서 이곳 경기도 광주군의 남한산성 부근마을을 찾아 오게 되었으며, 당시 마을의 유지 계이었던 바친복 전 중부단장 죄예 최재원, 강종삼 등의 마을 老臣들을 소개받아 자신의 활무지 개척 소신을 털어 놓게 되면서 그 적극자로서 현재의 城南湖지역 모래와 자갈밭 일원을 개발 후보지로 정했었다. 그 즉시 각 마을의 미장 소개를 받아 우선적으로 자기 품을 이루며 나갈만한 四志 규획에 나섰으며, 그에 모여든 청년 제대군인 남자 4~50명을 손꼽아 "모란개척군인회" 사설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즉시 김창숙 본인은 가족을 서울에 문제 단신으로 이곳 모란에 내려와 지역청년 단체 사람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세일 면자 기기할 짐 마련을 위해 땅굴을 파서 그들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란개척을 위해 군대의 도움을 받게 되기 까지 지금의 풍생중학교 앞 도로델에 땅굴짐을 여러개 만들어 단원들과 같이 먹고 잠자면서 자급조달과 건축자재 그리고 활무지 들판 보호의 제방사업 등은 미군부대와 한국군 공병대 군장미의 지원을 받아 가며, 지금의 구종점 즉, 한신코아백화점 지점에서 모란예식장 까지 뚝 놓기 작업이 시작된 게 1961년 봄철이었다.

라고 당시의 회고담을 짧시간 들었다.

뒤따라 이 사업에 동참한 이는 적지 않았으며, 지방 관공서라든가 지역의 관심있는 주민들도 지역개발에 모두 적극적이어서 각 부락에서도 후원이 뒤따라 나타났고, 제대군인 중에 직업이 없는 농업인구 중에서 적지 않은 청년층이 김창숙 개척사업에 동거동락을 자청하였다고 한다.

6. '모란' 지역의 鄉土史 정리

그후로 개척의 지역범위를 정해두어 지금의 성남종합운동장을 경계로 하 고 풍생고등학교 뒷산의 성남제2국민학교, 남쪽으로는 성남버스터미널 대 원천 뚙이 경계지점이 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주택건축과 발농사 대지 정리에 세심한 설계를 작성하였다. 지금의 사정과는 너무 관이한 세상이어서 하루 세끼나의 밥을 양식과 입고 잘잘 문제해결에도 상당기간이 걸렸으며, 아무 것도 없던 빈 들판 황무지 위에 집단 마을이 정돈되어 시멘트 부로크 단층으로 20평 정도의 단원용 주택이 세워지기 까지에는 그들은 온갖 고생을 다했다고 한다. 하루의 생활 자체를 집단촌의 군대식으로 시작하여 새벽시간부터 축대쌓고 청소하는 일로부터 벽돌만들고 집짓기, 개발설계와 작업분담에 따른 노동시간이 농촌의 일과 보다 훨씬 힘에 겨웠으며, 개척 초기의 어려운 화고답은 하지 않았다.



'모란'이전의 '세터'(돌마면 하대원리) 활무지에 단대천 샷강물, 멀리로 지금의 문당구쪽 길(1960경. 지금의 모란 중심가)

그러므로 모란의 개발 당시였던 1960년부터 약 5년동안의 모란에는 전혀 사람이 살아 오지 않았던 곳에 집단촌이 여기저기 형성되었다. 지금의 '모란역' 지하철 입구를 주축으로 하여 광명로에서 반영교 사이에는 개척 단원의 40여 채 단층 브로크 벽돌집들이 신축되었으며, 그옆 조금 멀어진 중원구청 쪽에는 서울 광나루천의 철거 이주민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하철 통과의 성남로 옆인 모란시장 터에는 20평 미만의 가옥들이 도시구획된 정돈의 모습으로 70채 이상 촌락을 새로 이루었었다. 한편으로 광명로 입구에는 김창숙 개척단장의 개인주택이 지어졌으며, 유퇘원 설립의 운동장과 교실이 길게 5칸으로 단대천 둑 옆에 마련되었고, 전 전녀 맞은 편 꿈목에는 벽촌에나 있어왔던 모란우체국 사설 공공기관도 장승길에 의해 문을 열었다. 지금의 모란시장 인근에는 교회도 세워지고 술집과 다방, 여인숙과 모란 시외버스 정류장 까지 만들어져 65년도에는 실제로 모란지역이 단출한 시골의 面事務所 소재지 수준의 촌락이 형성되어 나갔다. 지금의 동대문운동장 전너편에서 출발하는 오포행 시외 버스가 하루에 네차례 왕복 운행하는 지역발전의 정후가 나타나면 60년대 중반경의 모란 지역은 획기적인 지역변화가 생겨났다고 하겠다. 전화가 가설되고 우편물 취급이 원활하였으며, 정식인가는 받지 못한 상황하의 모란중학원도 건물이 짓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현재의 성남경찰서 맞은편에 있었던 성남출장소 부근 보다 모란의 지역문화시설이 앞섰던 정후였었다.

지금 생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당시의 사정으로는 모란개척단원들의 집단 주택지 마련은 대단한 성과였고, 희망에 찬 결실이었다. 50여 명의 단원에게 1가구 대지 300평씩 분할된 잘 정돈된 집단촌 형성은 그야말로 개척사업의 선호단이 만족준 성공작이 아닐 수 없었다. 하므로 65년 경의 모란지역 전체의 가구수는 100호는 되었고, '모란'개발의 소문을 듣고 각 처에서 찾아 오는 유통인구도 매일 적지 않아 개척의 변화된 마을 분위기는 서서히 중소도시의 틀을 꿈꾸는 사업으로 큰소문이 세상에 나들게 된

8 '모란' 지역의 鄉土史 짧리

시기였다. 원호동 경유의 시외 버스 외에도 맥시까지 대전에 의해 드나들면서, 복정리 삼거리로 지나 낙생과 효성중고교 앞길을 여러 차례 드나들던 서울 시내버스 황례에 따라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과의 교통 사정은 나날이 달라지는 데에 모란지역 주민경작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성남시 편『城南市誌』 82년도판이나 『城南市史』 93년도판 두 권의 책에 나타난 당시의 인구라든가 면적 등에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 밝히진 1965년 기준의 성남출장소 관할(성남단지) 인구는 6천명에 불과하며, 대왕면, 낙생면, 둘마면 3개면(비성남단지, 비서가지)도 각기 7천명을 크게 웃들지 못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는 인구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단지, '모란'에서만이 황무지 개척단의 고판으로 인해 인구가 4~5배정 증가하였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모란을 제외한 현재의 성남시 지역안에서 특별히 인구가 증가할 이유가 없었던 때가 60년대 중반기였다.

2) '모란' 개척의 첨체기에 나타난 '광주대단지' 조성 발표

약 5년 동안의 모란 개척은 활기찬 움직임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과 책정된 예산없이 몇 사람만의 의욕에는 한계가 있어 집 한채 소유와 대지 3백 평, 공동 재배의 농토로는 개척단원 가족들이나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의욕이 생겨나질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개척사업 출발 당시의 단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감항속 단장의 계획과 실행이 어긋나고 부터 지역개척의 진전은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폐기자재 마음먹은 지역전체의 숙원사업이라 하던 중학교 신설마저 미군부대의 원조물건으로 운영경비에 대체자금 유용이 생겨 학교의 신축 또한, 중도에 미완성된 채, 벌판 세터 마을은 뛸랑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차피 과해처럼 땅이전만 주도자가 혼들리고, 지역의 청년단원들 마저 심복 동요를 일으키므로 하며 결

국, 모란학원은 장승길우체국장과 지역유지들의 힘겨운 노력에 의해 김창숙에게서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홍사통 소유로 넘어가는 우여곡절이 생겼다. 마을안에서도 군데군데 형성된 건물들의 소유가 자주 바뀌어 이발소, 철물점, 식당 따위의 상가형성이 제대로 키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모란'의 개척단 활동은 유명무실한 지경까지 이루었었다. 때마침 서울특별시에서의 인구증가 해소책의 일환으로 구상했던 서울시 무허가 건물 일소책이 급기야 발표되어 그 대상지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가 일명 '광주대단지' 개발사업단지'로 지정 고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므로 1966년부터 1970년의 5년 사이에 성남시 전체의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대폭적으로 아주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큰 변화 중에 '모란'의 개척단 숙원사업은 예상외로 대도시로 치달아 광주대단지의 밖이라 할 수 있는 대왕면·돌마면·낙생면까지도 철거민



(모란 개척단) 창설 후 땅굴 움막집 생활을 하며 낮엔 새마을 가꾸기에 팔출했던 단원 전체(1961경. 지금의 수진동 옥의 노천 주차장 부근)

10 '모란' 지역의 농土史 정리

아닌 轉買 임주자의 대거 유행이 격증하였다. 이같은 서울 가까운 농촌 지역으로서 조용한 廣州郡 내의 남한산성 남쪽편 성남시 일대가 오늘날까지도 말할 수 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의 태풍은 계속하여 불어 달친 셈이 된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 편의『한국의 발전－경기도』 소개 중의 성남시 안내문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圖地 밖은 아직도 시골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둘마지역과 낙생 지역에는 좁다란 평야가 있어 주민들이 주로 벼, 세소 따위를 가꾸거나 담, 칠면초, 데지 따위를 치는 생활을 하며 시골풍경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성남 시를 남북으로 흐르는 내연 단천 연자리의 대왕 지역 가까운 땅에 특별히 '모란단지'가 있는데, 때 신식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단지에서 조차 닷새마다 멀리는 5일장이 개최되는 것도 그런 시골풍경에 한다. 계곡과 물마 지역에는 새마을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낙생지역에도 경부고속도로의 관교인터체인자가, 대왕지역에는 작으나마 공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는데도 마땅 끝없이 단지안에 전주어 단지밖은 인구도 적고 말전도 한결 더디다.

(1983. 5. 30. 발행 ; pp. 262~3)

이 글을 통해 1988년 서울시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의 단지 안 지역으로 보았던 성남출장소 관내의 수진리, 단리, 단대리, 삼대원리 등 의 부락 이외의 낙생면·둘마면·대왕면 3개 면은 농촌동이라고 까지 불리게 하였고, 단지 앞의 4개 부락만을 서울시 관자촌 인구 철거민의 이주권으로 하여 도시통 내의 개발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나 경기도의 행정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과 합세했던 김창숙 등의 몇 사람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모관개척의 발판은 지극히 열악한 상태임도 짐작할 수 있겠다. 긴 안목으로 성남땅 개발을 생각한 공무원은 전혀 없이 다급했던 서울시 인구 분산정책 특히, 무허가 관자촌 일소대책으로 이주의 대상지역을 당시 도시통 부락으로 결정 고지하여 버린 것이다.

교통의 입지적 조건이 나쁘고 토지조건 또한 구릉지 시골이어서 힘겨운 실마리의 땅이었음에도 소형주택 위주의 도시건설에 계획성 있는 땅을 확보할 잇점을 좌우선 장점으로 삼아 광주군중부면 일대의 현 성남시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단행되어진 셈이다. 녹지공간도 없고 많은 사람이 살用水조차 절대 부족이었던 여건을 빼면 땅에서 철거당한 이주민이나 전래 입주민 그 누구라도 초창기 삶의 티진은 고통스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모란 개척단들의 고통 또한, 철거 입주민 못지 않은 범관한 삶을 영위하면서 앞서부터 지역개발 사업에 헌신적 정신자세로 일관했다고 생각한다.

아주 힘겨운 시기에 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이 산 하나 넘어 산등성이에 대거로 몰려 온 것이 어찌면 모란 주민들에겐 더없는 재도약의 계기였음도 사실이다. 산등성이 하나로 가로막힐 리 없고, 모란이란 고장이 광주 경안을 가거나 돌마·봉당·오포를 가더라도 거처지는 중간지점이며, 수진리 고개를 거쳐 북정동과 서을 문정동 등을 지나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도시동 및 농촌동 단지 한바 밖 모두의 길목이라는 점으로 해서 결국, 모란의 발전은 단지한의 철거민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아니었다. 뒤태라 생겨난 성남공업단지의 제1, 2, 3 공단 조성에 따라 더 활기찬 속도로 모란의 鄉土化 세변 현상은 같은 속도로 인구라는 산업 등의 생활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었다.

다시 앞의 책안에 글 일부를 소개해 둔다.

성남시의 공업은 꿈창의 규모로나 돈벌이의 액수로나 크게 보아 설유공업, 전기·전자공업, 화학공업, 기계금속공업의 순서로 나뉘는데, 하나하나의 공장으로 보아도 대명상사, 풍국산업, 대한비타민, 삼일전자, 동양정밀, 에스파이어 세화, 사니케익, 대한교과서 같은 규모 규모의 공장들이 마지막 공업의 종합전시장이라도 꾸미려는 것처럼 대양하게 들어서 있다.

미 공장들이 이곳의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끌어쓸으로써 맥을 보기도 하고 또 마땅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그만큼 채워주기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12 ‘모란’ 지역의 土史 정리

곳은 공업단지로서 입지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못된다.

(중략) 개다가 꿈장을하고 주택가가 달라붙어 있다시피 해서 공해문제가 두드러진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밝은 풀에 고기가 놀았던 이곳의 개울에는 단지밖에서 쇠지를 치는 점의 우리에서나 흘러나온 듯한 더럽한 물이 흐른다. 이 더러운 물이 아까 달한 단천에 흘러들어 마침내 한강물에 빠져드니 한강물이 날로 더 더러워지는 데에 한몫을 한다고 보겠다.

(같은 책 : pp. 264)

결국, 침체기를 걸어가야했던 모란 지역이 예상외로 서울시 인구 철거대책 추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 자연히 개척단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나 김창숙 자신에게 있어서도 힘겨운 부담감을 벗어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못다한 설계상의 사업 추진은 몽땅, 옛말로 남긴 재 원주민이거나 새로 천임해온 외부인이거나 간에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빈곤의 도시민으로서 나날의 생활은 달라져갔던 시기였다.

모란개척 초기의 동지를 대부분 떠나 보낸 예비역 육군대령 김창숙 자신도 그 사이 신변에 몇 가지 변동이 없지 않았다. 61년에 3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군수로 재임한 관직 외에는 또 다른 직업을 외면하고 언제나 남들처럼 서둘러 뭔가 큰 사업 하나를 성공시켜 보리라는 꿈을 40대 중년에 포기할 입장이 아니었다. 군대시절의 꿈었던 야망이 아직도 남아있었으며, 모든 면의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그에게 있어 주변인물 몇 사람이라도 옮바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나 야망만 풀뿐.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갈 쓸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한 때문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결말이 지지부진이었다. 군인·장교로서의 생활이 체질화된 김창숙에게 있어 지식있는 자문역할의 사람이 주변에 있지 못하므로하여 자기의 뜻대로 크고 작은 사업들의 때들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지역청년단원만이라도 처음같이 일심 공동체가 되지 못하였다.

원래부터 낙후했던 지역조건하에서 유휴 노동력은 충분했나 몰라도 두뇌

있거나 체력있는 동조자가 없는 가운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일개 사사로운 작은 일은 몰라도 너무나 거대한 향토개척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쓸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에 그의 야망은 물거품
처럼 순간순간 사라져 버린 격이다. 아무리 이론이 반듯하여 내 고향을 스
스로 지켜 나가면서 노는 땅을 개간하고 범죄가 없는 살기좋은 마을 가꾸
기를 첫째 조건으로 주장하였지만, 그 다음단계로 필요한 것은 뒷받침될만
한 체력과 우수 두뇌의 인간능력이 함께했어야할 일이다. 가나안 농군학교
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보자 하였으며, 종교단체들이 운영
하는 신앙촌 마을을 표본삼아 모란 지역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의욕
만 커울 뿐 절대적인 협조자 내지 후원자가 주변에 없었다는 게 모란개척
의 침체요인이다.



(모란) 벌판에서의 개척단 창설 후 국기를 향해 아침 조회 모습(1982경, 지금의 모란십가 주의)

14 '모란' 지역의 鄉土史 정리

개척단원의 공동작업으로 제작한 자작 브로크로 집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땅을 파고 거직문을 만들어 용집에 기지하며 살림집 신축공사와 축출 등을 것기에 힘써왔지만, 비8군이나 군대 등기생 무대에서의 원조물자 지원도 계속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없는 당시의 사정으로 50여명 개척단원들 일손 만으로는 한두 집이 아닌 집단촌 유지라는 게 쉽지 않았다. 김창숙과 함께 하며 용마생활을 하는 중에 유퇴원이나 모란중학교원, 버스정류장과 사설 우체국 설립, 그리고 모란 민속시장(5일장) 개설은 지역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김창숙 혼자만의 계획이 최종마무리로 성과를 거두려면 부수적으로 따른 노동력과 의자 말고도 능력과 재원의 지속적인 후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모란지역의 개척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몇 가지 고민거리와 몇 가지의 작은 성과만을 거둔 채, 끝내는 개척단원들이나 주도자 김창숙 스스로가 물거품같이 좌초되어 지역을 떠나 또 다른 사업구상과 동조차를 만나보려는 허황한 생각으로 방황의 길, 도피의 생활만을 지속하지 않았나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착지를 타지방으로 옮기지 못한 그는 자신이 일궈놓은 행 '모란' 인근지역의 서울시와 경기도 합작에 의해 광주대단지 개발지역이 되는 엄연한 현실을 못내 아쉬워한 나머지 모란주변에 대한 재도전으로 인하여 〈모란단지 사건〉을 연출시키는 수모의 장본인이 되기에 이른다.

3) 김창숙 지역 개척자의 功業 是非

1970년 이후 각 신문이나 잡지 등에 자주 거론되어 온 '모란' 지역 소개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딸 이름이 유별난 데서 느끼는 감각도 그렇거나 소문난 풍네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도시화의 변화가에서 民俗市場이 어김없이 4월과 9월만 되면 개설된다는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온갖 생활필수품과 시골에서나 볼수 있는 생산물들이 수천 명의 구경

문과 배배자 인파속에서 흥청거리는 복이 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 외에도 모란을 개척하여 활무지를 사롭시는 동네로 만들어 놓은 김창숙 장본인의 〈모란단지 사건〉이 또한 이곳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기도 했다. 이 와 함께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성남시 단봉 이전의 〈성주대단지 8·10사건〉과 더불어 해마다 뉴스상에 자주 떠올린 성남의 온갖 주제만상들이 지금까지도 성남시라는 비약의 거대도시를 오명으로 부터 벗어 올리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지역 이미지가 아닌가 한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모란'이란 地名 유래를 살피기로 하자. 한자로 표기될 경우는 모란이 牧丹(牡丹)이라 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지닌 단어가 '모란'이다. 꽃 이름으로 생각되는 이 단어가 새로운 동네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부락의 地名으로 정착되어 뜻사람들에게 通稱된 데는 나름대로의 유래답이 있기 마련이다. 城南市 발행의 82년도판 『城南市誌』에서는,

金昌源이 미 지명을 '모란'으로 舜名한 것은 그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원남후 가호적을 서울로 하였으나 본래 평양태생인 그는 재향근인 개척단원들과 이 新開拓地의 지명을 살피하였으나 紗案이 나오지 않자 실황면으로서 째 恩母之情을 술회하며 평양의 모란봉에서 따온 '모란'으로 결정하였다.

(권기홍; 1982, 9, 20, p. 306)

제극히 평범한 생각에서 별로 깊은 생각없이 몇 사람 모인 자리가 하나의 땅 고유명칭을 탄생시킨 셈이다. 거대한 포부를 지닌 개척단의 주동자였던 예비역 장교로서의 사사로운 의견이 그대로 묵인 내지는 공인되므로 짹 소속단체명 조차 '모란개척단'이라 하였고, 마을이름 또한 '모란'이 그 순간부터 결정되어졌다. 한계 마을이 새로 가꾸어지며 등장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당기간 토의과정을 거치는 게 상례이나 모란 지역 탄생만은 어찌보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군청이나 시청 등의 지역관

16 '모란' 지역의 土史 정리

청으로 부터 간성을 받을 여지도 없이 4~50명 지역 청년들 모임에서의 의견 일치라는 게 절차상 대중여론이 불필요하여 맨앞장서 손짓하고 총대 亂長 자격의 한두마다 이야기가 그대로 굳혀진 것이다. 그 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단체명칭 조차 '모란' 두 글자가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 가운데 둘마연 하대원리 일원의 벌판 새터땅이 짧은 시간을 통해 '모란'이라 통용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어제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나 1인 주도자의 생각을 맹종하였던 단체에서 마을 이름 하나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크게 중요할 리 없었다. 그들에게는 거처할 주택이거나 농사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를 신축하고 상가를 형성하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여건에 절대적 요소인 교통과 전화·전신 업무의 기관이 급선무였을 법하다. 그에 따라 '모란 민속 시장' 개설이 더 중요했고, 서울 왕래의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모란'이란 地名 하나에 시비를 걸거나 논리를 따져 異論 제기할 사람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이 세상사람들에 관용화 되었다. 이 이름 하나가 후대로 갈 수록 장차 개척단장 김창숙에 대한 治績으로 오랜 세월동안 남겨질 문제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김창숙의 공적이 또 있다면 〈모란 시장〉의 개설이 있다. 오늘날 까지 모란의 名所로 가장 먼저 손꼽히지는 데가 이곳의 민속시장의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어느 한 두 사람이나 단체의 공권력으로도 막을 길 없이 커지기만 한 모란 장날의 개설은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청송해 줄 일이다. 현재의 성남시를 일컬어 "철거민이 세운 구름위의 도시" "전국 8 도민 합중국의 신홍 人工도시"로 말들을 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는 것을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 없지 않았으며, 차장이나 자동차의 번호판 까지도 서울 행세로 위장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따지고 보면 불명예스러운 사건 다발 고장으로 성남 시가 전국에서 너무나 빈번히 뉴스 시간에 오르내린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 민속시장의 모란장날 거리와 꿀목 풍경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적지않이 혐오감을 갖게되는 현장이 성남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사는 대부분의 도시민 장년층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절의 고향마을 시골장날 풍경을 변화가 도회지에서 찾아 보면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일에 오히려 젊은 층에 반대 생각으로 즐겨 찾으며, 노인층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생의 애환으로 여기 '모란 장날'에 찾아와 즐겨 맞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그사이 웬만한 신문과 잡지에서 모란장날의 기사를 실지 않은 데가 없다. 그 중 몇 군데 기사 일부를 옮겨 본다.

할수와 인심을 사고 판다. 옛날 시골 장터의 정취가 풀센 담긴 5월장이 4와 9로 끝나는 날에 성남시 모관천변에 선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는 '5월장'이어서 장날이면 승용차를 타고 온 서울손님들이 장터를 메운다. 악평수의 아코디온에선 "홍도야 윤지마라"의 구성전 가락이 흘러 나온다. 옷 가지 노점상 앞에서 바지자고리를 입은 흰송이가 출타기 제주를 꾀운다. 차 럭사가 입에서 불을 뿐는 부술사범을 보인다. 아이 손을 광고 나온 부부는 부엉이파 짖먼조, 도끼 등을 구경시키면서 자연학습에 열중이다. 산나물 바구니를 벌여 놓은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거져요, 거져"하고 꾀뇌인다. 모란장에는 물건만물이나 각양각색인 서민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다. 아파트 주부끼리, 친척들끼리 서울사람들이 과를 타고 원정 향평을 온다. 값이 반데다 인심 좋은 농민들과 흥정을 벌이면서 도회지에서 느낄 수 없는 어유화 인정을 맛보게 된다.

— 87. 6. 5 한국일보 10 —

수진교와 대원교 사이는 물론, 모란터미널의 인도와 단대천을 따라 형성되는 모란장은 언제나 미처럼 시끌벅적하다. 민속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모란장은 과자에서 모여든 상인들을 주축으로 5일에 한번씩 날짜의 끝자리가 4와 9인 날에 서게 된다. 이 장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데 장을 찾는 손님은 주로 경기도 일대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버스정류장부터 도로변까지 각종

18 '모판' 지역의 鄉土 史 경리

상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없는 것 없는 만물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기름을 묵 떡은 농산물시장, 각종 과물 즉, 텁텁, 참발, 보리, 죠, 수수, 옥수수, 팔, 콩, 도토리 등이 풍성하게 진을 치고 있다. 또한 무우, 배추, 모란 등과 야채와 호무, 밤, 껌 등의 전과류 그리고 수입산 과일인 야자와 이수일부터 제철 맞은 밀감, 사과, 꽃감에 이르기 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중략〉 한쪽 구석에 출단지를 놓고 북쪽 벽을 꾸 빼는 아주머니의 표정, 소주 한 잔에 볶 어대가리를 듣는 아저씨의 거친 은, 매우 멀 떨어를 놓고 앉아 자니기는 사람들의 기색을 살피는 할머니의 주름살에서 삶의 질박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모란장은, 과장과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사용되는 언어 또한 예비있다.

— '89. 1창간호, 「성남짜 떡」, pp. 73~4. —

도시 속의 5월 꽃으로 유명한 성남 모란장은 차리를 옮긴 후에도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시외버스 터미널 뒤 면터와 성남로 주변 일대에 마구 자리 잡았던 1천여 5평장 상인들이 1백호 멀어진 계급의 터로 차리를 옮긴 것은 작년 9월. 갈수록 늘어나는 상인들과 손님들이 차도까지 차지한 때다. 성남로를 지나는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자 성남시청이 모란장의 이전을 모색한 것이다. 바침 작년 3월 대원원이 부문복개돼 3천3백여평의 면터가 생길 때 따라 성남시청은 평상시 주차장으로 쓰이는 이 차대로 모란장을 옮기기로 하고 〈중략〉 우여곡절을 겪은 모란장은 그러나 이전을 계기로 한층 정비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장터에 들어서면 입구부터 화훼, 껌과, 약초, 의류, 신발, 김화, 어물, 야채, 마늘, 고추, 예전 들풀의 숲으로 같은 종류의 상인들이 모여 있어 이용시민들이 한결 편리해졌다. 장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힘오감을 주었던 게 도살장을 한군데로 모으고 1억여원을 들여 현대식 시설도 갖추었다. 〈중략〉 모란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의 수는 1천2백~2천명에 이른다. 이중 모란민속시장 상인회에 등록을 하고 자리를 매정받은 사람이 9백 67명이고 나머지는 빙 차리나 동로, 부근 물목 등에서 장사를 한다. 꽃이 쇠는 날이면 평균 5만명이 이곳을 찾으며 그중 80% 이상은 서울사람들이고,

— '91. 6. 26 조선일보 —

필자가 여러 지면에 게재된 '모란장'記事를 대하며 적지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모란 지역의 생성이 5·25사변 때의 월남인이 모여 살며 생긴 곳이라는 잘못된 내용들을 위시하여 모란장의 시초가 용인이나 경안지역의 원주민들이 1964년부터 찾아들어 시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너무 잘못 전해진 글이다. 지금의 모란장날이 생길 때는 1963년에 모란지역의 상인대표와 지역유지 및 마을 통반장 책임자들이 여러차례 의논한 끝에 광주군청에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가를 얻고 난 뒤에 5일마다 민속의 옛스런 모습으로 시작하였던 전통대로의 장이었다. 처음 개설 당시엔 씨름과 율놀이, 농악놀이 까지 벌이며 적지않이 힘들어서 만든 일이었다. 그 후 성남시 판생 아들해인 1974년 10월에 정식으로 이 장의 폐지 공고까지 났었다. 도시화된 도로옆 인도까지 점유하는 인파속의 어수선함을 정리시키기 위해 강행하여 하다가도 결국, 멈춰버리고 유플라스 개최제에 시와 결찰서 단속으로 무질서한 풍경을 정리하는 단속으로 이 장날은 폐지단계에서도 관청이 물리어서 도저히 박을 길이 없으므로 1989년 9월 하순에 대원천 복개된 빙터 주차장을 5일 장날에 시장터로 사용도록 전용 해결책을 찾아 오늘에 이르는 민속시장이라고 알고 있다. 어딜 가도 모란장날 만큼 예전 조상적 훈훈한 인정을 맛보기 어렵다. 물건구경과 사람끼리의 사고 파는 흥정구경, 거기에 시장 꿀목안에서 파는 순대국밥, 막걸리, 쟁보리 잡곡밥, 떼지찌국 등의 풍성함이 한층 우리네 30년 이전의 삶의 분위기를 듣우게 한다. 그러므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속에서도 소일거리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짜을 짜여 구경을 하러 다닌다. 특별히 살 물건이 있어 온 게 아니라 모란장날의 만물상 사이사이에 웃음과 애환의 노랫가락 속에 옛 향수를 맛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이다.

모란장이 해가 바뀔수록 설날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지역주민과 서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점과 값이 할하고 물건값도 10~30%까지

20 '모란' 지역의 鄉土史 정리

깎을 수 있는 인심 후한 우리네 정취를 경험해 보는 곳이라는 데에 날로
장날 주변 거리와 꿀목은 인산인해의 초만원 도시속의 장날이 계속될 우리
고유의 정감 어떤 장터인 것이다.

'모란' 지역의 개척단장 김창숙의 또 하나 功績을 찾는다면 그가 모란 개
발 초창기 부터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모란우체국과 모란중학원, 그리고 모
란시장 설립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 공용 단체가 모두 그가 목표
한 만큼 달성되진 못해으나 분명, 그의 의도에 따라 기초공사가 서둘러 전
행되어진 일만은 누구라도 부정할 것이 아니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벌
정 우체국설치법에 의해 新生 부락 모란에 「모란우체국」이 설립되었고, 정
식 인가는 연지 못하였으나 모란 들판에서 단대천 건너쪽의 야산 중턱에
모란중학원 건물이 신축단계를 지나 지붕만 없으면 완성 校舍가 되도록 미
8군 지원 자제로 지역주민들의 慶應사업 기초가 닦아진 셈이다.



〈모란재군인 개척단〉 단장 김창숙의 단원의 시멘트 브로크 만들기 장면(1963
경, 지금의 풍생중학교 터)

한편 그동안 성남출장소 판내의 교육기관이라곤 1948년 5월부터 개교한 성남국민학교 뿐이었다. 중고등학교는 더구나 전무한 상황하에서 인접한 만거리의 양영중학교, 효성중학교, 낙생중학교가 있는 시절에 모란 지역 내에 중학교 과정의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김창숙의 계획은 자녀를 교육시켜 나갈 판내의 주민들에겐 더 없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김창숙 한 사람의 계획이 완성단계를 거치지 못하므로써 모란중학원의 소유주는 장승길 모란 우체국장의 손위 차남인 흥사풍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사장에게 학교법인 자체가 인계되었지만, 중부면 단리 405번지에 건물 끝조 공사를 이루어낸 김창숙의 업적도 전혀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레프로 모란학원을 인수받은 흥사풍 사장은 학교법인 豊生學園이라 개칭한 그 학교의 연혁에서도 모란학원에서 기초하여 풍생중학교와 풍생고등학교가 創學되었음을 그 학교의 연혁에서 밝혀 두고 있다. 풍생중고교의 모체인 학교법인 풍생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일자가 1966년 11월 19일이나 설계의 학원 前身인 모란학원 건물 신축연도는 이보다 훨씬 앞서인 1963년이다. 지붕없는 신축 중의 건물 골조만이 현재의 풍생중고교 대강당인 植天紀念館 그 자리에 우뚝하게 서 있었던 모란지역 개척 당시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새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높은 벌딩과 밀집된 주택 가 꼴목이 예전의 野山이었음을 잊은 채 자꾸만 예로부터 거대화의 도시모습으로 모란지역 역사를 감식해 버리는 듯 싶다.

김창숙의 모란 전설은 서서히 새로운 후손들에게 옛이야기로나 전해질 것이며, 모란우체국이 있었던 자리나 풍생중학교의 전신이었던 모란학원 그 흔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이같은 글로나 몇군데 남아 역사의 히탄스러움을 꼽씹어야 하는가 보다.

모란 지역의 생생 역사에서 71년 2월 10일 모란단지 사건과, 성남시 개발사 중에 71년 8월 10일 8·10 주민궐기대회는 성남 향토사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두 사건에 있어 김창숙 모란단지 사건만은 '모란' 지역

22 '모란' 지역의 土史 정리

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모란 개척사의 불멸의 치적을 남긴 개척단장 김창숙 자신이 무모하게 저지른 사건이기에 잠시 기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93년도판 『城南市史』 제3편, 성남의 탄생과 발전 제3장, 4절 둘째 항에 수록된 사건 진상을 말해 둔다.

일명 金昌叢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남개발 초기의 사건으로 규모면으로 보면 참으로 엄청난 부동산 사기사건이었다. 1970년 가을부터 구상 진행된 미 사건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풍주대단지(약 3백만평)의 12배가 넘은 4천2백만 평을 개발하여 250만 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5년간에 걸쳐 풍주 대단지 투자규모 93억원의 15배나 되는 1,328억원을 투자한다는 희무맹랑한 주택지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70년 12월에 시작하여 8개월 동안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내고 71년 8월 2일 막을 내렸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사건의 주모자인 김창숙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93. 10. 20. 성남시 : p. 407)

모란의 신화를 탄생케 한 김창숙 예비역 장교의 생각은 늘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새로운 모델의 새마을을 이루어보려는 데 있었다고 측근자들은 그의 이심을 들려 준다. 언제 어디서나 그가 가진 생각은 한결같아 정치단체와는 일체 무관한 낙후 농촌의 개간사업으로 꿈이 부풀어 있어 만나는 사람에게 말의 줄거리는 개척의 설계담을 들려주는 사람이었다. '모란' 황무지를 어느만큼 사람이 살아갈 주거지, 삼업지구로 탈바꿔놓은 공격을 자신감으로 지니면서 대 거대한 개간의 설계도를 다시 모란 인근지역으로 자리잡아 보자는 게 그의 만만치 않았던 계획이었다. 개척단의 일원으로 끝까지 옆에서 일을 도왔던 한 원주민에 따르면,

김창숙 단장의 성미는 강직하여 군인의 지휘통솔 능력이 몸에 텐 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세상사가 다 이루어질 듯이 자신만만해 하여 함께 일하고자 나섰던 사람들도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으나, 그의 자신감을 면전에서 바라보면 그대로 거짓이 아닐 것이라는 통감이 가더군요. 남에게 무언이나 인정

을 배풀어 주길 좋아하며, 사람 차별을 많하는 수수함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북한사람으로 정의심도 많으며, 일단 생각이 통하면 해사를 떡 벙는 탓으로 김 단장은 살해가 커어요. 모란을 광주대단지 개발 보다 수백 배 확대하려는 것도 그 사람 혼자 능력이 아니라고 보아요. 그의 배후엔 누군가 아주 힘이 있는 재벌과 세력있는 이들의 후원자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일이 잘못되어 부동산 대 사건으로 뛰지고 나니까 자기 혼자인 양 피해를 치렀으나 어딘가 미신쩍은 데가 있거든요. 모란에서 상당시간 죽적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았던 김 단장이 여러 해안에 빼고도 없이 나타나서는 이 둘째 사람들을 불러 놓고 아주 폐기만만한 사업 이야기를 말했는지, 그의 사람 불임성은 호인적이었다고 보아요.

한 마디로 추정하자면, 김창숙의 인간성은 호인적이되 대인관계가 폭넓지 못하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 친인척 간에 그의 커다란 야망을 뒷받침할 줄도 있는 능력자가 없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을 저지르는 강직성은 있으되, 외지에 조화를 이루는 판단력이 편협된 성격이라고 보아진다. 자신이 부족한 면을 보완할 또다른 친구나 내조자가 없다는 것이 큰일을 끔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리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 사람으로 함께 일할 만한 직원 한 명이 제대로 없이 허리굽히 복종하는 사람들만 이끌고 무슨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실수 연발의 자초가 되기 실상이다.

1970년 가을부터 모란 지역을 포함한 대왕면의 둔전리까지 개발영역을 넓게 잡은 김창숙은 서울 회계로 4가에 (주)모란개발단이란 사무실을 차리고 71년 2월, 광주의 모란 현지에서 기공식도 거행하였다. 이 때에 참석인사에게 공개한 사업계획의 충체적인 구상은 엄청났다.

71년 2월 10일, 모란 현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는데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원희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등을 태운 헬리콥터가 모란 개척지까지 날아오고 수십대의 불도저가 땅을 밟아대며 성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러하니 자연적으로 이웃 주민이나 모란지역의 지주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모란개발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더우기 일본에

24 '모란' 지역의 地土史 정리

서 700억원의 기금이 들어 오게 되었다니 그 액수는 서울시가 광주대단지에
총액 투자기로 한 93억원의 8배인 많은 액수이다. (성남시사, p. 409)

고문진 배후인물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역장성, 대학교수, 일본인 등
의 저명한 인사가 회장 송재구(사회산업)와 13명이 나열되어 있고, 관내의
중부면, 대왕·돌마·낙생면 4개면 한의 4,200만 평 개발에 총투자액 1,300억
원을 71~7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다고 거창한 모험 설계도가 뿐이었다.
토지 매입과 택지조성 후에 삼·하수도, 도로포장, 공공시설 등이 투자내역
에 소개된 가상 설계서에는 5년 개발 후에 조감도야말로 엄청난 규모로 과
대성을 숨긴 것이었다. 현재의 성남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방송국 1, 통
물원 1, 구청 6, 경찰서 6, 학교 235개교에 보건소가 100개소라는 상상을
초월할 시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의 하수인들은 사무실을 서울과
모란에 차려놓고 토지 및 주택 분양증을 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평 짜리 택지 분양증 1매당 38,000~110,000원씩에 팔아 6개월 만에 분
양증이 8천 장이 팔려나가므로 하여 사직당국에서는 너무나 허무 맹망한 개
발계획에 대응한 행정조치를 취하다가 71년 8월 2일 사건에 일단락 마무리
를 지었다. 그 휴유증도 적지않아 김창숙 부동산 사기사건에 연루된 피해
자가 6,500명에 2억 7천만원 정도가 드러났다. 김 단장은 그 즉시 입건조
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광주대단지인 현재의 산성동에 전원 천입시키므로
하여 이 사건은 8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범한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았던 이 사건 내
막은 아직도 궁금한 실마리가 없지 않다. 어찌, 그 당시 부동산 행정조치가
엄격했던 시대에 있어 무모한 이런 사건이 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남게 된다. 하여튼 모란에서의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
았다. 김창숙 개척단장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끝내 사기꾼으로 酒名만을 남
긴 채 구속 수감되어 5년형의 선고를 받으므로써 모란개척단 단지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후 4년만에 출옥한 김 단장은 나이 50을 맞게 되었으며, 자신이 고심하며 땅방울도 훑어야했던 모란지역의 생활을 청산하고 또다시 그의 발길은 제주도 지역 개간사업에 구상을 하면서 몰락한 사회사업가답지 않은 처신으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4) 市로 승격된 후의 '모란' 변천사

1973년 7월 1일을 기해 법률 제2597호 근거로 광주대단지의 속칭 '도시동'과 '농촌동' 일원이 하나가 된 도시로 승격되었다. 성남시라는 도시명칭을 만들어 자연발생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인구,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위성도시를 아래 인구 16만5천 명, 법정동 41개에 한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 후 각 閭마다 인구 증가에 따라 分洞이 있어 오면서 81년에 이르자 37만6천 명, 89년에는 53만명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문당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뒤이어 아듬해엔 수청구, 중원구, 분당구 3개구 분할과 더불어 모란은 중원구 성남동에 속하게 되었다. 지난간 93년도 기준으로 인구 64만 명에 3구 37동 844동 4378반 조직 구조로 방대한 가운데 그 1개 통인 성남동은 성남시 중원구에 속해 있어 교육과 행정,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서 미래를 향한 각광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남동에 포함된 '모란' 지역은 분당선 지하철 개통과 함께 그 어느 통네 보다 주변의 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주택과 대지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다. 현재 1.99km 2면적에 9천4백 가구, 인구 3만7백명이 거주하면서 과거에 고심했던 우기철의 침수문제도 단대천과 대원천의 복개 및 8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자연 해결되는 잇점을 안게 되었다. 성남동이 성남시 탄생에 때를 맞추어 法定洞으로 독립된 때엔 성남2리 54, 수진2리 18, 둘마면 하대원리 일부(1-89번지, 470-478번지, 산 23-30번지) 그리고 둘마면 하대원2리 둘레가 합쳐서 하나의 洞으로 출발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6 '모란' 지역의 鄉土史 정리

'모란'을 중심축으로 한 성남동이야말로 해가 거듭할 수록 그 외형 전축 풍과 내용면의 시민생활은 눈부신 향상을 약속이나 한 듯이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94년 9월 1일부터 개통된 분당선(수서~오리) 지하철 철과 개통에 발맞추어 크고 작은 새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특히, 모란 대로변 곳곳에서 자주 보게된 것도 바로 '모란'의 비약적인 도시발전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필자가 94년판『孽生』 교지에서,

분명, '모란'의 기적은 그 어느 도시에서도 흔치 않은 鄉里의 기적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 뻔하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또 개통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 환승시대에 이르면 성남시의 가장 번화가 濟圃地域으로 큰 명예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모란' 천정역은 환승역으로서도 과정을 반야복감한 鄉里文化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단대천 복개공사 장면, 멀리 보이는 다리가 '모란다리'(1994. 6경)

예전한 말은 불원간 현실로 닥아올 것이 확실하다. 최근의 지역 홍보매체인 주간지『도시신문』에서도,

김창숙이 황무지 밭을 개간하자 김창숙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급기야 일부 모란지역 地主들의 호응을 받은 김창숙은 불도저로 경지작업을 한 후 20㏊ 빠리 택지분양장을 1㏊당 3만8천원~11만원씩 매각했는데 이 택지분양장은 날개 들판듯 펼려나갔다. 이때 팔려 나간 분양장은 8천장이고, 8천9백평을 경지작업 하자마자 6천6백여 명의 인구가 이미 입주해 불과 5개월 만에 9백86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이렇게 대봉은 성남동은 김창숙이 사용했던 ‘모란’이란 지명으로 마치도 불려지고 있다. 김창숙은 현재의 모란 5일장을 개설한 장본인이고, 성남우체국의 전신인 모란우체국을 만들었으며, 풍생중, 고교의 전신인 모란학원을 개교시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김창숙을 고도의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김창숙 개인이 활달부개한 꿈을 갖고 있었으나 본질적인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김창숙 사건과 성남동은 깊은 관계가 있으나 지금 그충전들이 올라가고 지하철이 관통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옛날 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용행식; 1994. 2. 7. 3/우리동네-성남동)

하는 신문의 짐승 취재기사는 시기적절하게 ‘모란’ 즉, 성남동 일원을 조감한 내용이라고 본다. 앞에서 누차 기술한 대로 김창숙의 功業은 그 是非가 찬반으로 엇갈리게 마련이다. 잘한 성과를 대하면 위대한 지역 개척의 선구자임이 분명하되, 그의 70년초의 〈모란 부동산 사건〉 주동자라는 데에 이르면 사기꾼으로까지 오명을 벗기 어려운 실로, 功過 관별이 예매하고 불투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모란’지역의 학교와 규명에 있어 어느 누가 이 역사적 혼명을 하기란 곤란하나 ‘모란’ 땅과 김창숙 한 개인의 관계는 떼어 놓을 일이 못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제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과 교육의 모범도시로 성장하기 까지에는 실로 개척단원 및 원주민들

28 '모란' 지역의 墓土史 정리

의 예향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이 근간에 팔려 있었고, 수많은 지역선도 단체의 향토유지와 각 공공단체, 각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열성적 협력에 발판이 있었으므로 하여 더 빠른 시간안에 모란의 변천사는 놀랄 지경에 이른 감이 듈다.

성남시가 탄생되기 월전 오래전 김창숙 한 사람의 주동자 능력에 의해 모란이 탄생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대한 영원한 업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그와 더불어 함께 힘써왔던 모란개척단원 또한 과소평가해선 않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그 단원들과 가족끼리는 "모란재 향군인천북회"라 하여 매월 친목의 모임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면, 실로 '모란'의 어제와 오늘이란 게 인공도시 성남시 탄생 못지 않은 우여곡절 과정을 고통의 역사가 이 지역에 숨쉬고 있음을 것으로 짐작해 보는 것이다.



풍생중고교 앞 도로의 지하철 8호선 도로공사 모습(1994. 7. 5경)

필자가 이 論考를 위해 생생한 모란의 현장 사진을 찾아 나서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빨길을 옮기이며 다시 한번 모란의 옛 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아직도 모란시장이나 옛 개척단원의 주택지 부근에는 30년 전의 단층브로크 20평 미만의 가옥들이 초라한 채 몇 채 남아 있었다. 지하철 관통의 지상 대로인 '설남로'는 그 옛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주 비대한 벌딩 숲을 거느리고 유택선 위에 버린 변화가 절연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다. 앞길과 뒷골목의 풍경에서도 이같은 대조현상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모두가 증개축으로 달라진 우리 성남시 뒷골목의 주택촌에서 더구나, 가장 중심지 변화가로 뻗어온 모란의 지역에서도 민부격 차의 실상은 거리와 골목의 현장이 그대로 알려고 있는 듯 싶다.

'보란'이 집설촌으로 단지가 형성된 지 30년 이상이고, 성남시가 市制 실시 이후 도시화 20년 이상이 되면서 제도약의 지하철 위성도시, 인구 1백 만 명을 내다볼 전원 기대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동안 漢名까지 모란동이라 하지 않았음은 아쉬운 미련이 있다. 성남시 태동의 앞 시대에 조성된 마을의 지명을 외면하고 굳이, 城南洞이라 명명하여 동 구역을 관할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해석하기에 따라서야 오히려 모란동 보다 성남동이 훨씬 뜻깊지 않느냐 할까 몰라도 이미 통용되었던 지명을 그것도 과출소, 우체국, 각 공공기관, 삼호명 등에 수없이 사용되어 있는 '보란'지명을 달리 만들어 쓴다는 때에는 의아한 기분이 들 수 밖에 없다.

'보란' 지역은 단독으로 쳐 나갈 수 없는 땅이다. 어차피 설남시 중심지의 위치에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가는 국민들에게 큰 편리를 주는 길목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이홍을 불러 일으킬 민속장님이 골목 길숙하니 숨어 있어 누구에게라도 찾아가고 싶은 名所로서의 도시 거리요 주택골목인 곳이다. 市로 포용되어 발전하면서도 언제나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는 많은 공공 기관들이 계속하여 들어차고 있다. 금융기관, 교육시설, 상가와 뷔페업소들이 80년대 이후 속속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면서 특히, 88서울을

30 '모란' 지역의 土史 정리

람찍 개최의 그 해엔 성남종합운동장이 하키장 전용구장으로 제정을 다졌다. 뛰어난 중고등학교의 스포츠팀인 풍생중고 축구부와 성일고교하키부의 전국체육 승리도 모란지역 소식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할 자랑이었다.

모란지역은 성남시의 '성남' 두 글자를 동 명칭으로 받아들인 최우선 길트인 동네로서 시 전체의 협착한 구릉지를 벗어나 탄천에 연결되고 지방도로와 이어지며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향하는 길목도 된다. 사동팔달의 처리역 여건이 예전부터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4층집에서 5층으로 요즘은 7~8층의 빌딩이 자꾸 신축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2전신전화국, 성남관광호텔, 성남제2국민학교, 풍생중고등학교, 성수국민학교, 모란예식장, 의남문화회관, 수진동 우체국, 남부과출소가 모란지역 서북쪽 언덕편에 우뚝 자리를 하고 있다.

복동편에는 수성교 위에 연결되는 제일로를 사이로 성남스포츠의 요람인 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 성남동사무소가 밀집된 상가와 요식업소를 걸에 두었다. 그리고 중앙로, 광명로, 번영로와 성남로 노면 사이엔 그야말로 대도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각종 간판들이 줄비하여 낮보다 밤의 활기함이 요지경으로 바뀌는 옛 모란 그 자리에서 현대의 가장 상징적 간판단어들을 읽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여러 빌딩 총총이 꾸민 점포와 금융기관, 관광회사, 병원, 교회가 오가는 성남비스티미널 여행객의 눈길을 멈추게 할 지경으로 모란은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60년대의 우체국과 교회, 1층 점포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거의 개축된 새 빌딩으로 변하고, 90년대에 오며 완전한 대도시의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간판이 줄비한 지역으로 달바꿈한 모란에서 오히려 무질서와 도심지 소음공해의 자동차 교통문화가 타도시처럼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한 지 벌써 오래다. 환경의 악조건을 놓고 고심하는 시대가 된 이 시점의 모란 변천사는 앞으로 위험수준의 심각성을 불러 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성남시의 수정구와 중원구 시민들이 함께 걱정하던 이 지역의 도시 변화와 함께 분당구 새 주택지가 대형화되므로 하여 그 어느 둘레 보다 모란의 도시교통 문제는 그 심각성이 아주 높아 있다. 서울시와 지방권으로 가는 통로 중간지점인 모란의 환경조건은 갈수록 위험수준에 차 있다는 현상을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모란지역의 오늘은 이제보다 엄음에 반해 일은 것 또한 직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란) 지하철 역사 공사 모습(1994. 8. 10경)

3. 마무리 글

지금까지 〈모란〉 지역의 지나간 30년 전후 역사를 토대로 해마다 도시로서 성장해 온 향토사를 살폈다. 머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증거의 부족과 잘못 전해지는 몇 가지를 자격하였을 뿐, 이 통대의 발전사에 있어 더 완벽한 경리가 되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사하고 원주민들과 관련하였던 사람을 만나 사실의 진위 여부를 고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중연을 칭위할 수 없는 관련인사들도 있어 어쩔 길 없다고 하겠지만 장승길 모란우체국장, 김순옥 김창숙 단장의 부인, 그리고 생존 중에 있는 여러 명의 개척단원을 만났으면 싶었다. 쌍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글을 짐작하는 일에 도움이 될만한 대답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여 못내 아쉬움의 부족감을 갖어 보게 된다.

모란은 앞으로 꾸준히 멀집형 도시로 커갈 것이다. 제한된 1.99평방 킬로미터의 공간안에 인구는 늘어나고 도로폭이나 세 건물은 확장되면서 지하철 '모란' 驛술 부근의 고층 빌딩은 날이 갈 수록 대형화로 유동인구와 경착민 밀집률이 블빌 것이다. 동사무소도 인구가 늘어나면 상당되어야 하듯이 '모란' 지역의 도시기능 차폐 또한 전담기구화 전문인 연구, 차문, 검토로 계획성있는 잘·단기 발전형의 체계가 운영되지 않으면 할릴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형식적인 관변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녹지공간 배치를 위한 도시공학적인 면의 연구될도 두고, 노인문제의 복지정책을 위해 실질성있는 지역유자와의 정례 견토회의도 있는 가운데 주거공간, 인구밀도, 교육시설, 위락업소 배치, 청소년 복지시설, 사회단체의 참여 문제 등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길 하나 짓는 일부터 상가 형성, 도로폭의 확충, 꽁꽁건물의 신·개축과 이전문제 전반에 있어 최일적인 행정면의 중심 를을 벗어나는 설남동 발전기구가 설치되어서 선진국가의 발전 모델과 전통 풍물거리 조성에 시민 다수의 의견이 끌고루 반영시켜 나가는 모란 지역이어

야 할 일이다. 좁으면 좁은대로 폐적한 삶의 티전을 가꾸고 녹지공간 조차
별로 없는 골목과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미래의 후손과 현대의 생활 자체가
연계되도록 장기적 안목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모란은 비대한 市場거리가 사라지기 어려운 통네며, 유통인구가
수시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길이 뚫리고, 새동네
가 바로 이웃에 분당구라는 이름하에 생겨나므로써 중간 길목이 되었다.
낯선 사람들의 첫인상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전통품물 거리쯤을 더 세심
한 연구로 가꾸어서 용인 민속촌 한 부분을 모란 어느 골목에 찾아들어 구
경할 수 있도록 가꾸는 성남시 안의 민속 전통의 금목을 만들었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의 단위농협 뒤편의 옛 김창숙 가옥대지에 기념식이라도 세우고,
개척단 집단주택지와 모란장터 자리에 옛스런 우리 고유의 음식점 금
목을 만들어 무공해 먹거리 시장을 의도적으로 지정해 육성시켜 나가면 어
떨까?

성남동의 옛 모란지역 인구가 성남시 탄생 당시였던 73년에 13,059명,
80년 20,437명, 90년에 이르자 32,304명이다가 94년 현재로는 30,774명이
다. 앞으로 더욱 증가율을 가져올 이 땅에서 서울을 오갈 시간마저 단축되
는 전철개통이 되므로써 날로 공해문제와 각종 사고사건의 심각성이 잠재
해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80년대초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외에
는 잠실 롯데월드 까지 모란에서 30분대에 갈 수 있었고, 모란에서 말죽거
리까지도 30분대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후에 격증한 통행량 인구의 폭증
으로 인하여 1시간 이상 아니, 2시간 까지도 소요되는 교통체증에 시달린
이곳의 사정에 비하여 이번 개통된 지하철 시대를 맞은 성남시 모란지역의
생활이전은 큰 변화의 정후라 하겠다. 지난 시기의 옮고 그름에 너무 집착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모란 청사진 앞에서 크고 작은 일
들이 해결되어 가야 할 것이다. 지난간 1960년 초기의 탐출했던 개척단 원
주민과 김창숙 단장의 치적은 기념비적 차원에서라도 새워져야 할 것이다.

34 '모란' 지역의 鄉土風 정리

황무지를 사람 살 주택단지로 가꾼 그 업적을 외면해 없앤다면 어느 누구의 또 어떤 일이 칭송받을 것이겠는가. 외면하고 묻혀둘 일이 아니라 후손에게 귀감될 개척 향토사 궁로쯤은 길이 새겨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어떤 동네인들 사연이야 왜 없겠는가? 하지만 성남시 일원에서 '모란'만큼 생활의 애환이 깊이 새겨진 마을도 그리 흔치 않다. 남한산성 둘레나 청계산 계곡, 사기막골 주위, 문당 굴짜기의 전설 못지 않게 '모란'현대사에 꼬소트는 오늘의 현대인 신도시 전형의 새로운 기들이 앞서 차뤄진 땅이다. 전국의 새마을 본보기로 모란을 기워 나가려했던 개척자 일꾼들의 빌자해를 예기, 모란 흙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모두 시멘트에 가려지고 벌딩에 짓눌린 이 땅에서 어린 학생을 구하려다 익사한 순식 교원의 흔령도 떠들고 있으며, 온갖 힘겨운 작업에 땅을 얻어 말못하고 요절의 비운을 남긴 흔령도 없지 않다. 잠초 속어진 들길과 산 중턱을 둥땅 주택지에 넘기고 세월만 흘러흘러 이제는 아예, 단대천 물빛 마체 복개공사와 지하철 마무리 삽질에 빼앗긴 모란의 향토사를 못내 그리움으로 가슴에 물어둔 원주민의 빼앗긴 그 산바람과 들꽃 향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것들이 그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성남인은 다시 또다시 모란의 역사 그늘에서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

城南文化研究 (1995. 제 2 호)

인 쇄: 1994년 12월 일
발 행: 1994년 12월 일
발 행 인: 이 창 멜
편 집 인: 김 용 일
편집위원: 이 영 풍 · 이 윤 숙
발 행처: 성남문화원부설 한도문화연구소
주 소: 우)461-192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309-425
전 화: 0342)753-1020 750-2348 FAX: 0342)756-5245

※ 이 연구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 지원금
및 문예진흥기금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